

영광의 비밀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영광의 비밀

이다윗목사 지음

홀리타임



목차 CONTENTS



제 1부 성막의 비밀 7

제 2부 성막을 통한 유익들 47

제 3부 성막의 구조 91

제 4부 성막에서 드러지는 제사들 259

제 5부 제사장은 누구인가? 344





1부

/

성막의 비밀

1. 모세의 성막



성령님은 거룩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왔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 기록을 상세히 남겨 두었습니다.

“[출 26:1]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열 폭을 가늘게 켜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 놓아 만들지니”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그대로 이행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거룩을 경험하기 위해선 성막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막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결과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성막은 뜰과 회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속죄 의식이었습니다. 속죄 의식을 살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깨끗함’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말합니다. 원래는 성막의 형태였으나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이동했습니다. 그 마지막 거처가 길갈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여러 성읍들을 정복해가면서 성막은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실로에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삼상 1: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

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 자에 앉았더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모든 것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동용이었고 성전은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의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50장 이상에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막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며, 성령님도 잘 알게 됩니다. 성막을 알게 되면 성경이 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막을 알게 되면 성경이 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막을 알게 되면 왜 레위기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켜왔던 레위기가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2. 성막문



성막문은 네 가지 실로 수를 놓아 만들어졌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은 동쪽과 서쪽의 길이가 50규빗(대략 25m)이고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대략 50m)입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실로 수를 뜬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 27:16] 뜯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짠 이십 규빗의 장이 있게 할찌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문은 20규빗(10m)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큰 문입니다. 성막 동쪽편의 길이가 50규빗(25m)이니 거의 반 정도가 문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문이십니다. 구원을 향한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 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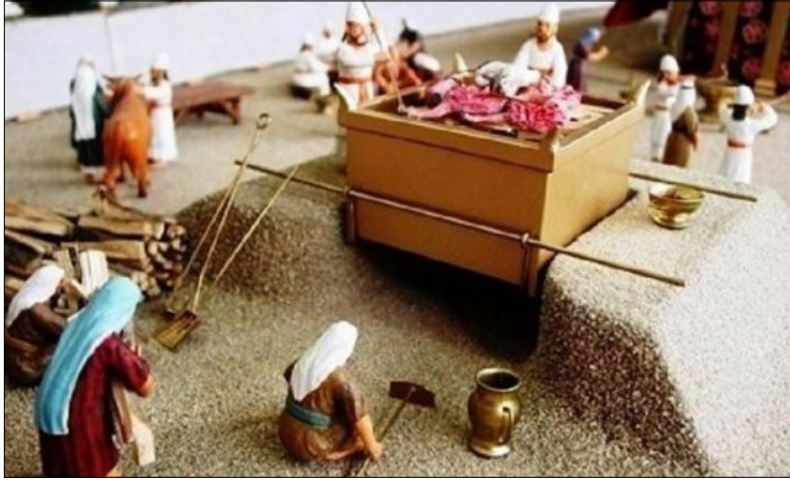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막문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못 배운 사람도 잘 배운 사람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자유자와 노예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막문은 오직 동쪽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하고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
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3. 번제단



번 제단에서는 짐승들이 불살라집니다. 짐승들이 번제단으로 끌려 올 때 짐승에게 안수가 행해졌습니다.

“[레 4:4]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가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단에서 불 태워질 짐승에게 안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수는 신체와 신체가 닿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능력을 전할 때도 사용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때도 사용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번제단

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짐승이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어린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짐승이 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번제단 위에 올라가 불태워 죽임을 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삯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삯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죄인의 삯을 대신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성령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먼저요 다음은 육체적인 것이 뒤따릅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세례를 의미하며 육체적인 것은 물세례를 말합니다.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육체적인 것이 먼저 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로 물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전통 때문에 먼저 물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영적세례, 즉 성령세례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물세례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세례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번제단에서 이미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성령세례입니다. 육체의 깨끗함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사람은 먼저 주 예수를 자신의 구

세주로 받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고 말한 것입니다.

4. 물두멍



물 두멍은 물이 들어있는 큰 대야입니다. 성경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 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찌니라”(출 30:19-20)고 물두멍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합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사의식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은 모두 신발을 벗은 채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볼 때 성전의 땅은 일반 땅과 다를 것이 없는 맨땅이었

습니다. 맨땅에서 신발 없이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방 발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번제단은 늘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가 뿌려지고 버려지는 곳입니다. 제사장의 손과 몸은 늘 짐승의 피가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선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물두멍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물두멍에서 우리의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통해서 이전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5. 성소에서 예배하라



성막안에는 회막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회막은 물두 명 바로 뒤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회막은 성소(Holy Place)와 지성소(Most Holy Place)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진설병과 일곱촛대와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소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막의 뜰에서 정결케 된 사람들은 성소에서 거룩하게 변합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데 그것은 오직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직 성소에서 예배할 때 참경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성막의 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경배자를 성소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늘 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성소의 성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에 들어 서면 오른쪽으로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모두 12개로써 안식일 전날에 만들어져 안식일 아침에 진설해 놓습니다.

진설병의 의미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요 6:4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소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의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떡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요 6: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성소 왼쪽에는 정금등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정금등대는 일곱

개의 촛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촛대가 하나의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소는 정금등대의 불이 있어야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회막은 모두 네 개의 덮개로 씌워져 항상 어두웠습니다. 처음 덮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청색, 자색, 홍색, 흰 실로 짠 큰 양장입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덮개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가죽입니다. 네 번째 덮개는 물개가죽입니다.

회막엔 유리창이 없습니다. 아무런 구멍이나 열린 공간이 없는 차단된 장소였습니다. 그런 회막을 네 개의 덮개로 씌웠으니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런데 정금등대가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혔기 때문에 어둠과 혼란없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정금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었으며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뜻합니다. 정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또한 살구꽃은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또한 정금등대는 모두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은 승리의 숫자이며 완전의 숫자입니다. 정금등대 모양을 자세히 보면 양쪽으로 세 개씩 놓여져 있고 가운데 한 촛대가 우뚝 솟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를 빼 숫자는 6입니다. 6은 인간의 숫자이며 사탄의 숫자입니다. 불안정한 숫자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개인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전해집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지막으로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분향단은 실제적으로 1년 365일 거룩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의 연기는 성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시 141: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고서 어린양 앞에 드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계 5: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5.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 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그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성소는 오직 한 가지 언약궤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히 9: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 만나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은 모두 하나님의 실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 금항아리는 생명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싹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비석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 속죄소의 그룹을 통과해야 한다



하 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언약궤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놓여져 있는 두경입니다. 그 속죄소는 언약궤의 크기와 똑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2.5규빗이고 세로가 1.5규빗입니다. 그리고 약간 높이가 올라가 있어서 그곳에 피를 뿌려도 피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속죄소 양 끝에 두 그룹이 놓여져 있는데 날개를 최대한 활짝 편 상태에서 고개는 속죄소를 향하고 있어 마치 속죄소를 경배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워 만들었는데 속죄소는 100%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룹은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은 사뭇 놀라움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장 흔하고 천한 보잘것 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이곳에서 만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천한 자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금은 불순물이 1%도 없는 금을 말합니다. 1%의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정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1%도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한번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잘 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죄소와 언약궤 사이를 지키고 있는 그룹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 쫓았을 때 에덴동산에 무엇을 두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화염검과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섭습니다. 악한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사입니다.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죄인에게 두려운 천사입니다. 에덴동산은 곧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통해 천국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언약궐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언약궐에 들어가면 실제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천국의 세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7. 언약궤의 비밀



회막의 휘장

하 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기둥은 성막에 비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막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성소입니다. 불기둥은 지성소에 비쳤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오직 일년 중 7월 10일 하루만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날 그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히 9: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 차

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금 지구역이었고 신성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을 봤지만 그 불을 직접 쬔 수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일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충만하게 불기둥을 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휘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휘장을 둘로 찢으신 것입니다.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오직 일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를 가로 막는 휘장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춰서 들어갔던 두껍고 무거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둘로 쪼개진 것입니다. 마치 짐승이 쪼개지듯이 두 조각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을 상상케 합니다.

“[창 15:17] 해가 저서 어둠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고대근동지방에서의 계약체결의식을 보면 원래 약한 자가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할 경우엔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대신에 스스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휘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두 조각으로 쪼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큰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진 지성소

이것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그것도 일년에 하루만 허락되었던 지성소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게 된 것입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

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뵈는 것은 죽음을 뜻했기 때문입니다(출 10:28).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셨으므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에선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을 가져와선 안됩니다. 대제사장도 이곳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하는 것을 불경하게 여겨 향로의 연기를 자욱하게 만들어 직접 보지 못하게 한 후에 들어갔습니다.

“[레 16:12]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레 16:13]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언약궤의 구조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아래

구절 때문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히 9: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성소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함께있다고 설명한 것은 이 땅의 지성소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성막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는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하루동안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향로는 지성소 휘장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성막에는 금향로가 언약궤와 함께 있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함께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과 만나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지상에서 바라 봤을 때의 의미와 천국에서 바라봤을 때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언약궤 속의 성물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돌판은 말씀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부활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 만나 항아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바라본 언약궤의 성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판은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모든 말씀을 상징하며 그것은 곧 언약을 뜻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없는 것을 있게 하며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 만나 항아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상징합니다. 언약과 믿음, 그리고 사랑은 천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세 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언약궤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가로 2규빗 반과 세로 1규빗 반 높이 1규빗 반으로 만들어진 박스입니다.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했을 때 언약궤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출 25:10]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사람이 직접 그 궤를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짐승을 통해서

이동해서도 안됩니다. 사람이 함부로 만지면 죽게 되었습니다.

“[삼하 6:6]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옷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삼하 6:7] 여호와 하나님이 옷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옷사는 레위지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언약궤를 만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출 25:14]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게 하며”

언약궤는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출 40:20]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이고 언약궤를 덮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들을 수 있는 양쪽 막대기가 그 하나입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은 속죄소입니다. 이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매우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소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대제사장을 위해 피를 뿌렸으며 백성의 죄를 위해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는 두 그룹이 날개를 치켜 세운 형상으로 지성소를 감싸고 있습니다.

“[출 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언약궤와 불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은 정확하게 이 속죄소의 피를 통해 언약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속죄소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속죄소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히 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다면 왜 하늘의 불기둥이 지성소에 비쳤을까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기둥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비취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의 실체와 불기둥으로 연결 되었음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성막의 구조에서 설명 드렸듯이 회막은 네 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는 어둡 그 자체입니다. 다행히 성소에는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1년 365일 켜져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성소는 항상 밝습니다.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성소와 달리 지성소는 어둡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성막을 만들 때 성소는 밝게 하고 지성소는 어둡게 했을까요? 지성소는 인간의 빛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 온 불기둥에 의해 항상 밝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빛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할 때에도 빛을 내는 도구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향단의 연기를 자욱하게 뿌린 후 자신과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송아지와 염소피를 뿌렸을 뿐입니다.

“[레 16:12]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레 16:13]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레 16: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16: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언약궤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 놔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는 마음도 내려 놔야 합니다. 호흡도 조용히 하십시오.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깊은 집중에 마음을 놓으십시오. 이와 같은 방법은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집중은 그들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집중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집중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고요함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추운 곳에서도 따뜻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언약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성소가 중요한 것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만 거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 갔을 때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으며 영광의 빛을 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느낄 수 있으며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부음이며 성령충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속죄소에는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속죄소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속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죄소를 거쳐야 합니다.

속죄소를 통한 언약궤기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언약궤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언약궤 위에 놓여져 있는 속죄소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보혈은 온 몸에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온 몸에 뿌려질 때 중요한 점은, 그 보혈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몸에 뿌린다는 것은 보혈을 지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능력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피 뿌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님은 제게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실제로 제 앞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가시면류관의 독성분 때문에 통통 부어있었습니다. 어찌나 로마군인들이 가시면류관을 힘있게 눌러 씌웠던지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의 머리깃질을 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 온통 피 투성이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가까이 다가섰는데 그만 내 이마가 가시면류관에 찢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찢림과 아픔이 고스란히 내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 눈을 뜨셨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흘러 내려서 빨개진 것이 아니라 눈의 실핏줄이 터져서 그렇게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 보신 예수님의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그 눈을 감기게 하기는 예수님의 의지가 너무나 강렬하고 크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내게 무슨 할 말씀이라도 있는 것처럼 감으시지 않고 또렷이 나를 쳐다 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는 십자가를 짊어 질 것입니다. 나를 위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리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문제로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 문제로도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 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것도 압니다.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라

영의 기도를 하기 위해선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지성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 없는 지성소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내게 음성을 처음 들려 주신 다음 날부터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아, 언약궤로 들어가거라”

성령님의 말씀은 내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언약궤가 무엇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성령님은 나의 마음의 혼란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성막에다 언약궤를 만들었고 그 언약궤를 보관했습니다. 그 크기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어떻게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말씀은 육적인 해석이 필요치 않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들어야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
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방주를 만들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
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언약궤 안에는 세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의 중요함은 이미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두 돌판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 금항아리입니다. 이것의 의미하는 것이 언약과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세가지 성물의 의미하는 바가 천국을 대표하는 내용이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가 놓여있고 마치 지상의 성전에 핵심으로

자리하듯이 천국에서도 그리 하다면 우리가 날마다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담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이 되겠지만 천국에선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서서”

언약궤기도를 통한 영광체험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실제로 나는 언약궤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 안을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체험은 아주 빠르고 급속히 내게 임하였습니다. 사실 지성소는 언약궤 때문에 폼 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지성소는 빈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지 지성소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제는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언약궤로 들어갑니다. 성령님께서 언약궤 안으로 들

어가라고 말을 할 때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는 신호임을 알아챈다.

성령님께서 내게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나는 단 한차례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나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언약궤로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예수님의 피를 몸에 뿌리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며,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몸소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 밑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피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 뿌림의 과정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게 밀려 옵니다. 영광의 구름은 언약궤 속을 꽉 채우기 시작하며 당신의 몸은 그 구름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으로 채워진 당신의 몸은 그 어떤 나쁜 영도 침범할 수 없게 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당신과 구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언약궤와 당신을 가득 채울 때 예수님의 빛이 하늘에서 당신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 빛은 속죄소의 보혈을 통과하게 될 것이며 당신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빛이 비취질 때 당신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에 질병이 있다면 그 빛을 질병 있

는 곳으로 비추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그 빛은 질병에 비취지게 될 것이며 당신은 치유 받게 될 것입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서 그 빛은 레이저광선처럼 강하고 단단한 빛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리 쏘는 그 시각에 성령의 불이 가스 불처럼 당신 가슴에서부터 일순간 확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당신 영혼과 육신의 더러운 생각과 죄들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빛과 성령의 불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하나이듯이 영광과 빛과 불은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영혼을 세 권능에 일치시키십시오. 그럴 때 당신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빛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똑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체험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빛을 쬌는 것이나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성령의 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령의 기름부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충만이라고도 말합니다.





2부

/

성막을 통한 유익들

1. 성막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게 됩니다.

짐승의 피

성막에서는 매일 수많은 짐승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반드시 피흘림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모두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소는 번제단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해 끌려온 짐승은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번제소에는 항상 짐승의 피로 흘러 넘쳤습니다.

번제소에서 죽은 짐승의 피는 성막뜰을 홍건히 적셨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 짐승이 흘린 피를 가져다가 대부분 번제단 밑에 부었습니다.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 드릴 때 셀 수도 없이 많을 정도의 짐승을 잡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임을 당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상 8:62] 이에 왕과 왕과 함께 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왕상 8:63]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이만 이천 이요 양이 십이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왕상 8:64] 그 날에 왕이 여호와와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와 전 앞 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왕상 8:65] 그 때에 솔로몬이 칠 일 칠 일 합 십사 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이때 죽임을 당한 짐승은 소가 22,000마리였고 양이 120,000마리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은 7일 + 7일 = 도합 14일 간 지속되었습니다. 14일 동안에 잡아 죽인 짐승이 모두 142,000 마리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 죽였으니 그 좁은 솔로몬 성전 마당 뜰이 온전했겠습니까? 아마도 성전 마당 뜰은 짐승의 피로

철철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이렇듯 짐승의 피가 성전에 가득해야만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에 흘린 짐승의 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가 흘러져야만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흘러져야만 인간의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가 흘러지는 이유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흘린 피는 곧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짐승에게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레 4:4]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짐승을 가져 온 사람이 직접 짐승에게 안수를 한 이유는 짐승처럼 자신 스스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죽

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짐승의 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몸소 피흘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
이니라"

예수님은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셨으며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속죄에 사용되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여 그 육체가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듯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성 밖에 끌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성막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든 짐승의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 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 9:12] 염소와 송
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
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는 속죄를 위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사용되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사용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엡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줍니다. 모세 때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유월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절절은 피를 바름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러

한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 사람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유월절에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릅니다. 유월절의 어린양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드려졌습니다. 곡식을 이용하여 제사를 드리는 소제의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짐승의 피가 흘러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주님의 보혈이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결코 번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항상 켜져 있듯이 짐승의 피는 항상 성막에 존재했습니다.

"[레 6:12]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지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곧 예배와 같습니다. 성막에서 매일 제사를 드려졌던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예배가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처럼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바쳐지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영적예배에 필요한 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이처럼 우리의 예배에 존재합니다.

성막에서의 피의 흔적들

1) 성막 바깥에는 피흘려 죽은 짐승이 불태워졌습니다.

이는 7월 10일 속죄일 때 쓰여지는 짐승의 육체를 영문 밖에 불태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며 예루살렘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이니라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아버지께로 인도
하시게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피흘리심으로 인해 성막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 27: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
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
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 번제단 사면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생명
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 3: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 16:19]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3) 번제단 뿔에 짐승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견고해짐을 의미합니다.

"[레 8:15]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레 16:18]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취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4) 번제단 밑에 짐승의 피가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두 사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출 29:11]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출 29:12]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5) 분향단에 짐승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뜻합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런 분향단의 뿔들에 피가 발라진 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진 곳에서 드러지는 기도는 주님의 보혈이 전혀 뿌려지지 않는 장소에서 드러지는 기도와 매우 다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이러한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 줍니다. 주님의 보혈과 함께 기도하는 사

람은 보다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취할 수 있습니다.

6) 지성소 휘장 앞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 되는 것을 뜻합니다.

"[레 4: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습니다. 휘장을 통해서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휘장 앞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것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 속죄소 주변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레 16: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16:15] 또 백성을 위한 속

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일 때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주변에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주변에 피를 뿌리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속죄소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언약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입니다. 언약궤로 들어가야만 진정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와도 같습니다. 속죄소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정결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성막에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드러지는 모든 제사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깊이 체험하게 합니다.

"[히 9: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는 속죄일 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백성의 정결케 하기 위해 사용된 속죄제가 있었으니 그 제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했습니다.

"[민 19:2] 여호와와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 오게 하

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시체로 인해 부정해질 때 정결케 하기 위해 정결의식을 세우셨습니다. 정결 의식으로 치뤄지는 속죄에 사용된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것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아주 어린 암송아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성숙한 암송아지도 아닌 송아지였습니다. 또한 멍에를 메지 않아야 했습니다. 암송아지 중의 붉은 암송아지는 매우 희귀한 송아지라서 좀처럼 얻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경우엔 멍에를 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의식으로 사용되는 붉은 송아지는 심지어 흰색털이나 검은털이 있을 경우에도 속죄제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은 온전하고 흠없고 멍에 씌우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민 19:9]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들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의 모든 것을 태우게 하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심지어 똥까지도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백향목과 우슬초를 함께 집어 넣게 하셨습니다.

"[민 19:5]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민 19:6]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 모두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죽과 고기와 똥까지 온전히 태워져버린 붉은 암송아지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시되 가장 비극적이고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정욕이 남아 있음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비참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치 붉은 송아지가 죽기 전에 생똥을 싸듯이 어찌면 주님 또한 인간의 육신에게서 나타나는 부끄러운 모습마저 보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가 발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관유를 성막의 모든 성물과 기구에 바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유를 통해 성막이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출 30:25]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1) 관유 만드는 방법

관유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는 몰약과 육계, 창포와 계피에 감람유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의 구체적인 제조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 30:23]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이백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과 [출 30:24]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힌을 취하여 [출 30:25]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를 만드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향을 제조할 줄 아는 전문가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브살렐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브살렐이 성막 전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모든 일을 주관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전문가를 통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의 구체적인 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액체 몰약 500세겔(약 6kg)과 육계 250세겔(약 3kg)과 창포 250세겔(약 3kg)과 계비 500세겔(약 6kg)에다가 감람기름 한 힌(약 4리터)을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액체 몰약'은 감람과에 속하는 관목의 즙에서 채취한 고급 향품

을 말합니다. 주로 여성이 쓰는 향수나 화장품에 사용되었으며 마취할 때 사용하거나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육계'는 녹나무과의 상록 교목으로 월계수 나무와 매우 흡사합니다. 육계는 바로 이 나무에서 채취한 고급 향품입니다. 원래는 식용으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유 사용하는데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창포'는 인도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연못 같은 곳에서 자라는데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게도 즐겨 사용되었던 고급 향품입니다. 이 창포는 다른 향품과는 달리 향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도 단오날 같은 때에 창포에서 짠 울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계피'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람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짠 기름으로 감람유(올리브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식용이나 등불을 켜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2) 관유의 용도

하나님은 관유를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출 30:31]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출 30:32]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또한 이것을 타인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출 30:33]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이처럼 거룩한 관유를 함부로 만들거나 그것을 외부인들에게 사용할 경우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거룩한 관유는 성막물품에만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도 거룩한 관유가 발라 졌습니다.

"[출 30:30]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3) 관유의 효능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르도록 하셨던 것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성막물품에 거룩한 관유가 발라졌을 때 성막물품은 거룩해졌습니다.

"[출 30:26]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출 30:27]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출 30:28]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출 30:29]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거룩한 관유를 바를 때 사람 또한 거룩해졌습니다.

"[출 30:30]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처럼 거룩한 관유는 세상과 구별케 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유의 효능은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번제단에는 헌신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가져 온 사람이 직접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안수한 것은 그 사람의 죄의 전이 때문이었습니다.

"[레 4:4]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

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모든 제물은 번제단에서 태워지기 전에 먼저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번제소는 번제단 옆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듯 짐승이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이 죽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단에서 모든 육적인 것을 죽입니다.

"[레 4:10]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이처럼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성령세례를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직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물두멍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의 수족 씻음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물세례를 통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됨을 나타내야 합니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두멍에서는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출 30:19]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번제단이 앞에 있고 물두멍이 번제단 뒤에 놓여져 있는 이유는 성령세례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물세례가 뒷따른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누구든지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것을 시인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 앞에 물세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더욱 거룩하게 됩니다.

성막뜰이 회중들이 모인 장소라고 한다면 성소는 예배자가 있는 장소입니다. 성소에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경배자를 찾습니다.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경배자에게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은 예수님의 권

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한 거룩한 자들은 선포한 것마다 이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왕의 권세이며 왕의 선포입니다. 무엇이든지 선포하는대로 역사가 있습니다.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왕되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이뤄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예배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결코 신령과 진정어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당신이 간구한 것이 이뤄졌다고 믿으십시오. 거룩한 자에게는 반드시 선포한대로 역사가 따르는 법입니다. 믿음으로 이뤄진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욱 기록해지는 것입니다.

"[빌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

성막기도순서



3. 체계적이고 권세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통해 체계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성막 뜰:

성막 뜰은 육적인 기도 단계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죄의 회개가 있습니다. 성막 뜰은 회중들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성막 뜰에는 이방인과 여자, 어린아이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 성소:

성소는 혼적인 기도 단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3) 지성소:

지성소는 영적인 기도 단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막의 성물을 통해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성막문:

성막문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며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릴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이며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 번제단:

번제단에서 주님께 헌신을 서약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겠다고 서약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3) 물두멍:

물두멍에서는 날마다 지은 자범죄를 회개합니다. 이러한 회개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4) 진설병:

진설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요 다음은 가정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구하는 단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선포기도를 통해 드러지는 기도제목이

더욱 빨리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간구기도를 드리고 선포기도를 드린 후에는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5) 정금등대:

정금등대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6) 분향단:

분향단에서는 방언기도를 드립니다. 방언기도는 영으로 드러지는 기도입니다(고전 14:14).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리며 천국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천국 문이 열릴 때 우리의 영이 더욱 활성화되며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7) 지성소:

방언을 어느 정도 하다보면 영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과 깊이있는 교제가 이뤄집니다. 이는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님과 깊이 있는 동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간구하거나 세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기도

(1단계) 방언기도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옴
(방언은 천국을 여는 열쇠이다)

(2단계)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눔
(이때 음성과 환상이 열리게 된다)

(3단계) 속죄소 앞에서 보혈을 뿌린다
(보혈이 없이는 그릇을 통과할 수 없다)



(4단계)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5단계) 세가지 성물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
(세가지 성물은 천국의 모든 것이다)



(돌판)
언약(소망)을 상징



(싹난 지팡이)
믿음을 상징함



(만나 항아리)
사람을 상징함

4.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 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특별 대제사장인 모세만 매일 들어갈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조차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레 16: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오직 1년에 하루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죄일 때에 하루동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 9: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을 때에 누구든지 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의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고 말하였습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피흘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을 때에 새롭고도 산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롭고도 산 길을 통해 하나님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어찌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던지 모세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솔로몬 성전의 성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습니다. 어찌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였는지 제사장들이 도저히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왕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회막에 거하였는데 회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지성소 내에서도 언약궤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이 존재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약궤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는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곳입니다. 이는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만이 언약궤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 25:21]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

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에는 영광의 두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보혈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출 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지성소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들어가기엔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만일 언약궤가 충분히 컸더라면 아마도 모세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민 7:8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는 속죄소 앞에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가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민 12: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모세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모세만 가능한 일이었지만 예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도 산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도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상 3: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던 것처럼 날마다 언약궤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언약궤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전인 우리 몸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이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기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골방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기도는 예수께서 드리신 기도 방법입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아버지와 일대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으며 그렇게 하나님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막 1: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드리신 골방기도는 곧 언약궤기도입니다. 언약궤기도를 드릴 때 골방기도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일대일로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함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제자들과 함께 통성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골방기도를 행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골방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막 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행 10:38]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뻐하셨을 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베드로와 바울은 이러한 골방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받으셨듯이 저들도 골방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도에도 '비몽사몽'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바울의 기도에도 '비몽사몽'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엑스타시스>입니다. 이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비몽사몽' 또는 '무아지경'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입신(tranc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행 10:9]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육 시더라 [행 10:10]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행 10: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루트 이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행 22: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행 22:18]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우리가 언약궤에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이러한 입신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입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다 강력한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내 속의 좋지 못한 것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 영혼육의 강건함이 이뤄지게 됩니다.

천국의 성막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을 보고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으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모세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말은 모세의 성막이 천국의 성막을 그대로 본 따 지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고 명하셨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대로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출 25:40]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모세는 자신이 기록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모세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천국의 성막을 그대로 본을 따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천국의 성막에도 언약궤가 있음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막은 그 모습과 내용물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천국의 성막이 모세의 성막과 같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을 그대로 본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곳에 언급된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나오스>입니다. 이 <나오스>는 주로 '성전' 또는 '성소'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려 갈라졌던 구절에도 <나오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구약의 '성막'(미쉬칸)과 신약의 '장막'(스케네)은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요한이 본 하늘의 '장막'은 모세가 지은 '성막'의 원형이었습니다. 천국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 동일한 형태의 것입니다.

"[계 15: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땅의 성막은 아론의 반차에 의해 제사가 드려졌지만 천국의 성막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의해 제사가 드려집니다. 아론의 반차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예법은 짐승의 피를 통해 거룩해짐을 얻었지만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 드려지는 예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거룩해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 7: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은 친히 멜기세덱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히 6:19]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 6: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땅에서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혈통에 의한 제사장 직분을 물려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멜기세덱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3 장

/

성막의 구조

제 1 장 :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각 지파는 가족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파에 대한 개념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구분되어 살았지만 12지파 전체가 함께 모여 진을 구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기를 원하셨으며 성막을 통해 하나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모세시대 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구

축하며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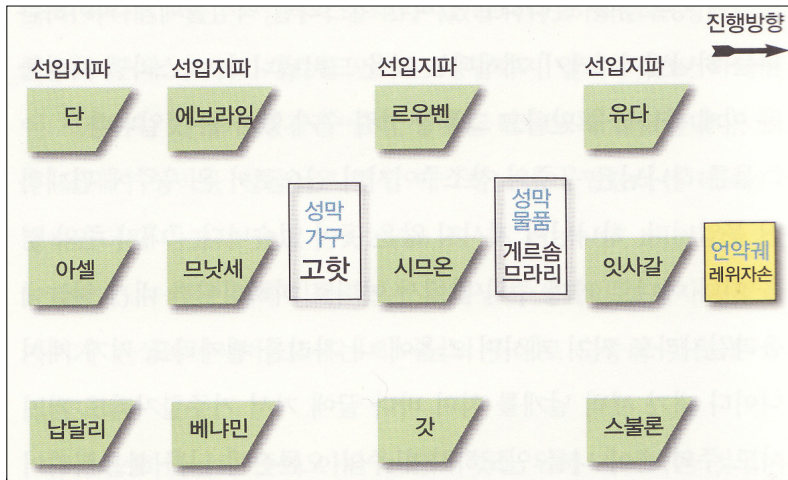
"[민 2:2]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
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구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쪽(민 2:3): 유다지파(선임), 잇사갈지파, 스블론지파
- 서쪽(민 2:18): 에브라임지파(선임), 므낫세지파, 베냐민지파
- 남쪽(민 2:10): 르우벤지파(선임), 시므온지파, 갓지파
- 북쪽(민 2:25): 단지파(선임),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진영 한 가운데에는 레위지파가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레위지파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세와 함께 별도로 구분되었습니다.

- 동쪽(민 3:38):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진을 쳤음.
- 서쪽(민 3:23): 고핫의 자손들이 진을 쳤음
- 남쪽(민 3:29): 고핫 자손들이 진을 쳤음
- 북쪽(민 3:35): 므라리 자손들이 진을 쳤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질서적으로 행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할 때에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4개의 진영으로 구분하시고 제1진영부터 순서대로 행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 제1진영: 유다지파(선임), 잇사갈지파, 스블론지파
- 제2진영: 르우벤지파(선임), 시므온지파, 갓지파
- 제3진영: 에브라임지파(선임), 므낫세지파, 베냐민지파
- 제4진영: 단지파(선임),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성막도 함께 운반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행에 있어서 성막의 운반은 매

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막은 매우 질서적으로 운반되어졌으며 레위지파가 이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 고탓자손: 언약궤, 진설병, 정금등대, 분향단, 번제단
- 므라리자손: 널판, 띠, 금고리, 기둥, 은반침, 말뚝, 줄 들
- 게르손자손: 성막의 양장들, 회막덮개, 줄 들
- 아론과 그의 자손들: 지성소의 성물을 거두어 고탓자손이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

레위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보다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이는 레위지파 자손들은 군대가 이르기 전에 먼저 성막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먼저 성막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진영을 구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성막 중심의 삶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 10:21] 고탓인은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특별히 고탓 자손 중의 선별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가장 먼저 전진하였습니다.

"[민 10:33]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 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 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쉼 곳을 찾았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물을 고핫 자손들에게 메도록 하였습니다.

"[민 4:15]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뭘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뭘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전진할 때에 무엇 하나 들고 가거나 메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을 반과 성막을 세우는 일을 총괄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담임목사가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설교 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며 심지어 친교준비까지 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을 수록 담임목사의 일은 더욱 많아집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담임목사의 일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클수록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담임목사를 세우실 때 총괄하고 지시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목사는 오직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므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성막기구를 운반할 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민 7:7]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넷을 주었고 [민 7:8]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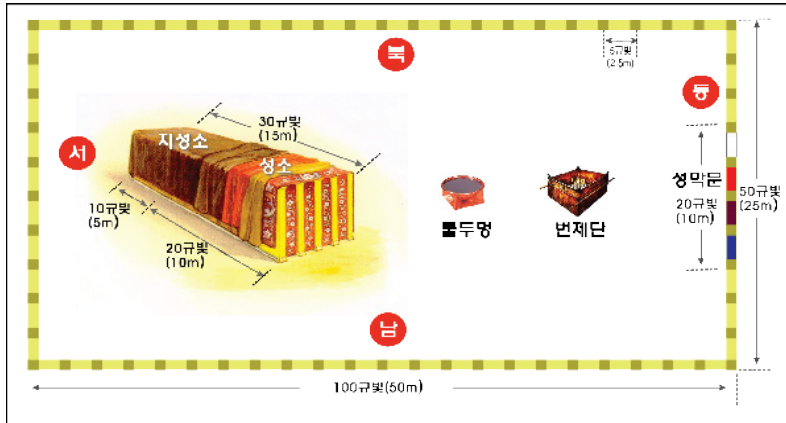
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
다말로 감독케 하였으나"

하지만 고탕 자손에게는 그 어떠한 도구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고탕 자손은 모든 성물을 직접 어깨에 메고서 운반했기 때문
입니다. 고탕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는 다른 므라리 자손이나 게르
손 자손의 일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성막의 성물
을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책임져야 했던 성물들은 언약궤
를 비롯하여 진설병, 정금등대,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이었습니다.

"[민 7:9] 고탕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 2 장 : 성막 전체의 규격

성막 울타리



1. 성막의 크기

성막은 길이 100규빗과 넓이 50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 바깥 둘레는 전체 60개의 기둥들에 세마포를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기둥은 각각 20개씩이며 동쪽과 서쪽은 10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규빗'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했던 길이 치수로써 일반 성인

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치수가 사람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정확히 몇 센치미터인지 계산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50cm라고 계산하면 보다 쉽게 치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성막의 북쪽과 남쪽의 길이가 100규빗이기 때문에 이는 50미터이며 동쪽과 서쪽의 길이가 50규빗이기 때문에 25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2. 성막 울타리의 의미

성막 울타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 바깥은 세상이지만 성막 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성막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게 유지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됩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성막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성막에 나올 때에 세상에 묻은 더러운 때를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막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성막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막 바깥에 거하는 자는 세상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에 휩쓸려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3. 성막의 세마포 휘장

"[출 27:9]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찌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백 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성막의 울타리는 세마포로 포장되었습니다. 세마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세쉬>는 '베옷' '아마포'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을 모두 세마포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가는 베로는 제사장의 속옷을 만들고 세마포로 제사장의 두건과 고의를

만들었습니다.

"[출 39:27]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베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출 39:28]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베실로 짜서 세마포 고의들을 만들고 [출 39:29] 가는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 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성막 전체를 세마포로 휘장을 치게 하신 것은 세마포가 천국의 옷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마포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의 옷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에서 입는 옷을 가리켜 '세마포 옷'이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세마포는 성스러운 천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세마포로 휘장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천국에 거하는 성도는 모두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계 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다 하더라"

세마포는 정성을 다해 만들어지는 옷감입니다. 이는 성도의 삶이 정결과 거룩함으로 정성을 다해 살아갈 때 비로소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다'

라고 언급된 것은 그만큼 옳은 행실을 할수록 더욱 귀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각 사람의 입은 세마포가 각기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입는 세마포는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의로운 행실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도 귀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단순히 행실만 가지고 귀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마땅히 믿음과 행실에서 으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귀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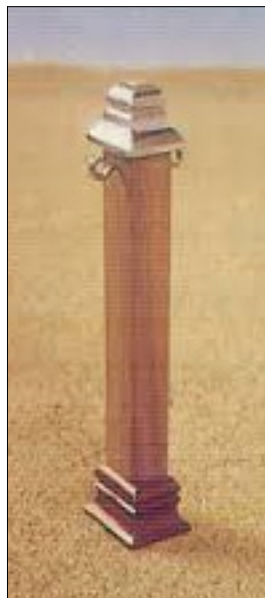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막의 기둥

1. 성막기둥세우기

성막의 기둥은 전체 60개입니다. 동쪽과 서쪽에 10개씩 세워졌으며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세워졌습니다.

성막의 기둥은 먼저 남쪽부터 세워졌습니다. 남쪽에 20개의 기둥이 세워지고 난 다음 북쪽에 20개의 기둥이 세워졌으며 그 다음에 서쪽의 10개의 기둥이 세워진 후에 마지막으로 동쪽의 10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출 27:9]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찌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백 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출 27:10]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찌며 [출 27:11] 그 북편에도 광이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찌며 [출 27:12]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오십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출 27:13] 동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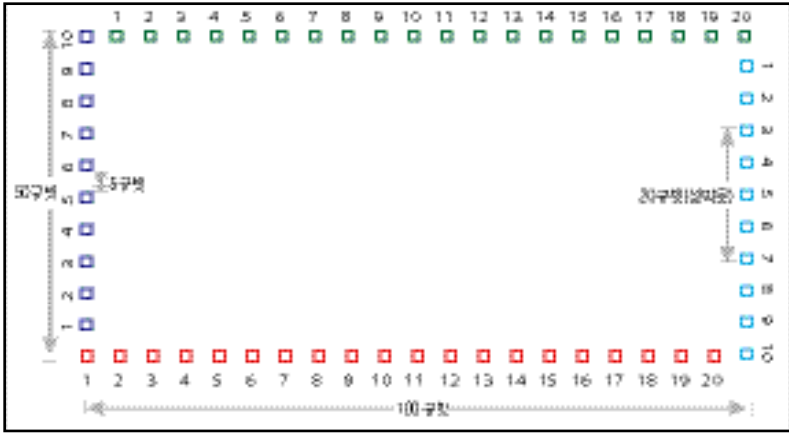
플 동편의 광도 오십 규빗이 될지며"

남쪽과 북쪽에 세워진 20개의 기둥들은 그 넓이가 100규빗이 되었고 서쪽과 동쪽에 세워진 10개의 기둥들은 그 넓이가 50규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이 되려면 총 21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과 기둥사이의 넓이가 5규빗이기 때문에 총 21개의 기둥이 있어야 전체 100규빗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쪽과 남쪽의 길이가 50규빗이 되려면 이 역시 11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막에 사용되는 기둥의 수를 60개로 한정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주의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60개의 기둥으로 100규빗과 50규빗의 사이즈가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물론 기둥의 두께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전체적인 성막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기둥과 성막 전체 길이를 고려했을 때 오른쪽의 그림처럼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남쪽에 20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 북쪽에 20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런 후에 서쪽 기둥을 세웁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쪽 기둥의 1번 기둥과 서쪽 기둥의 1번 기둥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쪽 기둥의 10번 기둥이 북쪽 기둥의 1번 기둥과 나란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서쪽 기둥은 전체 11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둥이 세워졌을 때 남쪽과 북쪽기둥은 각각 21개의 기둥이 될 것이고 서쪽과 동쪽의 기둥 역시 11개가



됩니다. 이렇게 세웠을 때 성막의 길이가 100규빗 x 50규빗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쪽기둥입니다. 동쪽 기둥에는 성막문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막문의 이쪽과 저쪽이 각각 3개의 기둥으로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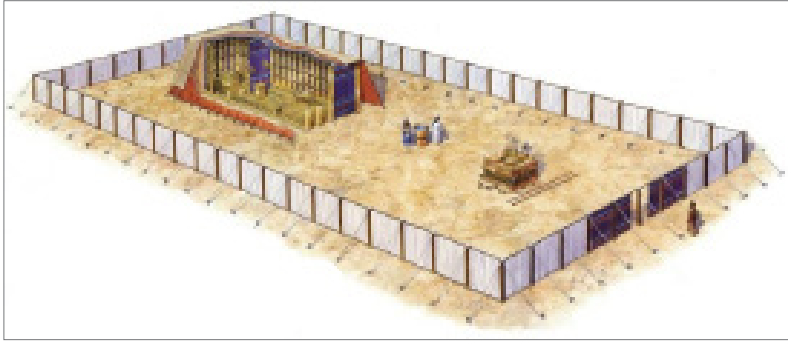
"[출 27:13]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오십 규빗이 될지며 [출 27:14]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십 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출 27:15]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이 역시 남쪽과 북쪽의 기둥들을 언급했던 것과 같은 식으로 언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남쪽과 북쪽의 기둥들이 20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기둥이 각각 20

개이고 서쪽과 동쪽의 기둥이 각각 10개씩인 것은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 기둥들이 그림처럼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막 전체 길이와 딱 들어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했을 때 동쪽의 성막문에 대한 이해도 딱 들어 맞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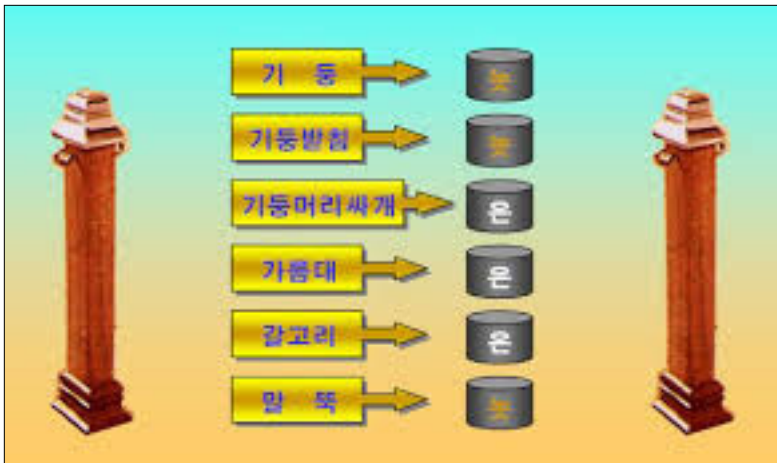
성경은 성막문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15규빗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길이가 15규빗이라는 말은 기둥이 4개라는 말입니다. 이를 숫자로 표현하면, 1번 기둥부터 4번 기둥까지가 15규빗이 됩니다(각 기둥과 기둥 사이의 폭이 5규빗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8번 기둥부터 11번 기둥까지가 15규빗이 됩니다(북쪽의 20번째 기둥을 편의상 동쪽기둥의 1번으로 계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성막문에 사용되는 기둥은 4번 기둥부터 8번 기둥입니다. 4,5,6,7,8 기둥이 성막 기둥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막문이 20규빗이 되어 성경의 언급대로 정확하게 그 수치가 들어맞게 됩니다.

성막 기둥에 대한 설명이 아주 정확하게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맞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다른 해석과 비교해 봤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계산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둥을 5규빗으로 하시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5규빗으로 정하신 것은 매사에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5규빗으로 삼았을 때 딱 들어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바로 이러한 성막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2. 성막기둥의 재질

성막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에 사용되는 나무는 모두 싹둑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싹둑나무는 조각나무로도 불립니다. 성막의 기둥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번제단과 진설병과 분향단과 언약궤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의 성물들의 대부분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각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주로 조각나무는 광야에서 자랍니다.

조각나무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조각나무가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거친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자랍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자랍니다. 조각목에 가시가 돋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시가 돋아 있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하지만 조각목은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며 견고성이 뛰어납니다. 조각목으로 성막의 성물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별로 쓸모없는 조각목이 성막의 뼈대와 성물의 재질로 사용된 것처럼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막 기둥 역시 낫으로 입혀졌습니다. 몇몇 성경버전에서는 아래 구절을 '낫으로 된 기둥'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민 21:9] 모세가 낫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게 물린 자마다 낫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낫기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기둥이 된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며 그 위에 입혀진 낫과 낫받침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 3: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놋뿔을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모세시대 때 광야의 불뿔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쳐다 볼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기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둥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기둥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3. 성막기둥의 부속물

(1) 성막기둥의 놋받침



성막기둥의 밑은 놋받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 38:17]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기둥을 받치고 있는 놋받침을 보십시오. 놋받침은 기둥으로 하여금 땅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2) 기둥의 머리싸개



성막기둥의 머리싸개는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머리싸개는 가름대를 감싸고 있어서 가름대로 하여금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머리싸개는 주님과 같습니다. 머리싸개가 가름대로 하여금 항상 그 자리에 있도록 세워주는 주는 역할을 하듯이 주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머리싸개나 가름대, 갈고리가 은으로 만들어진 것은 순결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순결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오직 거룩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죄가 없으며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 기둥의 가름대

성막기둥의 가름대 역시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해주는 횡봉입니다. 이를 통해 기둥과 기둥이 함께 연결이 됩니다. 기둥과 기둥이 가름대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주님



을 통해 우리 모두
는 하나가 됩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
가 될 때 우리는 더
욱 튼튼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마귀

의 세력에 무너지고 넘어질 것이나 함께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능
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4) 기둥의 갈고리

성막기둥의 갈고리 역시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기둥에는
여러개의 갈고리가 달려 있는데 기둥의 윗자락의 갈고리는 성막기
둥을 말뚝과 연결해서 기둥을 튼튼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 전체
적으로 붙어있는 갈고리는
세마포 휘장을 기둥에 고정
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갈고리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우

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으며 살게 될 것
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더라도 영적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 기둥의 말뚝



성막기둥은 말뚝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성막에 쓰이는 모든 말뚝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뚝이 없다면 성막기둥은 바람에 흔들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말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새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출 38:20]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놋이더라"

(6) 기둥의 줄

성막기둥은 가죽줄에 의해 말뚝에 고정되었습니다.

"[민 4:25] 곧 그들은 성막의 양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메이며 [민 4:26]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막기둥이나 말뚝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성령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막문

1.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에는 오직 문이 하나 뿐입니다. 성막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 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새롭고도 산 길이 되셨습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친히 자신의 육신을 둘로 찢으심으로 새롭고도 산 길을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새롭고도 산 길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께서 만드신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
느니라"

2. 성막문의 4가지 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문은 흰 베실과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실로 짠 세마포 양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 27:16]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
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짠 이십 규빗의 장이 있게 할찌
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청색은 생명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게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 6:58]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명하신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 되었으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승리하셨으니 우리 또한 가난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의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 11: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3. 성막문은 아주 큰 문입니다.



성막문의 길이는 20규빗입니다. 오늘날의 길이로 계산하면 10미터입니다. 동편의 길이가 50규빗이기 때문에 성막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길이의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막문은 통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성막문이 매우 크게 만들어진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매우 넓고도 쉬운 길입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아버지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4. 성막문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막문은 오직 동쪽에만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쉽게 성막

에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에 문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동쪽에만 문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빛되신 주님을 만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 누구도 예외없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지성소에 드나들었던 모세라 할지라도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막문 → 번제단 → 물두멍 → 진설병 → 정금등대 → 분향단 을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순서를 밟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 성막문은 문턱이 없습니다.

성막은 맨 땅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문턱이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막에는 남녀노소 할 것없이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자와 어린아이도 들어갔으며 이방인과 노예까지도 성막에 들

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 12:12]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의도 그리할찌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원하는 사람을 가로막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특정한 나라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 막고 있습니다. 소위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치 종교가 백성을 망치게 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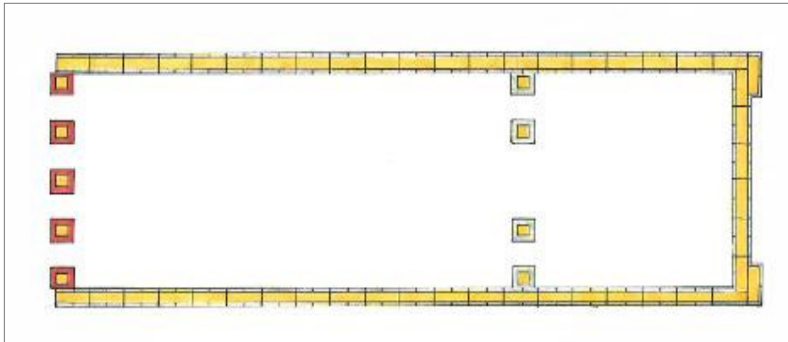
어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 막습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이 있으며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제 2 장 : 회막 구조

회막을 세우는 순서

1. 받침들을 놓습니다

"[출 40: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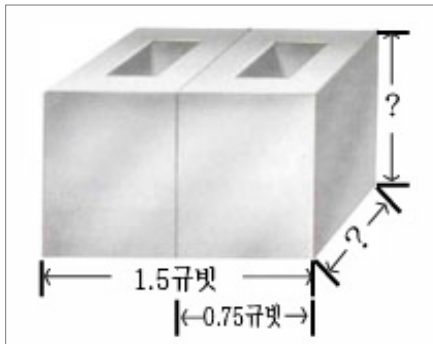


회막을 세우기 위해 먼저 받침들을 놓았습니다. 회막의 성소 입구의 기둥은 모두 다섯 기둥이 세워졌는데 이를 위해 5개의 받침을 먼저 땅에 놓은 것입니다. 성소 입구를 위해 사용된 5개의 받침에는 놋받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 26:37]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찌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세우기 위해 사용된 4개의 받침에는 은받침이 사용되었습니다.

"[출 26:32]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드리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돌지며"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의 널판이 세워졌는데 이 널판을 위해 40개의 받침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널판에 두 개의 받침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회막 둘레로 세워진 널판을 위한 받침에는 모두

은받침이 사용되었습니다.

널판의 넓이가 1.5 규빗이기 때문에 은받침의 넓이도 1.5규빗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널판과 은받침의 넓이가 똑 같아질 것입니다. 한 널판에 두개의 은받침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 은받침의 넓이는 0.75 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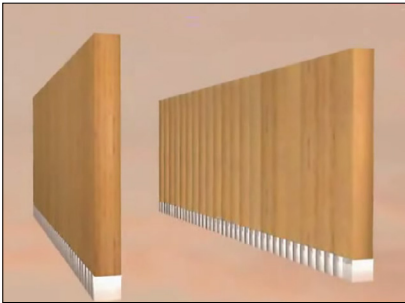
"[출 26:16]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 반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널판의 길이가 10규빗이기 때문에 받침과 함께 전체 길이가 10규빗이 되기 위해서는 받침 길이만큼 제한 길이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은받침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나 확실한 것은 널판과 받침이 서로 연하여서 전체 10규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널판을 세웁니다

"[출 40:18] 그 널판들을 세우고"

(1) 회막의 널판



회막에 세워진 널판의 수는 모두 48개입니다.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가 세워졌고 서쪽으로 8개가 세워졌습니다.

"[출 26:18]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물을 만들고 [출 26:19]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마흔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

하여 두 받침을 만들찌라 [출 26:20]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스물로 하고 [출 26:21] 은받침 마
흔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
침으로 하며"

또한 성막의 입구 반대쪽인 서쪽에는 8개의 널판이 세워졌습니
다. 원래 필요한 널판은 6개이지만 양쪽 두 모퉁이를 더욱 튼튼하
게 세우기 위해 각각 한 널판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
쪽에는 전체 8개의 널판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양쪽 두 모퉁이
의 널판은 두겹 두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회막을 더욱 튼튼하
게 고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8개의 널판을 위해 전체
16개의 받침이 놓여졌습니다. 물론 이 받침도 은받침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출 26:22]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을 만들고 [출 26:23]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출 26:24]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출 26:25]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그런데 서쪽의 널판은 8개가 세워졌습니다(6개의 널판에
맨 마지막 널판이 각각 두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널판의
넓이가 1.5규빗이기때문에 6개 널판의 넓이는 총 9규빗이 될



것입니다.

지성소가 길이 x 넓이 x 높이가 10구빗이기 때문에 서쪽 길이는 10구빗이 되어야 합니다. 널판 6개의 총 길이가 9구빗이기 때문에 1구빗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난 1구빗은 양쪽 남편과 북편의 널판 두께로 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계산한다면 널판 두께는 0.5구빗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널판의 두께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받침의 두께가 알려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위의 방법처럼 계산할 때 다소 알려지지 않은 널판의 두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성소의 크기가 장,광,고 모두 10구빗으로 보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장,광,고 모두 20구빗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왕상 6:19-20).

"[왕상 6:19]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왕상 6:20] 그 내소의 속이 장이 이십 구빗이요 광이 이십 구빗이요 고가 이십 구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또한 지성소가 장,광,고 모두 10규빗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새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로 장,광,고가 모두 12,000스타디온(한 스타디온은 대략 185-200미터로 대략 24,000km²)이기 때문입니다(계 21:16). 성막의 지성소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거룩한성은 영적 지성소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계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장
과 광과 고가 같더라"

모든 널판은 금으로 썼습니다. 성막 기둥이 늦으로 감싸진 것에 비해 회막은 금으로 싸진 것입니다. 이는 회막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회막의 성소 안에 있는 정금등대의 불빛을 통해 비취지는 성소 안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출 26:29]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2) 널판의 윗고리

모든 널판은 윗고리를 통해 봉해졌습니다. 윗고리가 어떻게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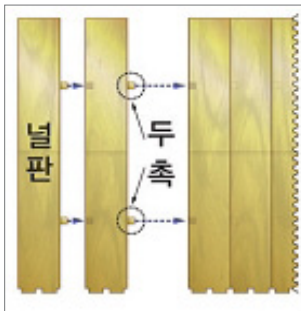


어졌으며 그 크기가 어떠한지는 언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윗고리는 회막의 널

판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남쪽의 널판과 북쪽의 널판은 서쪽의 널판 양 모퉁이에 설치된 윗고리를 통해 서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출 26:22]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출 26:23]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출 26:24]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3) 널판의 축



모든 널판은 '축'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각 널판마다 두 개의 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축을 통해 모든 널판이 튼튼하게 고정될 수 있었습니다.

"[출 26:16]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 반으로 하고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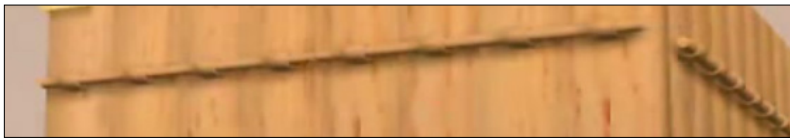


26:17] 각 판에 두 측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또한 각 널판의 아래쪽은 은받침대와 연하여
지도록 축이 만들어졌습니다. 은받침대에는 널
판의 축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 만들어졌으며
널판에 있는 축을 통해 은받침대와 연결이 되었
습니다.

"[출 26:19]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마흔
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
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
침을 만들찌라"

(4) 띠로 널판을 연결시켰습니다.



회막에 세워진 널판에는 띠가 띠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띠를
조각목으로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남쪽 널판을 위해 5개의 띠를 만
들고 북쪽 널판을 위해 5개, 그리고 서쪽 널판을 위해 5개의 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출 26:26]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
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출 26:27]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
요"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모든 띠는 금으로 짜게 했습니다.

"[출 26:28]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출 26:29] 그 널판들을 금으로 짜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짜
라"

중간 띠를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했다는 말을 통해 중간 띠를
제외한 다른 4개의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의 띠는 2개씩 나눠서 널판에 부착되
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 띠는 남쪽널판과 서쪽널판과 북쪽널판 세 면을 연결해서 하
나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3. 기둥을 세웁니다.

"[출 40:18] 그 기둥들을 세우고"

(1) 성소 입구의 기둥



회막에는 모두 9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회막의 성소 입구에는 5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모두 금으로 썼습니다. 기둥에는 갈고리가 있었으며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갈고리는 성소 입구의 휘장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기둥을 바칠 받침이

5개 준비되었으며 모두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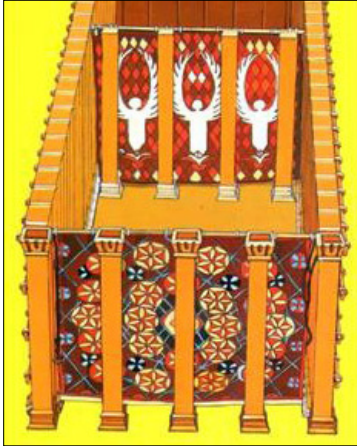
"[출 26:37]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찌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성소 입구의 기둥에는 기둥머리와 가름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기둥머리는 각 기둥 위에 놓여졌으며 가름대는 5개 기둥을 연결했습니다.

"[출 36:38] 문장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썼으며 그 다섯 받침은

놓이었더라"

(2) 지성소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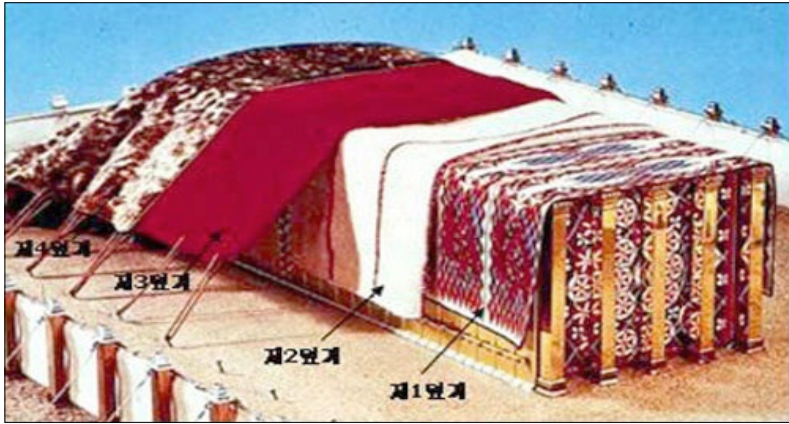
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성소 앞에는 4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 기둥들도 성소 입구의 기둥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썼습니다. 지성소 기둥에도 성소 기둥과 같이 갈고리가 있었으며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갈고리는 지성소 휘장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4개의 기둥 역시 받침대에 의해 바쳐졌으며 성소 기둥과는 달리 은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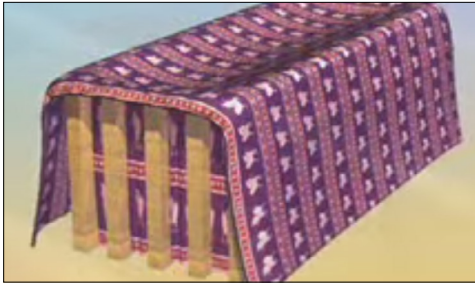
"[출 26:32]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드리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돌지며"

4. 덮개를 씌웁니다.

"[출 40:19]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1) 내부양장



하나님은 회막을 4개의 덮개로 덮도록 했습니다. 회막을 덮는 첫번째 덮개는 세마포 양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양장은 열 폭의 휘장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폭은 길이 28규빗과 넓이 4규빗의 양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 26:1]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열 폭을 가늘게 켜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 놓아 만들지니 [출 26:2] 매 폭의 장은 이십팔 규빗, 광은 사 규



빋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갈게하고"

5개 휘장을 서로 연결하며 또 다른 5개의 휘장도 서로 연결했습니다.

다. 각 휘장마다 끝쪽에 청색실로 50개의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50개의 고리와 고리를 금 갈고리로 연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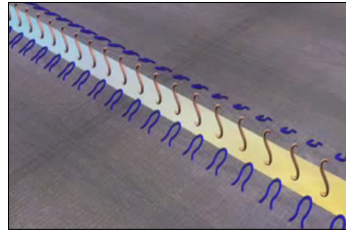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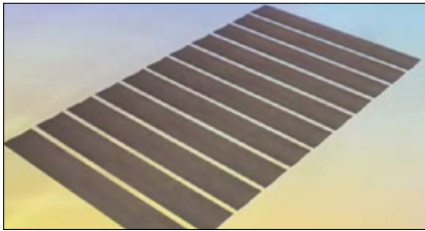
"[출 26:3] 그 양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하고 [출 26:4] 그 양장의 연락할 말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출 26:5] 양장 말폭 가에 고 오십을 달며 다른 양장 말폭 가에도 고 오십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출 26:6] 금 갈고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양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2) 외부양장

"[출 26:7]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출 26:8] 각



쪽의 장은 삼십 규빗, 광은 사 규빗으로 열한 쪽의 장단을 같게 하고 [출 26:9] 그 양장 다섯 쪽을 서로 연하며 또 여섯 쪽을 서로 연하고 그 여섯째 쪽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출 26:10] 양장을 연락할 말뚝 가에 고 오십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뚝 가에도 고 오십을 달고 [출 26:11] 낫 갈고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출 26:12] 그 막 곧 양장의 나머지 그 반쪽은 성막 뒤에 드리우고 [출 26:13] 막 곧 양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우고"



두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양장입니다. 이 휘장은 11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쪽의 길이는 30규빗과 넓이 4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휘장 5폭(4규빗x5폭=20규빗)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다른 쪽의 휘장 6폭(4규빗x6폭=24규빗)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 여섯 폭 휘장은 성소 전면에 접어 드렸으며 나머지 다섯 폭 휘장은 성소 뒷면으로 가게 했습니다.

다섯 폭짜리 휘장과 여섯 폭짜리 휘장은 50개의 고리를 만들고

50개의 낫 갈고리로 연결 시켜 한 휘장으로 만들었습니다(내부양장에는 금 갈고리로 사용되었는데 외부양장은 낫 갈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염소털로 짠 두번째 양장의 넓이는 44규빗이기 때문에 회막을 덮을 때 4규빗이 남게 됩니다(회막의 높이가 10규빗이고 길이가 30규빗으로 전체 40규빗입니다). 이렇게 남은 4규빗 중에서 절반(2규빗)은 앞쪽으로 내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회막 뒤쪽으로 내드리었습니다. 앞쪽으로 내드린 2규빗 중 1규빗은 접었습니다. 만일 성소입구의 기둥 두께가 1규빗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성소입구 기둥 맨 앞까지 드러지는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첫번째 세마포양장으로 만든 덮개와 두번째 염소털로 만든 덮개의 옆모양의 차이는 2규빗으로 양쪽으로 각각 1규빗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두번째 염소털양장덮개는 길이 30규빗으로서 회막의 사이즈와 똑 같습니다(회막의 높이가 1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입니다). 첫번째 세마포양장 덮개는 염소털양장 덮개에 비해 1규빗씩 짧도록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털의 양은 대략 200g입니다. 대략적으로 코트 한 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염소는 20마리~30마리 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염소털양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염소는 대략 2천마리~3천마리 정도가 필요합니다.

(3) 회막 덮개

이렇게 회막의 두 양장이 덮여지고 나면 그 위에 붉게 물 들인 수

양 가죽으로 넓다랗게 펼쳐서 회막을 덮었습니다. 불게 물 들인 수양 가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덮혀질 때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출 26:14]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지니라"

(4) 옷덮개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해달 가죽은 물이 새지 않는 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해달 가죽으로 인해 비가 와도 빗물이 회막 안으로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회막의 영적 의미

1. 회막은 성도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성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쉬칸>입니다. 이 <미쉬칸>이라는 단어는 '거주하다'란 뜻의 <샤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출 26:1]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 놓아 만들 지니"

이곳에 언급된 '성막'은 '회막'을 의미합니다. 회막은 성막 안에 세워진 것으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회막은 다른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성막과 회막을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한 이유는 회막이 곧 성막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미쉬칸〉은 다소 성막 전체를 가리키지만 회막을 의미하는 단어는 〈모에드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tent of meet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성도들의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막에서 모여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비록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성전들이 함께 모여 교회라는 큰 성전에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막에서 모였습니다. 저들의 삶은 성막 중심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성전에 모였습니다.

"[행 2: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온 성도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저들이 성전에 함께 모이는 이유는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일 때 뜻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어떻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는 '집'은 헬라어 <오이코스>로서 이곳에서는 복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번역본을 보면 'houses' 또는 'house to hous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족이 함께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정교회나 구역모임을 말합니다.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교회(구역모임, 셀모임, 목장모임)를 드릴 때 온 백

성이 초대교회를 칭송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가정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친교를 나눴던 것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가정교회에 나와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써 병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입을 통해 가정과 가정으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온 백성들이 초대교회를 칭송케 되었던 것입니다.

2. 회막은 오직 성도들만이 거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이방인이나 심지어 노예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행사나 제사의식은 성막에서 이뤄졌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귀한 자와 천한 자 모두에게 성막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과 노예까지도 성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회막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막들은 회중들이 거하는 곳이라면 회막은 성도가 거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지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을 가리킵니다.

3. 하나님은 회막에서 참경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막의 회막은 바로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거하는 곳입니다.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회막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성막뿔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회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회중의 자리를 앉습니다. 그러다가 성도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회중으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회중은 번제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을 서약합니다. 또한 물두멍에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거나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을 가리켜 '회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회막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과 '정금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으며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성막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보다 깊은 신앙심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필요로 합니다. 성소를 통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으며 성령님과 보다 깊은 동행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보다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진설병'은 떡되신 하나님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금등대'는 빛되신 주님께 인도하는 성령하나님과 동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보다 차원 높은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회중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며 상당히 영적인 성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는 보다 준비된 성숙한 성도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며 더군다나 일년에 하루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어서 성소보다 매우 깊고 의미가 더한 영적인 장소입니다.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듯이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참경배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지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개시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의 육신이 둘로 찢개짐을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신이 둘로 찢개짐을 당하시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을 열러 주신 것입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5. 회막은 4개의 덮개로 덮혀졌습니다.

회막의 지붕은 덮개를 통해 막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4개의 덮개로 덮도록 명하셨습니다. 첫번째 덮개는 세마포 양장으로 덮개를 만들었으며 두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양장으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세번째 덮개는 붉게 물든 수양 가죽으로 덮개를 삼았고 네번째 덮개는 해달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출 26:1-14).

회막의 4가지 덮개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이 주님을 상징하고 있지만 회막의 4가지 덮개는 더욱 예수

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양장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 베실로 짜졌습니다. 청색은 생명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흰 베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염소털 양장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 때에 '아사셀'로 선택된 염소를 광야로 내어 버렸는데 이는 백성의 죄를 떠맡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 16:10]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세번째 수양가죽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은 출애굽 때에 죽임을 당한 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다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졌습니다. 이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을 얻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뿌리고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가정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가정의 가구나 방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악한 세력이 조금도 얼씬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덮여졌던 해달가죽 역시 주님을 상징합니다. 해달가죽은 매우 질긴 가죽입니다. 해달가죽은 방수 효과가 있어서 전혀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달가죽의 효과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해달가죽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해달가죽은 신을 만드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사람들은 해달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소가죽이 훨씬 좋은 재질이지만 소를 숭배했기 때문에 소가죽 대신에 해달가죽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해달(manatee)의 이름이 성경에는 '바다 소(sea cow)'라고 언급되었듯이 소가죽 대신에 해달가죽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해달가죽이 소가죽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해달가죽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여행은 좋지 못한 바닷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튼튼한 해달가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해달가죽을 사용한 이유는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자연스레 애굽의 소숭배 사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동안 산에 올라가 있을 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해달 가죽을 하나님께 내 놓았습니다. 해달 가죽이 없으면 가족들의 신을 만들 수 없을텐데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들이 해달 가죽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무려 40년 동안이나 저들의 신이 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신을 40년 동안 해이지 않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 29:5]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 회막에는 오직 정금등대의 빛만 있었습니다.

회막에는 네 개의 덮개로 덮여졌기 때문에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회막에는 창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도 빛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혹자는 회막의 입구로 만들어진 휘장을 열면 충분히 빛이 들어와 얼마든지 제사장들이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회막의 휘장은 사람 마음대로 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 뜰에 거하는 사람들이 회막 안의 성물을 보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회막은 거룩한 곳이며 회중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회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후에 들어가야만 했던 거룩한 회막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막에는 오직 정금등대의 불빛 밖에는 그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금등대의 빛은 1년 365일 꺼지지 않았습니니다. 혹자는 저녁에 잘 때는 꺼냈다가 아침에 정금등대의 불을 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금등대는 빛되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한 시도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1년 365일 꺼지지 않는 정금등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레 24: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찢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지며 [레 24:3]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오직 제사장들은 정금등대의 빛을 통해서만 의식을 집행하였습니다. 회막에는 오직 정금등대의 빛외에는 아무런 빛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온전히 정금등대의 빛을 의지하면서 의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빛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성도는 빛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 8: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7. 성소의 3가지 성물을 통해 온전한 성도가 되어갑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소의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왼편에는 '정금등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물은 각각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진설병은 일용할 양식이 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에서 우리는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구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보다 속히 기도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정금등대는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며 정성껏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간구하는 단순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일대일의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3 장 : 성소의 성물

번제단

1.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 27:1]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 규빗, 광이 오 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하며 고는 삼 규빗으로 하고"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은 길이가 다섯 규빗(2.5미터)이고 넓이가 다섯 규빗(2.5미터)이며 높이는 삼 규빗

(1.5미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조각목은 사해 주변이나 시내 반도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러한 조각목은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수는 이미 70억을 넘었습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수많은 인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인구는 50억 가까이 됩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수가 50억이나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저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조각목에는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가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인간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늘 불평불만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가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가하며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조각목은 매우 단단합니다. 이는 세상 환난과 고난을 많이 받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딱딱히 굳어져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각목은 삐쩍 말라 있습니다. 이것은 바쁜 생활로 심신이 피곤하고 기쁨과 만족이 없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렇듯 바쁜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끼는 성도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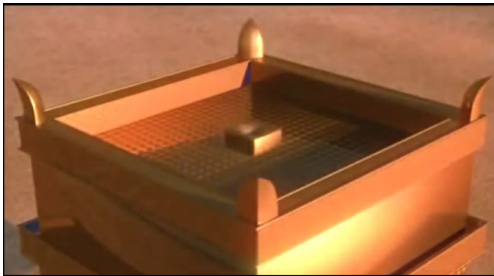
배 드리기 보다는 그저 편하게 집에서 쉬거나 세상에 나가 유흥을 즐기려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상처가 많습니다. 조각목에 있는 가지 때문에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려 서로 다른 가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난한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휩싸이다 보면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롬 3: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 번제단은 모두 네개의 뿔이 있습니다.



"[출 27:2]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합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싸지며"

번제단에 만들어진 뿔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

다. 주님의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흘리신 피의 공로는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를 억압했던 모든 원죄를 깨끗이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은 그 사람을 원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번제단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피는 번제단의 뿔에 발라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번제단의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도니야가 솔로몬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 안의 번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왕상 1:50]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3. 번제단의 조각목은 낫으로 싸졌습니다.

"[출 27:2]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 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싸지며"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이 불에 타지 않았던 것은 놋으로 감싸졌기 때문입니다. 조각목을 감쌌던 놋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놋으로 감싸져 있지 않으면 조각목은 불에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놋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각목을 감싼 놋은 모세가 치켜들었던 놋뱀을 상징합니다. 이 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임을 당하였을 때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죽임을 면하였습니다.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모세의 놋뱀은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모세의 놋뱀처럼 들려져야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치켜 들려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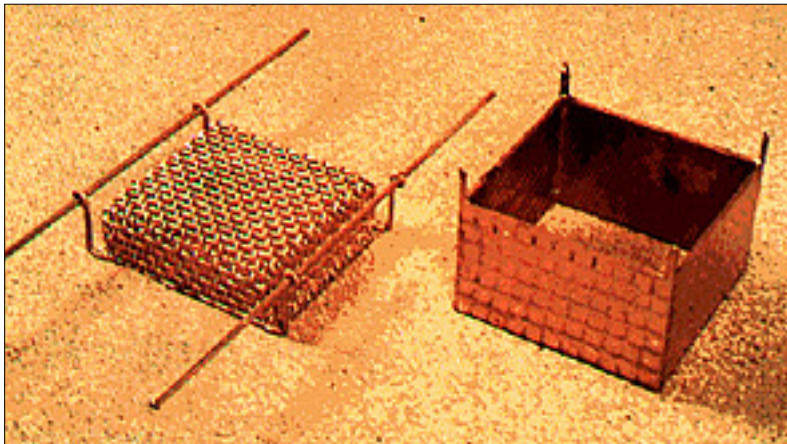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3: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치켜든 장대의 낫뱀을 바라볼 때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십자가에 메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4. 번제단은 낫그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 27:4] 단을 위하여 낫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낫고리 넷을 만들고 [출 27:5]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번제단에는 낚으로 된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그물은 번제단의 중간지점에 설치했습니다. 번제단 높이가 3규빗(1.5미터)이니 까 1.5규빗(0.75미터)정도쯤에 그물이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번제로 바쳐지는 짐승은 바로 이 그물 위에 놓였고 이곳에서 불로 태워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짐승이 불에 태워져 죽게 되면 남는 것은 재 뿐입니다. 그물은 그러한 재를 걸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제물은 그물 위에 얹혀지듯이 모든 믿는 사람은 그물 위에 얹혀져야 합니다. 그물 위에 얹혀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할 때 그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그물로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4: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그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번제단의 그물에 얹혀질 때에 비로소 내게도 그물이 생겨지는 법입니다. 나를 먼저 그물에 얹히십시오. 그리고는 그렇게 드러지는 진정한 헌신을 통해 얻어진 그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5. 번제단 네 모퉁이 기둥에 고리가 있습니다.

"[출 27:4] 단을 위하여 낫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낫고리 넷을 만들고 [출 27:5]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네 모퉁이 기둥에 낫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낫고리는 번제단을 옮길 때 사용할 수 있는 채를 연결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낫고리가 없으면 번제단을 이동하기란 매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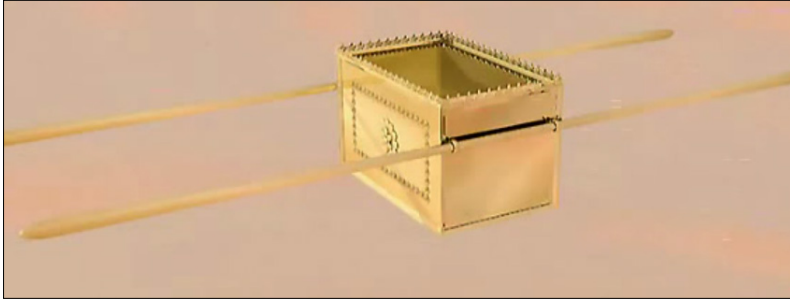
이처럼 낫고리는 믿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번제단과 운반하는 채를 연결하는 고리가 낫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물을 통해 전도되어져 교회에 온 사람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땅히 성도된 우리는 전도하여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하여 저들로 하여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엡 4: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6. 번제단에는 채를 통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출 27:6]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낫으로 쌀지며 [출 27:7]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메게 할지며"



번제단에는 네 개의 고리가 모퉁이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낫고리에 두 개의 채가 연결되었습니다. 하나의 채는 두 개의 낫고리에 연결되어 제단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가 없으면 번제단을 손으로 받쳐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받쳐 들 때에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

람은 주변에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돕는 사람이 없으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그 열의가 식어지고 힘이 빠져서 이내 낙담하거나 더 이상 헌신하지 않게 됩니다.

금식하는 사람을 위해 누군가 함께 해 주거나 몸보신을 위한 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수고하는 사역자를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도 돕는 일입니다. 이렇듯 돕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 성장케 되는 것입니다.

7. 번제단에는 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출 27:3]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번제단에는 재를 담는 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번제단의 그물 위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의 재를 담기 위함입니다. 그물 위에서 태워진 짐승의 재는 그물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은 속이 비어지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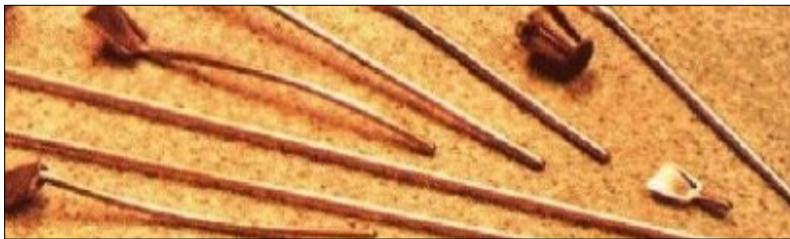
"[출 27:8]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번제단은 단순히 정사면체의 통 안에 낫으로 된 그물이 걸쳐지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물 위의 짐승의 재는 고스란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재는 부삽으로 긁어 통에 담아 버렸습니다.

만일 재를 담는 통이 없다면 번제단은 지저분해졌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재를 담는 통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지저분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는 성도는 재를 담는 통과 같은 성도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성도가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8. 번제단에는 부삽이 있습니다.

"[출 27:3]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읊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낫으로 만드지며"



떨어진 짐승의 재를 긁어 모으는데 부삽이 필요합니다. 만일 부

삽이 없으면 재를 긁어 모이기 힘들 것입니다.

재는 교회 부흥에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번제단에 재가 많이 쌓이게 되면 불길이 강하게 타오르지 못합니다. 교회에 재가 많으면 오히려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교회에는 부삽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9. 번제단에는 고기 대야가 있습니다.

"[출 27:3]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읊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 지며"



번제단에는 고기를 담는 대야가 있었습니다. 제물이 되는 짐승은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서 각이 떠졌습니다. 이렇게 각이 떠진 짐승의 사체를 번제단까지 운반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담는 대야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사체를 번제단까지 운반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원하는 성도를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성도에게 헌신하는 방법을 소개하지 않으면 헌신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 안내자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안내자는 일반 성도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경공부반이나 다른 훈련반에 인도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영적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안내자의 몫입니다.

10. 번제단에는 고기 갈고리가 있습니다.

"[출 27:3]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번제소에서 각이 떠진 짐승의 사체는 대야에 담겨져 번제단으로 옮겨졌습니다. 각이 떠진 짐승의 사체는 손으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도 상당했겠지만 피물은 사체여서 표피가 미끄러워 손으로 잡기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고기 갈고리입니다. 고기 갈고리를 통해 손쉽게 각이 떠진 사체를 번제단 위에 내려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는 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기 갈고리는 이처럼

효과적으로 헌신자를 세워주는 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신학교를 안내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장로가 되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장로가 되기 위한 과정을 안내해 줘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장로가 되기 위한 과정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안내자입니다.

또한 안내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헌신자를 대할 때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헌신자에게 깊은 사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번제단에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출 27:3]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 지며"



번제단에는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 불은 번제단의 불을 태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1년 365일 꺼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의 불이 항상 지펴져 있어야 했지만 특별히 제물이 바쳐질 때에는 그에 따른 불이 추가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은 이렇게 번제단에 항상 피어 있는 불을 제물로 바쳐지는 각이 떠진 사체로 옮길 때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성령의 불은 또 다른 불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 한 사람의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전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로 가득차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가진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모든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2. 반드시 제물로 쓰일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행했습니다.

"[레 1:4]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에게는 반드시 안수가 행해졌습니다. 짐승을 데려온 주인이 직접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는 짐승이 죽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시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의 죄가 고스란히 짐승에게 전가되어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 당사자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13. 번제소에서 모든 짐승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물로 바쳐질 짐승은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번제소는 성막 뜰 안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제단 북쪽'에서 짐승을 잡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 1:11]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모든 짐승은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지 않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죽어야만 제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내

려 놓아야 합니다. 나를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가 죽는 것을 자랑했던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전 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 덜 죽어서 이리 저리 돌아 다닌다면 아마도 성막들은 매우 지저분해지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히 죽지 못하여서 우리의 혼과 육이 살아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14. 번제단에 쓰인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을 사용했습니다.

번제단에 쓰여진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은 하나

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불이었습니다.

"[레 9: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성령의 불은 성스러운 불입니다. 이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어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세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이 함부로 취급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세상의 불을 가지고서 분향하였을 때 불이 그들을 삼켜 죽고 말았습니다.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불은 우리 안에 지속합니다. 물론 성령의 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이 소멸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살전 5: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구절은 영어 NIV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고 번역되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도록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불은 항상 피워져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합니다. 각 가정도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합니다. 교회도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합니다. 1년 365일 항상 타올라야 합니다.

"[레 6:12]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지며 [레 6:13]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물두멍

1. 물두멍은 물세례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이 성령세례를 상징한다면 물두멍은 물세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번제단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서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도 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하며 나아가는 단계는 번제단에서 이뤄집니다. 이러한 번제단의 과정은 성령세례의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성령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요일 4: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

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
느니라"

이러한 성령세례는 물세례보다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세례가 성령세례보다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성령세례가 물세례보다 먼저되어야 합니다.

성령세례가 물세례보다 먼저인 것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두 사
람이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약속한 후에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물세례는 성도들 앞에
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의 사
랑을 확인하고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후에 비로
소 성도들 앞에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물두멍
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출 38:8] 그가 솥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솥
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로 만들었더라"

이 솥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죄를 씻게 하는 물두멍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인들의 거울은 다소 세상적인 냄새가 납니다. 여인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드러다 보는 것은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거울은 매우 필요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워지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생활필수품인 거울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써 물두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여인들의 이러한 헌신을 통해 물두명이 만들어졌듯이 물두명을 통해 모든 세상적인 욕구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인을 매우 하찮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인은 이방인이나 개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취급을 받은 여인들의 거울을 통해 거룩한 물두명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찮은 사람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못하고 별볼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두명의 재료가 되는 늦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3. 물두명에서의 정결의식

"[출 30:19]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명에서 수족을 씻되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출 30: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성막은 일반 땅과 똑 같았습니다. 성막 풀이나 회막이나 할 것없이 모두 맨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맨 땅에서 의식을 수행했던 제사장들은 모두 맨 발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모두 신을 신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제사장들이 이처럼 성막에서 신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노예와도 같은 신분을 지니겠다는 마음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 3:5]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막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신을 벗었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에서 볼 때 대제사장의 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신을 신었다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속옷과 겹옷 뿐만 아니라 심지어 머리에 매는 띠까지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 28:36]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출 28:37]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처럼 구체적인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유독 신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은 성막에 서의 신은 필요없는 것이었으며 제사장들은 모두 맨 발로 직무를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뜰은 번제소가 있었고 번제단 밑에 짐승의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매우 더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뜰에서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경우엔 그들의 손과 발이 매우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손과 발을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갈 경우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출 30:19]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

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출 30: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회막 역시 맨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 역시 깨끗한 곳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거나 피를 쏟지는 않았습니다. 지성소 휘장 앞에 짐승의 피를 약간 뿌리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는 성막의 뜰에 비하면 매우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차 있는 지성소 조차도 깨끗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곳 역시 짐승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일 년에 속죄일 하루만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성소에 비해 깨끗한 곳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깨끗해야 합니다. 육신의 더러움과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이 하여야만 거룩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물두명의 규격이 없는 이유는?

성경은 물두명의 규격이 어떠한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두명의 규격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회개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더 큰 물두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할 것이 적은 사람은 작은 물두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회개할 것도 다르며 회개하는 정도도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원죄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날마다 자범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진설병

1. 진설병 제작 방법

(1) 진설병은 성소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출 26:35]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진설병상은 정금등대와 마주하게 놓여져야만 했습니다. 진설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정금등대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소에 예수님과 성령님께 함께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참 경배자로 인도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거하시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거할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뵈게 됩니다. 성도는 성령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상과 정금등대와 함께 성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성물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이 지성소의 휘장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성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을 통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 진설병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 25:23]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이 규빗, 광이 일 규빗,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진설병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성물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성물을 보면 번제단, 분향단, 언약궤가 있습니다. 또한 성막의 기둥이나 회막의 기둥 역시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진설병의 크기는 길이가 2규빗(1미터), 넓이 1규빗(0.50미터),
높이 1.5규빗(0.75미터)로 만들어졌습니다.

(3) 주변에 순금으로 둘러 싸고 테를 만들었습니다.

"[출 25:24]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출
25:25]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
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만들어진 진설상은 모두 순금으로 썼습니다. 이는 언약궤를 순
금으로 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금 테를 두르게 했습니
다. 또한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
으로 테를 만들었습니다. 턱을 만든 이유는 물건이 쏟아지지 않도
록 막기 위함입니다. 손바닥 넓이만한 턱은 대략 8cm 정도입니다.
이것은 한 규빗의 6분의 1의 길이와도 같습니다.

(4) 금 고리 넷을 만들어 채로 들 수 있게 했습니다.

"[출 25:26]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출 25:27]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멜 채를 꿰 곳이며 [출 25:28]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네 개의 모퉁이에 금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 고리는 모두 턱 곁에 붙도록 했습니다. 이 네 개의 금 고리에 상을 멜 채를 연결하여 채를 통해 진설상을 메도록 했습니다. 이 채 또한 금으로 싸았습니다. 이는 언약궤의 채를 금으로 싸 것과 동일합니다.

(5) 진설병은 12개가 준비되었습니다.



진설병은 모두 12개가 올려졌습니다. 12개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입입니다. 이는 곧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날마다 바쳐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진설병은 누룩없는 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세상의 정욕이 들어있지 않는 정결과 거룩함으로 만들어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마땅히 성도는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6) 대접으로 떡을 받치도록 했습니다.

"[출 25:29]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
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출 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



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대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접을 통해 진설병이 놓여진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진설병이 두 줄로 각 줄마다 6개의 떡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접은 6개씩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레 24:6]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대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이라>인데 이는 '큰 접시'나 '대접'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진설병을 받치는 대접이 정금으로만 들어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금은 전혀 불순물이 첨가되지 아니한 10% 순수한 정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진설병은 오직 정결하고 거룩하게 올려져야 했기에 하나님은 대접을 정금으로 만들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7) 손가락으로 유향을 담았습니다.

"[출 25:29]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출 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상의 부속품 중에는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이 숟가락은 유향을 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각 줄에 진설된 떡 위에는 숟가락에 유향을 담아서 놓았습니다. 숟가락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숟가락'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카드>입니다. 이것은 숟가락이란 뜻보다는 오히려 '작은 냄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스푼이 아니라 작은 공기 그릇정도 되는 크기의 냄비인 셈입니다.

이것을 진설병 위에다가 나란히 올려 놓았습니다. 숟가락에 담겨져 있는 유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선사했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시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향은 시체의 썩은 냄새를 없애주는 향품으로 사용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향이 발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악취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의 악취가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진설한지 일주일의 지나서 진설병을 먹을 때 진설병 위에 올려져 있는 유향을 한 움큼 집어다가 불에 태웠다고 전해집니다. 제사장들이 태운 유향의 향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올려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유향을 집어 분향단의 향불에 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향단의 향불에 사용되었던 다섯 가지 향품에는 유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 24:7]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 포도주를 담는 병이 준비 되었습니다.

"[출 25:29]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든편 정금으로 만들지며 [출 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또한 진설병의 부속품으로 '병(jar)'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언급된 '병(jar)'은 히브리어로 <케소아>인데 이는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 놓은 '병(jar)'이었습니다. 이 병에 담겨진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병 또한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지극히 정결하고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9) 전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잔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설병상에서는 전제 의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전제 의식에 사용하는 잔이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이 '잔'의 히브리어 단어는 <메나키아>인데 이는 전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잔을 의미합니다.

'전제(Drink Offerning)'은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전제 의식은 독자적으로 드러지기 보다는 소제나 번제와 같은 제사와 함께 곁들여져 드러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지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과도 같은 것



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온전히 목숨을 버리겠다는 서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제 의식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전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잔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전제 의식에 정금으로 만든 잔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전제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포도열매가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갈아지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자기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포도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 2: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2. 진설병의 영적인 의미

(1)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은 구약시대 때부터 보아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떡이 없어 굶어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떡이 없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떡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떡이 없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떡이 없어 죽습니다. 이는 저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십니다. 진정한 배부름은 육적인 배부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육적인 배고픔보다 더 진한 배고픔이며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취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 6: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2) 진설병은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하는 성찬예식입니다.

진설병을 취하는 것은 곧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성찬예식을 의미합니다. 성찬예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의식은 '세례식'과 '성찬식'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설병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하는 성찬의식을 거행해야만 합

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3) 진설병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설병에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 않으면 누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간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시면

서 "[마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 6: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간구의 순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부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해 드린 후에 비로써 우리의 먹을 것을 취하는 자녀가 되어야 함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어떤 효도하는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좋은 것을 드리지 아니한 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먼저 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이치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간구한 모든 것이 다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 7: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8]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 7: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마 7:10]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 7: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전심전력을 다해

구하십시오. 필요하면 악이라도 쓰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비로소 사랑하는 자녀를 먹일 수 있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간구를 원하십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해 걱정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욱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십시오. 그런다음 당신의 가정을 위해 구하십시오. 필요한 재정을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테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최선으로 구하였지만 얻지 못한 것은 세상의 정욕대로 끌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약 4:2]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약 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전심전력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간구한다고 해서 모두 얻어지

고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간구에 권세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주님의 권세이며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 이름으로 기도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권세자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은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더 큰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권세로 간구해야 합니다.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선포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님께 간구할 때는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용되는 문장은 명령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에게 병이 걸렸다고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기도는 좀 더 강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간구하는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간구에 선포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포해야 할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사랑하는 자녀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이러한 선포기도는 단순히 간구하는 기도보다 훨씬 강력한 응답을 얻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 자녀 또한 전지전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당신은 진설병에 나아갈 때마다 당신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미 간구하고 선포한 기도제목을 다 응답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기도한 내용이 다 이뤄졌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제목이 다 이뤄졌음을 믿어야 하며 그러한 믿음은 충만한 감사로 변해질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기도제목이 응답받았다고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기도

제목을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심령 안에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하나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결코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약 1: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
으니 [약 1: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
하지 말라"

(4)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입니다.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날에 준비해서 안식일의 시작이 되는 금요일 저녁 때에 12개의 떡을 진설해 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한 주일이 지난 후에 새로운 떡이 진설되기 전에 그 떡을 먹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일주일이나 지난 떡이 금방 만든 떡처럼 매우 신선하고 따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진설된 떡을 먹도록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을 한 후에 3개월쯤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은 몇몇 사람을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명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출 24:11]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친교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금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는 당신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5)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며 그 언약은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말씀에 적혀진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역사가 당신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렘 15: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만족감을 갖게 합니다.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곧 진설병을 취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설병을 취하는 자는 배부를 것이며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6) 진설병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의 히브리어는 <레헬 파님>입니다. <레헬>은 '떡'이란 뜻이고 <파님>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얼굴 떡'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두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설병을 1년 365일 두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성막의 모든 것이 1년 365일 존재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레 24:8]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번제단의 불이 1년 365일 타올라야 했으며 정금등대의 불도 1년 365일 타올라야 했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이 1년 365일 지속되도록 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도 쉬이 없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직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요 5: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매일같이 진설병을 올려 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뵈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뵈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이는 마치 날마다 자녀가 부모를 뵈고 안부인사를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설병은 영어로 'Showbread'입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보여지

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된 진설병입니다. 진정한 진설병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잔치 날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겠지만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창피함도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동요받지 않게 되었기에 마리아는 담대하게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다면 시집도 안 간 처녀로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요 12: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요 12: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7)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올려졌습니다.

"[레 24:8]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

이니라"

모든 성도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등한시 하거나 예배를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떡을 진설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전날에 떡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성도는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단지 육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오락을 삼가며 세상적인 정욕을 위한 그 어떠한 더러운 행위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사 58:13]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 58:14]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8) 진설병은 매우 고운가루로 만들어졌습니다.

"[레 24:5]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둘을 굽되 매 덩이를 예바 십분 이로 하여"

진설병은 매우 고운가루로 만들어졌습니다. 잘게 부서지지 않으면 좋은 떡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잘게 부서져야 합니다.

진설병이 고운가루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성도는 고운가루처럼 겸손해져야 함을 뜻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스스로를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자아와 의지를 잘게 부서야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였다고 자랑했습니다.

"[고전 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9) 진설병은 기름으로 잘 섞어 만들었습니다.

"[레 2: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레 2:5] 번철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성도는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져야만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진설병은 변철에 구어졌습니다.

"[레 2:5] 변철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변철은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난과 역경의 시험기간이 끝날 때 비로소 복이 찾아옵니다. 쉽게 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 23: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1) 진설병은 잘 뒤집어서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성경과 성령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사랑과 거룩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성경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성령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성령은 강조하면서도 말씀은 전혀 강조하지 않는 삶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있으시지만 정의로우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지우시는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한채 오직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며 오직 공의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막 2: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12)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진설병을 오직 제사장만이 진설병을 먹었듯이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만이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습니다.

"[레 24:9]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13) 진설병은 성소안에서 먹었고 서서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진설병을 오직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진설병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안 되었으며 진설병으로 성막을 벗어나 가족들에게 갖다 줘도 안 되었습니다. 오직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소 안에서 진설병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앉아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는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오직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어야 했듯이 성도는 거룩한 음식을 취해야 합니다. 더러운 장소에서 거룩한 음식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집이나 더러운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거룩한 성도에게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서서 진설병을 먹었듯이 성도는 항상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면 곧 바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흔히 목회자는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죽을 준비', '설교준비', '이사준비'. 비단 이러한 세 가지 준비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

다. 진정한 성도라면 반드시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야 하고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하며 주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있어야 할 것입니다.

(14) 진설병은 누룩없는 떡으로 만들었습니다.

"[레 2:11]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진설병은 누룩이 없는 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소제물이 누룩을 넣지 않은채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누룩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죄가 없는 정결한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이 조금만 첨가되어도 떡이 부풀어 지고 맵니다. 이는 죄로 인해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고전 5:6]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누룩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 16: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정금등대



1. 정금등대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출 26:35]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하나님은 성소의 남쪽에 정금등대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정금등대는 진설병상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진설병상이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정금등대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주님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

한 것이라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
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제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 하셨습니다.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
시리니"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요일 4: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
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
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

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의 지시하신 모든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하나님께서 거하시지만 우리를 성령 하나님과만 항상 동행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모두 영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영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육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2. 정금등대는 정금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출 25:31]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금등대를 정금으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정금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바스 정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가장 좋은 정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정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해서는 안됩니다.

정금등대는 100% 정금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정금이라는 것은 0.1%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떠한 더러움도 지니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은 곧 세상의 정욕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에 빠지게 함으로써 더럽게 만듭니다. 모든 더러움은 세상으로부터 오며 모든 세상의 정욕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의 정욕을 가져 다 줌으로써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사도요한은 마귀의 세 가지 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러워지도록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육신이 갖는 정욕을 통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섯 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감각들을 통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게 육신의 감각으로 짓는 죄는 성욕, 식욕, 수면욕 등 육적인 정욕을 통해 일어납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통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 속한 감각은 인식, 감정, 의지입니다. 이러한 혼적인 감각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명예욕이나 성취욕이나 승부욕 같은 욕망을 통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통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

하는 사람을 만들며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섬기게 합니다.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재물은 아주 강력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김으로써 미혹에 빠집니다. 재물은 이처럼 강력한 우상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딤후 6: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3. 정금등대는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출 25:31]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

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합하게 하고"

정금등대는 정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틀을 만들어 금을 부어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정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민 8:4]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밀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라 명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쳐서 만들어지지 않는 성도는 참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정금같이 나오는 성도가 참 성도인 것입니다.

"[요 23: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성도는 단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련이 된 후에서라야 진정한 정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가니를 통해 연단을 받은 금이라야 정금처럼 나오는 것처럼 연단을 통해 나온 성도야 말로 참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의 과정을 견디지 못한채 떨어져 나가는 경우

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셨습니다. 주님은 씨를 비유로 사람을 몇 단계로 분류하셨습니다.

"[마 13: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마 13: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 13:20]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 13: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 13:22]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 13:23]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길 가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성도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하기에는 세상적인 사람같아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떨어진 말씀을 바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는 하지만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환난이

나 어떤 박해가 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썽도 잘 듣고 환난이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든든히 서있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강력한 인생의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는 신앙을 잃지 않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김으로써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정금과 같은 성도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성도는 정금과 같은 성도입니다. 이렇듯 정금과 같은 성도는 부드럽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는 부드럽습니다. 주님은 부드러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부드러우십니다. 성도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움은 겸손입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4. 정금등대는 한 덩이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출 25:31]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정금등대는 매우 복잡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살구꽃 모양의 받침도 있었고 모두 일곱 개의 등잔이 한 뿌리에서 펼쳐지듯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작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 한 덩이의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니다. 한 달란트의 정금을 가지고서 그렇게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정금등대를 만든 것입니다.

"[출 25:39]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정금등대가 한 덩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됩니다.

"[요일 3: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요 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5. 정금등대는 가운데 줄기에 6개의 줄기가 붙어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요 15:4-5)

"[출 25:32]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출 25:33] 이편 가지에 살구 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갈게 할지며 [출 25:34]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출 25:35]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출 25:36]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정금등대의 등불은 모두 일곱입니다. 정 가운데 있는 등불을 중심으로 양쪽에 세



개씩 놓여져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양쪽에 놓여진 여섯 개의 등불은 인간을 뜻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험난한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빛이 약합니다. 하지만 빛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온전해집니다. 연약함이 없어지고 강건함이 생기게 됩니다. 험난한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금등대의 등불을 갖추도록 명하신 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요 17: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6. 정금등대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 25:33] 이편 가지에 살구 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같이 할지며 [출 25:34]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정금등대의 등불 줄기에는 여러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과 꽃이 놓여져 있습니다. 각 줄기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 가운데 줄기에는 잔 넷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가운데 줄기가 다른 줄기에 비해 더 길다란 모양을 갖춘 것입니다.

살구꽃은 겨울이 지나 봄이 될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가장 먼저 핀다는 것은 가장 헌신된 성도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가장 먼저 오는 이유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기 보다는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교를 위해 먼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청소를 위해 먼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모두 헌신된 성도입니다. 하지만 헌신되지 못한 성도는 먼저 오지 않습니다. 항상 늦게 옵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와야 할 예배 때도 오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살구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금등대에 수많은 살구꽃 형상을 갖추게 하신 이유는 오직 헌신된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살구나무가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그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살구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

여주시면서 선지자의 일을 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렘 1:1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렘 1:1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라는 단어는 <샤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샤카드>라는 단어는 '지켜보다', '감시하다', '경계하다', '깨어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속히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행하라고 재촉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늘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침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살구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죽은 나무가 다시금 소생케 되는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민 17: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민 17:7]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민 17: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은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가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아론을 방해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의 지팡이 중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십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죽음을 경험합니다. 희망이 죽기도 하고 소망이 죽기도 합니다. 기쁨이 죽기도 하고 재정적인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피어납니다. 생명의 움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삶에는 부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며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부활의 생명을 없애려는 악한 세력을 주의하십시오. 그 어떠한 방해세력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 내십시오.

7. 정금등대는 감람유를 통해 빛을 냅니다.

"[출 25:37]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하나님은 정금등대의 빛을 거룩한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금등대의 빛은 오직 감람유를 통해서 빛을 내게 하셨습니다.

"[출 27:20]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짙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하나님께서 감람유를 거룩한 기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소에서는 오직 감람유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한 감람유만을 사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람유는 곧 성령의 기름을 뜻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정금등대에 감람유를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감람유가 공급되어야만 정금등대의 빛은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일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져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부음이 없는 자는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어야 합니
다.

8. 정금등대는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출 25:37]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
추게 하며"

성소가 빛이 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정금등대 때문이
었습니다. 정금등대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성소에 빛이 있었던 것
입니다.

정금등대의 빛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빛에 거하
게 됩니다.

"[요 8: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
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
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 내시고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벤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은 참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성도는 빛에 거해야 합니다.

성도가 빛에 거할 때 주님께서 더욱 빛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엡 5:8]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때 주님의 빛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빛으로 켜져 있어서 주님의 보좌를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사도요한은 주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 항상 등불을 켜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빛을 밝히는 등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 4: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진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9. 정금등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출 27:20]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짚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출 27:21]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 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접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정금등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정금등대의 빛 외에는 그 어떠한 빛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금등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혹자는 성소의 휘장을 열어 놓으면 햇빛이 들어와 얼마든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소의 휘장은 그렇게 열어놓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아무에게나 열린 것이 아니듯 성소의 휘장 또한 그렇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하루종일 열려 있다는 것은 성막밖에 있는 회중들로 하여금 성소의 내부를 모두 드러다 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하고 거룩한 성소가 회중에게 공개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공개됩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실지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성령님을 함께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오직 회중은 성막뜰에만 거해야 하며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며 아무에게나 공개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성소의 정금등대가 저녁에는 꺼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녁에는 잠을 자기 위해서 불을 끕니다. 회사나 공장도 저녁에는 불을 끕니다. 직원을 쉬게 하고 기계를 쉬게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5: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성소의 정금등대는 결코 꺼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사장들이 밤새도록 일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성소의 정금등대는 계속해서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레 24:3]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성소의 정금등대의 불이 아침에는 꺼지게 하고 저녁마다 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대하 13장 11절을 증거구절로 삼습니다.

"[대하 13:11]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나 역대하 13장의 내용은 솔로몬 성전에서 집행되는 의식에 대한 설명임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에 비해 많은 부분이 다른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 규모나 제작 방법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지만 드러지는 의식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의 정금등대는 저녁마다 불을 켜지만 모세의 성막은 켜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상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손질하고 새롭게 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출 30:7]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를지며"

제사장은 아침에 등불을 손질해야 했으며 저녁에는 등불을 켜야만 했습니다. '손질하다'는 히브리어는 <야타브>인데 이는 '정리하

다', '단장하다', '잘 되게하다' 외에 '기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하는 것은 등불을 끄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등불의 심지를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하는 일련의 청소작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질은 저녁에도 동일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등불을 켜다'고 언급되었는데 이는 저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녁 때에는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보충하는 일들을 하며 심지를 손질함으로써 온전히 정금등대의 등불로 성소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등불이 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불을 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알라>인데 이는 '올라가다', '높여지다'의 뜻 외에 '바치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정금등대의 등불을 켤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의식을 집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의 정금등대의 등불은 1년 365일 타올라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성소의 정금등대의 등불이 타오르듯이 우리 또한 항상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만 합니다.

사무엘은 성소의 불이 타오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매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삼상 3: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모든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잠든 시각은 늦은 밤입니다. 성도는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무엘이 잠에 취해 잠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항상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만 합니다. 이는 성소의 등불이 항상 타오른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10. 정금등대의 불뚝은 잘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출 25:38] 그 불집계와 불뚝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
나"

제사장들이 정금등대의 불을 손질할 때에 맨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불을 맨 손으로 만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를 예쁘게 손질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를 보기 좋게 손질하지 않으면 그을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을림은 정금등대를 더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소 안의 공기를 더럽게 만듭니다.

제사장들은 불집계를 통해 등불의 심지를 예쁘고 단정하게 정리했으며 떨어진 불뚝이나 심지에 붙어있는 불뚝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불뚝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많은 그을림이 생기게 될 뿐더러 불빛이 밝게 빛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집계로 불뚱을 집어 버리듯이 악한 세력을 집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그을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을림이 생기면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정금등대에는 불집계와 함께 불뚱 그릇이 있었는데 불뚱 그릇은 심지에 붙어있는 불뚱과 떨어져 있는 불뚱을 버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심지를 보기 좋게 정리하다 남은 버려진 심지를 버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불뚱 그릇이 없다면 제사장은 옷이나 손으로 불뚱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불뚱을 옮기다보면 자연스레 손이나 옷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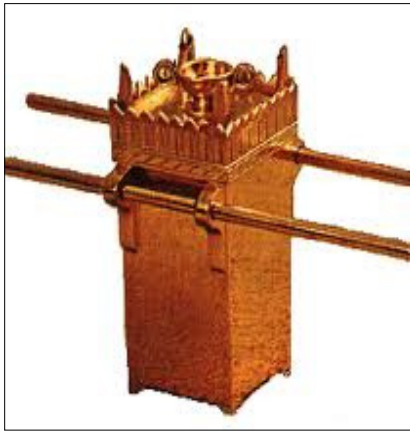
불뚱 그릇이 있어서 우리가 더럽히지 않는 것처럼 불뚱 그릇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집어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불뚱을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불뚱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불뚱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뚱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불뚱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있는 불뚱이 없어질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으로 찬양을 불러 보십시오. 당신에게 딱 붙어있는 불뚱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더 이상 불뚱이 당신 곁에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있는 불뚱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깨끗해집니다. 교회에 있는 불뚱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오직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분향단

1. 분향단은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덮어 만들었습니다.

"[출 30:1]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출 30:2] 장이 일 규빗, 광이 일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이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합하게 하고"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는 번제단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성물 중에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은 번제단, 진설상, 언약궤 그리고 분향단이었습니다. 나머지 성물 중 정금등대와 속죄가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하나

님은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조각목은 죄많은 성도를 뜻합니다. 조각목에는 가시가 많고 매우 딱딱한 나무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라 명하신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자를 받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만 합니다. 이는 비록 우리가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의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막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직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러한 칭의의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히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보다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주님께서 이렇듯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입혀서 마치 정금의 인생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정금과 같이 변화를 받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죄가 많아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 분향단은 가로 세로 각각 일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 30:1]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출 30:2] 장이 일 규빗, 광이 일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이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합하게 하고"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 때 가로 세로 각각 일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상과 벌을 정확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자에게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시지만 악한 자에게는 그만큼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믿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의 소원을 더 잘 들어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시니

다.

3. 분향단에는 네개의 뿔이 있습니다.

"[출 30:3]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분향단에는 번제단과 같이 네 개의 뿔이 놓여져 있습니다. 뿔은 곧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 받으셨습니다.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 받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아버지의 권세를 부여 받게 됩니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

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자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놀라운 능력
을 행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를 가진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일도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가르
치셨습니다.

"[막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너희들도 나
와 같은 능력을 행할 것이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약
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
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
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곧 왕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는 하

님의 지니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선포한 것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였습니다. 혹시 병든 자가 죄로 인해 병이 들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해주시고 병에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약 5: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4.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뜻합니다.

분향단에는 향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향불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피어졌습니다. 향불에서 만들어진 연기는 성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분향단이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향불의 연기는 지성소 안으로도 스며 들어갔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향불을 가지고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직 7월 10일 대속죄일 때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향불의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게 했습니다. 이는 그가 속죄소를 바라봄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 16:12]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레 16:13]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케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처럼 향불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연기였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기도는 향불과도 같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연기입니다.

"[계 5: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드려지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정욕대로 드려지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대로 구하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것이기 때

문에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약 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또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제목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이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잠 28:9]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5.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 30:6]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 이며"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지성소와 가장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

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하게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향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분향단이 아예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 9: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히 9: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싣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위치해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그가 천국의 성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성막은 천국의 관점에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모든 성막에 관한 내용이 이 세상의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언급된 성막은 이 땅에 존재하는 성막을 바라보며 쓴 글이지

만 히브리서의 성막은 천국의 시각으로 성막을 바라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향단의 위치를 지성소 안에 있다고 언급한 까닭은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한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싣은 언약궤가 있고....."(4절)에서 '있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코>인데 이는 '~에 속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금향로가 지성소에 속한 성물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위치해 있다고 기록한 까닭은 천국에서도 '기도'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주하게 될 천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기도하지만 천국에서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6. 분향단의 향불은 항상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의 향불을 사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출 30:7]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를지며 [출 30:8]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제사장은 분향단의 향불을 사르기 전에 먼저 정금등대의 불을 점

검하였습니다. 정금등대의 불을 깨끗하게 손질한 후에 분향단에 올려져 있는 향불에 향료를 뿌림으로 향불이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향불이 향품을 태울 때에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거룩한 연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금등대의 불이나 번제단의 불이 1년 365일 타올라야만 했듯이 분향단의 향불 또한 항상 지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도제목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제목이 없을 때 전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향불을 꺼트리느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향불의 연기가 지속되어야 함은 성령님과 항상 동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도의 기도는 혼자서 드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드러지는 기도는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7. 분향단의 향은 특별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출 30: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출 30:35]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느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출 30:36]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 30:37]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분향단의 향불에 쓰여지는 향은 아무 것이나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 역시 아무렇게나 드려져서도 안 됨을 뜻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란 말이 있듯이 정성어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분향단에 쓰여진 향품으로는 소합향

과 나감향, 풍자향과 유향, 그리고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입니다. 억지로 뽑아내는 향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향이 분향단의 향불에 사용되었던 것은 성도의 기도는 결코 억지로 드러져서는 안 됨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억지로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이러한 억지로 드러지는 기도나 강제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기도는 자발적으로 드러져야 합니다.

또한 '나감향'이 사용되었습니다. 나감향은 조개류의 껍질을 뽀아서 만든 향입니다. 이는 껍질이 부서지듯이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며 깨끗이 씻겨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회개와 함께 드러지는 것입니다. "나 잘났소"를 외치는 바리새인적인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여, 죄인을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풍자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제로 사용되는 향입니다. 옷을 빨래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빨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로 인한 회개의 기도를 드러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유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시체에 바르는 향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재앙을 제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8. 분향단에는 금고리가 있습니다.

"[출 30:4] 금테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분향단에는 금으로 만든 고리 두 개가 양쪽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분향단을 옮길 때 사용되는 고리였습니다. 고리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때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매우 깊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새 기도의 불이 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금고리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동하는 제사장이 소홀하였을 때 분향단 위의 향 불은 켜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한 때 열심히 하다가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언제 그랬냐는듯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밥을 먹지 않는 자녀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인생이 평탄하여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조심스럽지 않아서 향불을 켜어버릴 성도인 것입니다.

9. 분향단을 매는 채가 있습니다.

"[출 30:5]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분향단을 옮길 때 손으로 들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서 들기엔 매우 벅찬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이 분향단을 이동할 수 있도록 채를 메달아 이동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이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기도해야 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마치 분향단의 장소가 지성소 휘장 앞에 놓여져 있어야 했듯이 성도 또한 기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옮겨야 합니다.

성도는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릴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당도 기도드리기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작은 방들도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기도원 같은 곳의 기도굴도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우리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더럽고 추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집중을 하게 될 때 교회 예배당과 같은 기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장소가 당신의 집이여도 좋습니다. 안방에서 기도한들 그것이 교회 예배당과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골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먼저 골방을 찾으십시오. 골방이 없다면 만드십시오. 당신의 몸이 들어갈만한 장소면 족합니다. 옷장이라도 들어갈 수만 있다면 좋은 골방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안이라도 좋은 골방이 될 것입니다. 장소가 더 좁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속죄소

1.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물 중에서 유일하게 정금 등대와 속죄소 두 가지만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금은 정결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속죄소가 정금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속죄소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언약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소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곳에는 그 어떠한 불순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불순물은 거룩함을 더럽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더러움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계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

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2. 속죄소는 두들겨 패서 만들어졌습니다.

속죄소는 주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두들겨 패서 만들어 졌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의미합니다. 만일 주님의 고난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벤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인생은 항상 두들겨 맞는 인생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우리를 두들겨 뺨니다. 재물문제로 두들겨 맞고 자녀문제로 두들겨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두들겨 맞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두들겨 맞음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그 누군가 생명을 얻으며 살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 주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 2:18]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
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3. 그룹은 속죄소와 붙어 있었습니다.

속죄소와 그룹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소를 만들 때
그룹과 함께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속죄소와 그룹이 하나로 연결
되어져 있는 것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와 함
께 하심을 뜻합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또한 그룹은 하나
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안내자이기도 합니
다. 이처럼 그룹이 속죄소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와 항상 함께 하시듯이 천사들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돕듯이 천사들
도 항상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천사는 항
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룹니다.

"[마 18: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
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
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천사는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

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4. 그룹은 두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속죄소에 있는 그룹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있었습니다.

"[출 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의 그룹이 날개를 높이 폈습니다. 이는 활짝 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활짝 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심입니다. 이처럼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룹의 날개는 모든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날개 아래 그늘에 쉬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날개에 올리시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출 19:4]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그룹은 속죄소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룹은 날개를 활짝 편 상태에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였습니다. 그룹이 서로 마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는 그룹의 겸손함을 뜻합니다.

그룹은 스스로의 능력을 뽐내지도 않았으며 자기들끼리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주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경외함입니다.

또한 그룹이 속죄소를 향하여 고개를 고정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외에는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하나님께 얼씬 거리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6. 속죄소에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속죄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함 받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사함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사 59:1]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
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 59:2] 오직 너
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으나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롬 3:10]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할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였습니다.

[출 12:22]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
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로 문 인방과 좌우 설
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
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는 양의 피, 곧 주님의 피로 인한 구원이었습니다.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짐승의 피를 뿌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성막 전체에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모든 뿌려진 짐승의 피는 곧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피를 통하여 정결해지고 거룩해 집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7. 속죄소에는 오직 거룩한 자만을 받아 드립니다.

속죄소에는 오직 거룩한 자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속죄소를 통과해야만 언약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로 들어가야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속죄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코 속죄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

님은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오직 일 년에 하루만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7월 10일 대속죄일 때만 지성소를 공개하셨는데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을 속죄소를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히 9: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속죄소는 거룩한 자만 받아 드리는 곳입니다. 속죄소 위의 그룹은 거룩하지 못한 자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휘장을 둘로 찢개심으로써 새롭고도 산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오직

정결하고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8.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 7:8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던라"

모세가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그가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속죄소가 언약궤의 두껍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세가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는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성소부터입니다. 하나님

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시작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언약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다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 10: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언약궤

1.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지성소 안이 밝았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그 어떠한 도구나 기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피뿌리는 의식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불기둥을 통해 지성소가 밝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빛이 있습니다. 근심, 좌절, 슬픔, 우울, 절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 58:8]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약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이동하였습니다. 성도는 만드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합니다.

"[출 14:19]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출 14: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
 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하
 나님의 영광이 언약궤와 함께 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약궤
 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출 40: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
 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2. 언약궤는 지성소의 핵심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약
 궤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
 를 통해 나타납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면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궤 안으로 들어
 가야 합니다.

모세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언

약궤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막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막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막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3. 언약궤는 천국의 언약궤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천국의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만드라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은 천국의 성막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는 천국에 있는 성막의 언약궤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성전에도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음을 봤습니다.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
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천국에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예배에 임하실 것이며 친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
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
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 언약궤에는 오직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 년에 하루밖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소와 언약궤의 모습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눈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먼저

분향단의 향불을 지펴야만 했습니다.

"[레 16:13]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케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
할 것이며"

그만큼 하나님은 속죄소와 언약궤를 사람에게 내 보이시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
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통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할지라도 정결하
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언약궤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나 지금이나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약궤는 오직 정결하고 거
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언약궤에는 세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1) 돌판 :

구약시대의 언약궤 안에는 오직
돌판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크
기가 커서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없
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게 만나 항아리와 싹난 지팡이를 언



약궤 옆에 안치하도록 명하셨으나 솔로몬 성전 때에 언약궤를 확인해 보니 그곳에는 오직 돌판만 들어 있었습니다.

"[왕상 8:9]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 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렘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돌판은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으며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 지팡이 :



언약궤에는 아론의 썩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썩난 지팡이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민 17:1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

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3) 항아리 :



언약궤에는 금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먹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출 16:33]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4 부

/

성막에서 드러지는 제사들

제 1 장 : 제사의 종류

번제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제' 방법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을 가져온 주인이 직접 안수를 했습니다

번제물을 가져온 당사자는 직접 번제집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겠다는 서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당사자가 번제집승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입니다.

"[레 1: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 1: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

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 1:6]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
죽을 벗기고 각을 뜯을 것어요"

번제에 쓰일 짐승은 번제단 옆에 있는 번제소에서 죽였습니다.
번제소는 제물로 쓰일 짐승을 죽이는 장소였습니다.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
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어요"

번제짐승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떼졌
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제짐승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직접
그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죽이는 것도 당사자가 있으며 가죽을
벗기는 일도 당사자의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육체를 칼로
잘라 각을 뜯는 일도 당사자가 했습니다. 이렇듯 당사자가 짐승을
죽이고 번제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해야만 한 것은 당사자 스스로 하
나님께 번제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 1:11]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
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
며"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어요"라는 말은 번제단 옆에
위치한 번제소를 말합니다. 번제단이 성막뿔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
면 번제소는 번제단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교회 목사

가 나갈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부모가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죽어야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뿌려진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번제짐승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졌습니다. 그렇게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들에 의해 번제단 사면에 뿌려졌습니다. 이렇듯 뿌려진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장자를 죽였던 마지막 재앙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지역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사람의 장자뿐 아니라 짐승의 장자 또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떠한 장자의 죽임을 겪지 않았습니다.

"[출 12:22]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처럼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십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천국 하늘 보좌 우편에 거하시니 어찌 주님의 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주님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혈신앙입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겨졌습니다

"[레 1:8]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뜰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 짐승의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겨졌습니다. 그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내장을 손질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어찌 보면 짐승을 손질하는데 있어 가장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모두 더러운 것입니다. 내장은 여러 음식들로 인해 항상 찌저기와 세균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정강이는 세상과 접하여 맞닿은 다리입니다.

이렇듯 더러운 내장과 정강이를 제사장에게 작업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더럽고 힘든 일을 제사장에게 맡기십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며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든 일을 제사장이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성도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든 일을 도맡아 행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도 번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레 1:14]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번제물을 바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새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물 받치는 것에 대해 면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즐거운 심령으로 자원해서 행하길 원하십니다.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인색함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모두 깨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거운 심령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물을 바치게 하시면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 일조와 헌물이라 [말 3: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 3:12]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레 1:15]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레 1:16] 맥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레 1:17]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사 방법은 화제(Burnt Offerign)입니다. 번제는 제사의 종류이지만 화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태워지는 냄새를 즐겨 받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의 냄새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즐겨 받으십니다.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서원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서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서원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소제

소제는 무엇인가?

소제는 유일하게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어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 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내어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제에 사용된 기름은 감람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향료로써 매우 귀한 향료였습니다. 유향 냄새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졌으며

제사장은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화제로 태워진 소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로 온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진 소제물은 번제와 함께 행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소제만 별도로 드릴 경우가 있었지만 그 양이 지극히 적은 양이었기 때문에 주로 번제와 함께 행해졌을 것입니다.

백성이 가져온 소제물은 한 줌 이상되는 양이었습니다. 물론 가져온 사람에 따라 그 양이 각각 달랐지만 화제로 드려질 때는 한 줌 곡식만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소제물은 레위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으로만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이처럼 곡식으로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곡식으로 하나님께 소제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부자는 가진 것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가난한 자는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드렸다고 풍성

한 제사가 되지 않으며 적게 드렸다고 빈약한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진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소제를 드리는 방법

소제로 드려질 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단에 화제로 드려질 수도 있었지만 화덕에 구워서도 드려졌으며 변철에 부쳐서도 드려졌습니다. 또한 술에 삶아서도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레 2: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레 2:5] 변철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레 2:6]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레 2:7] 네가 술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

어 만들지니라"

번제단에 화제로 드릴 때는 반드시 유향을 함께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유향이 비싼 향료이기때문에 그것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 사람만이 그러한 소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향없이도 화덕과 변철과 솔을 이용하여 소제를 드리게 했던 것은 유향을 구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소제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덕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화로와 같은 것입니다. 변철은 넓다란 철판으로 오늘날의 후라이팬과 같은 것입니다. 솔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마솔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려졌으며 반드시 누룩이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누룩이 첨가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매우 쉽게 음식 속에 스며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특성이 아주빨리 사람의 심령을 다스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누룩없는 소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제는 바치는 사람이 직접 행했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헌금만 바친다고 훌륭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드리는 신령과 진정어린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레위인이 남은 음식을 취함

이렇게 준비된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은 준비하여 가져온 소제물 중 일부를 취하여 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레 2:8]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레 2:9]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10]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찌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물의 남은 것은 레위인에게 돌려졌습니다. 남은 소제물을 가져온 백성에게 돌리지 않고 레위인들이 취하도록 한 것은 소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성 스스로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민 18:8]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민 18:9]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물의 남은 음식을 레위인에게 주셨던 것은 레위인에게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기업을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스스로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들 스스로 저들 인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초태생의 바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짐승을 포함하여 사람까지도 모든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헤아린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된 장자의 수는 22,273명이었습니다(민 3:42-43). 그러나 레위인의 1개월 이상된 남자의 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민 3:39). 레위인을 대속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273명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수에 대해서 속전을 지불케 하셨습니다. 한 명당 속전은 5세겔이었습니다. 백성은 속전세를 지불하여 그것을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민 3:46]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이백칠십삼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민 3:47] 매명에 오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민 3:48]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과 첫 태생은 죽을

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과 첫 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출13:2-3). 그런데 이스라엘 첫아들과 첫태생 대신 레위인 남자와 레위인의 첫 태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소유로 삼은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었으나 그들로 성막과 제사 사역을 감당하기는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선택하여 모든 제사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엄격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자녀 중 초태생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의 초태생된 자녀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백성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민 8:18]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처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초태생을 대속하여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에게는 그 어떠한 재물을 취할수도 없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은 많이 퇴색되어 갔으며 많은 레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레위인을 돌보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위인에 대한 초태생 대속제물로 삼음은 오늘날에는 목회자로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목회자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

성들은 목회자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초태생 대속제물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같은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면서 "모두가 똑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주장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초태생을 취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초태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도 초태생이 있으며 우리의 재물 중에도 초태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소산의 십일조도 함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산의 처음 난 것과 수입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으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느 12: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공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오래도록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킬 때에 솔로몬 이후에 그토록 큰 기쁨이 없었는데 왕이 백성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명하자 백성들이 많은 헌금을 가져왔는데 그 헌금을 쌓아 올리는데만 자그마치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대하 31:7).

"[대하 31:5]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오늘날에도 소산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소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 하나님은 예니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초태생과 십일조는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금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소금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거제물을 레위지와 사람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먹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위해 하

나눔께 바쳐졌기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민 18: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급 언약이니라 [민 18: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민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민 18:22]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민 18: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성 스스로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으면 그 헌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먹이시는 것이지 성도의 헌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릇된 생각은 그릇된 행동을 만들며 그 사람을 그릇되이 만들게 합니다.

레위인은 거룩한 떡을 먹어야 합니다

"[레 6:15]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레 6:16]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레 6:17]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레 6:18]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소제물의 남은 음식은 레위인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누룩은 세상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먹는 떡이 누룩없이 먹는 떡에 비해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누룩을 넣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욕구를 없게 하신 것은 세상의 정욕을 없애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장막 안 뜰에서 먹게 하신 것 역시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음식을 나눠 먹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성막 뜰 안에서만 먹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18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

니"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레위인 남자들은 반드시 누룩없이 떡을 먹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인들에게 강한 명령을 주신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쳐진 레위인들을 강하게 인도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의 제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누룩을 먹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장막 바깥으로 나가서 음식을 먹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살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렇기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현금으로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현금을 하였으면 그 현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먹이시는 것이지 성도의 현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릇된 생각은 그릇된 행동을 만들며 그 사람을 그릇되이 만든편게 합니다.

화목제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레 3:1]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소, 양, 염소였습니다. 이 모든 예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제물을 싫어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상한제물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 1: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눈물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처럼 희게 될 것입니다.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레 3: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

릴 것이며"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 역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스스로 예물 머리 위에 안수하였습니다. 이는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마치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화제로 드려져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사용되기를 소원함을 뜻합니다.

화목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지길 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할 때 화목제를 드렸지만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에도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목제사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잡아 죽인 짐승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이는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만 비로소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골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할 수 있습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레 3:14]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 3:15]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레 3:16]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레 3:17]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으셨습니다. 이 명령이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은 기름과 피가 우리의 몸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기름과 피가 우리의 몸에 얼마나 좋지 않는 것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름은 수많은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짐승의 피에는 더러운 세

균이 많기 때문에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먹지 말아야 할 짐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레 11:3]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레 11:4]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레 11:5]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레 11:6]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레 11:7]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레 11:8]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레 11:9]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레 11:10]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레 11:11]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레 11:12]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레 11:13]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

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응과 [레 11:14] 매와 매 종류와 [레 11:15] 까마귀 종류와 [레 11:16]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레 11:17]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레 11:18] 따오기와 당아와 올응과 [레 11:19]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레 11:20]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레 11:21]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레 11:22]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벼지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팻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레 11:23]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먹지 못할 짐승을 언급하신 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어 의료시설과 좋은 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러한 짐승을 먹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화목제에 사용되었는 제물의 종류

"[레 7:11]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레 7:12] 만일 그것을 감사하므로 드리거든 기

를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레 7:13]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 되 [레 7:14]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화목제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3장에 보다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곳 레위기 7장에서는 화목제를 지내고 남은 음식에 대한 규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에는 소, 양, 염소로 예물을 드리는 것 외에도 기름섞은 무교병과 기름바른 무교병, 그리고 기름섞어 구운 과자를 함께 곁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병도 화목제로 드리지는 짐승과 함께 드리졌습니다. 화목제사로 사용된 예물은 백성이 가져온 예물 중 하나씩만 사용되었기때문에 나머지 음식에 대해서는 모두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병과류는 거제형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제'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드러지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제사 방법으로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가 있었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방식이며, '요제'는 양 옆으로 흔들면서 드러지는 제사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술과 함께 드러지는 제사방법입니다. 이러한 제사방법은 제사종류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제사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으며 제사방법에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종류

"[레 7: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레 7: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레 7: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삼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레 7: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낙헌제)'로 구분됩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낙헌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는 달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당일에 모두 먹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이처럼 신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지도 말며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미루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러지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제에 비해 훨씬 시간적인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심령은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하나님께서 서원제와 자원제의 희생고기를 이튿날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제사장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러지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를 제삼일까지 남겨두어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그 화목제는 열납되지 않았으며 가증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죄를 범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원하여 드린 성도의 헌금을 저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드린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곧장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삼일까지 고기를 남겨두어 먹은 제사장에게 죄가 임하듯이 성도의 드린 서원헌금이나 자원헌금을 오래도록 저축하고 남겨둔다면 하나님의 죄가 없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드러지는 서원헌금과 자원헌금은 작정헌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직 깨끗한 자만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 7:19]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레 7:20]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레 7:21]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화목제로 사용된 희생고기는 정결한 고기여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다면 그 누구도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아니되었습니다. 먹지 말고 고기를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또한 화목제 희생고기는 오직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자'라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제사장이 육적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그 제사장은 희생 고기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 희생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졌습니다. 백성에서 끊쳐졌다는 말은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내 버려짐을 뜻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적으로 더럽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육적으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야만 합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하며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정한 짐승을 만져서도 안되며 먹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정한 짐승은 인간에게도 부정한 것입니다. 또한 가증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되며 지녀도 안됩니다. 우상적인 물건이나 가증한 짐승의 형상은 버려야 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음란한 것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모든 물건이나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정결한 육신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온전히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화목제 희생고기를 취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화목제는 본인이 직접 번제단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레 7:29]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레 7:30]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화목제를 화제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짐승의 기름과 가슴을 번제단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은 우리 스스로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들은 교회모임에 참석하

고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마지못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레 7:31]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레 7:32]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레 7:33]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레 7: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혼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졌습니다. 하지만 희생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모두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편 뒷다리는 번제 의식을 집행한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요제로 흔들여 바쳐진 가슴과 나머지 부분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부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수고한 자가 그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니다.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 126: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의 남은 것은 모두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심으로 성막의 제사에 쓰여지고 남은 음식으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셨던 것입니다.

"[레 7:35]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레 7:36]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레 7:37]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이렇듯 제사장에게 남은 음식이 돌아갈 수 있었던 제사는 모든 제사에 해당되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모두 희생제물의 남은 것은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금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소금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거제물을

레위지와 사람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먹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기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민 18: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 18: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민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민 18:22]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민 18: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성 스스로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으면 그 헌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먹이시는 것이지 성도의 헌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릇된 생각은 그릇된 행동을 만들며 그 사람을 그릇되이 만들게 합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레 4: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레 4:3]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업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 4:4]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가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그리고 4장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와 금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계명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행하라"는 계명보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뜻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거나 부주의함으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속죄제를 지켜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만 속죄제를 드려야 함도 아니고 백성들만 드려야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레 4:5]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레 4: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사장은 속죄제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일곱번 뿌렸습니다. 이는 속죄제가 다른 제사에 비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경우엔 단순히 피를 번제단에다가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엔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 휘장 앞에 피를 일곱번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오직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 죄를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로 여기고 장로들로 하여금 속죄제로 드렸는데 이렇게 속죄제로 드려질 때만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라 할지라도 백성의 족장이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단순히 번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린 후에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부어졌습니다.

속죄제 의식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피 뿌림이 매우 복잡하며 회막 안에서까지 피를 뿌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죄제의 경우에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지성소 앞의 분향단에 피를 바르도록 한 것은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도록 명하셨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려야 했던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속죄제의 경우엔 짐승의 피를 모두 번제단 밑에 부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모든 피를 번제단 밑에 다 붓도록 명하신 것은 그만큼 큰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속죄제의 짐승의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부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시대에만 국한된 계명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의식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어겼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당신의 모든 피를 번제단에 쏟아야 할 것이며 당신의 피를 지성소 휘장 앞에 뿌리고 번제단에 발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으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의 짐승은 진 밖에서 태움을 당하였습니다

"[레 4:11]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레 4:12]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죄제에 쓰였던 짐승은 반드시 진 밖에서 태움을 당하였습니다. 속죄짐승의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태웠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속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끌려가시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속죄하심이 속죄제로 드러졌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이니라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처럼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임을 당하

심으로 성소의 휘장은 둘로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 27: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의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신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 장로가 대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레 4:13]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레 4: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레 4:15]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해 회중의 장로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죄를 지도자들이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회중의 장로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제사장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지도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 4: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레 4:17] 그 제사장이 손

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4:18]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
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 장로들이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렸을 때 제사장은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송아지 피를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렸습니다. '여호와 앞 장 앞에' 뿌렸다는 것은 지성소 휘장 앞
을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경우엔 단순히 피를 번제단에다가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엔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 휘장에 피를 일곱번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오직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
성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 죄를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로 여기고 장로들로 하여금 속죄제로 드렸는데 이렇게
속죄제로 드러질 때만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라 할지라도
백성의 족장이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단순히
번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린 후에 나머지 피는 모
두 번제단 밑에 부어졌습니다.

속죄제 의식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피 뿌림이 매우 복잡하며 회
막 안에서까지 피를 뿌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럼 속죄제의 경우에 지성소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지성소 앞
의 분향단에 피를 바르도록 한 것은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도록 명하셨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소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야 했던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속죄제의 경우엔 짐승의 피를 모두 번제단 밑에 부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모든 피를 번제단 밑에 다 붓도록 명하신 것은 그만큼 큰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속죄제의 짐승의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부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시대에만 국한된 계명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의식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어겼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당신의 모든 피를 번제단에 쏟아야 할 것이며 당신의 피를 지성소 휘장에 뿌리고 번제단에 발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으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

문입니다.

속죄제사는 스스로 드러야만 했습니다

"[레 4:22]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레 4:23]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레 4:24]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레 4:25]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레 4:26]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 같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족장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속죄제를 드러야만 했습니다. '족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족장'이라는 히브리어는 <나시>로써 '우두머리, 군주, 지도자'의 뜻으로 사용되었기때문에 '왕'으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레위기에서의 속죄제를 드렸던 족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수염소를 드렸습니다. 수염소 피는 번제단 뿔에 발라졌으며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족장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수염소를 죽여야만 했

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평민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는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레 4:27]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레 4:28]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스라엘 평민 하나가 여호와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해 평민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평민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암염소나 양을 사용했습니다. 평민은 직접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으며 직접 번제소에서 짐승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속죄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레 6:25]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레 6:26]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속죄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레 6:29]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
마다 먹을 것이니라 [레 6:30]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
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
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고기는 오직 정해진 고기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기 위해 잡아 죽인 고기를 취하면 안되었
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의 피는 회막 안에 들어가 휘장 앞에 뿌
려지고 분향단 뿔에 발라졌으며 번제단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며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린
사람의 죄를 속하게 했던 그 짐승은 온전히 진 밖에서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속죄제물을 드릴
때와 회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속죄제물을 드릴 때에 모든 짐승
의 사체는 진 밖에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하지만 족장의 속죄제물
이나 백성의 속죄제물은 기름과 콩팥과 같은 일부분만 불에 태워
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의 몫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음식을 통해 하나님은 제사장을 먹여 살리셨던 것입
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어떠한 음식들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는
지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 18:8]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

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민 18:9]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민 18:10]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민 18:11]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민 18:12]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민 18:13]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민 18:14]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민 18:15]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민 18:16]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일 개월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온 다섯 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민 18:17]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민 18:18] 그 고기는 네게 돌

릴지니 혼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
 나라 [민 18: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
 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 18: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
 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민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
 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삼으신 것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기업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들에게는 그 어떠한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일러 "...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
 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민 18:20)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들입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도 하
 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들에
 게는 세상의 기업이 주어졌으며 세상의 분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저들의 기업이요 분깃입니다. 그렇기때
 문에 일반 성도는 목회자와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일반 성
 도가 목회자와 똑 같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저들 역시 세상의 모
 든 기업을 버리고 모든 분깃을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

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레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레위인이 스스로 세상의 기업을 탐내고 세상의 분깃을 추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취하고 하나님의 기업도 취하려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만 살아갈 목회자가 세상의 기업을 욕심내는 것은 더욱 큰 잘못입니다.

속건제

죄에서 깨끗하기 위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 5:2]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 5:3]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 5:4]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레 5: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레 5:6]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레위기 5장은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건제가 속죄제와 가장 두드러지게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대상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지냈던 제사였지만 속건제는 일상 생활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필요한 제사의식이

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정결함은 속건제와 같아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뜻합니다. 반면에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아야만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을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속건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끼 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피를 흘려야만 했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로 태워졌습니다.

"[레 5:7]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
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을 여호와께로 가져 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
는 번제물을 삼아"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관점은 먼저 죄인에게 향하시고 약하고 무지한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눅 5: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

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전 1: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전 1:29]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조차 감당키 어려운 사람에게는 고운 가루에바 십분 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고운 가루를 제사장에게 가져올 때 기름을 붓지도 않고 유향을 함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유향은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레 5:11]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장 귀한 헌금으로 칭찬 하셨습니다.

"[막 12:41] 예수께서 연보 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막 12: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막 12: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도바울은 강제적이지도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기 위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 5:15]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은 <코데쉬>단어로 '구별하다', '바치다'란 뜻의 '카다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을 뜻함

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드린 예물을 다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드렸으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자신의 것인양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십일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일조와 헌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
일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해당되는 흙 없는 수양을 가지고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소의 세겔은 성소에서 사용되었던 무게를 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용되는 세겔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릇되어 사용되었기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성소의 세겔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소의 세겔로 속건제를 드리도록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회개를 받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 5:16]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은 해당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죄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죄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민 5:7]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은 죄보다 덜한 금액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반드시 사기친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 금액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금액을 취한 자는 반드시 그 본주인에게 돌려주되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 백성이 가지고 온 짐승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남은 음식을 통해 하나님은 제사장을 먹여 살리셨던 것입니다.

"[레 7:6]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레 7:7]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레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레 7:8]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레 7:9]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술에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레 7:10]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제 2 장 : 제사드리는 방법

화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에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화제는 모든 제사종류에 사용되었습니다. 번제는 화제로 드려지는 제사이니 당연히 화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소제는 곡식과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지만 소제에도 번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 화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제를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화제를 가리켜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의 형태인 것입니다.

"[민 2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28: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조금도 취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임을 뜻합니다. 이처럼 화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람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 3:5]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 방법이 제사 중 제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불로 태우는 제사 방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방법을 통해 태워지는 짐승의 냄새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화제 방법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주로 '불'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성물 중 번제단과 정금등대와 분향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1년 365일 계속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을 꺼뜨리지 말라 명하신 이유는 '불'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명하셨습니다.

"[살전 5: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1Th 5:19]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NIV)

NIV 성경은 이 본문을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고 해석하고 있

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불로 표현합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셨을 때 마치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행 2:1]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 2:3]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주 '불'로 표현하고 있으며 '불'은 곧 모든 악한 것을 태우며 또한 빛을 내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제(wave offering)

요제는 제물을 흔들며 드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요제로 드리질 제물을 손에 들고서 앞으로 뒤로 흔들기도 하고 또 위에서 아래로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흔들며 드리지는 방법이었기에 요제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레 23:20]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지는 성물이기 때문에 모든 제물이 제사장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요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요제 제물을 들고서 제단 앞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뒤로 가져오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거제(heave offering)

거제 역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거제는 요제와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거제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제물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요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제물을 취하는 것이나 정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제사 후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은 언뜻 비슷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거제야 말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먹이시기 위해 제정하신 제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루마>입니다. 이는 '거제물'을 뜻하는데 '넓적다리'나 '어깨'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들은 거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마음 속에는 '아~ 넓적다리'라는 생각으로 드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제사장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겠는가?' 싶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레위인으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제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제는 고기 뿐만 아니라 소산물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레위인들을 고기와 소산물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양식이 되는 거제물은 고스란히 레위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민 15: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 15:1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
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민 15:19] 그 땅의 양식
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민 15:20]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민 15:21]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
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제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주어집니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
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일부를 거제
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전제(drink offering)

전제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제는 다른 방법과는 매우 독특하게 포도주를 붓는 방식으로 드리집니다.

"[민 15:5]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힌의 사분 일을 예비할 것이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떡상)에는 떡만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포도주를 담은 병(jar)이 있었고 술을 따르는 '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출 25:29]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후 순금으로 만들며 [출 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상에서는 전제 의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전제 의식은 독자적으로 드리지기 보다는 소제나 번제와 같은 제사와 함께 곁들여져 드리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온전히 목숨을 버리겠다는 서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제 의식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전제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포도열매가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갈아지면서 포도

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자기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포도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 2: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제 3 장 : 절기제사의 종류

상번제(regular burnt offering)

"[민 28:3]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민 28:4]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민 28:5]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뿔아낸 기름 힌 사분지 일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민 28:6]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민 28:7]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민 28:8] 해 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백성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수양을 상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화제로 드려졌습니다. 화제로 드려질 때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는 레위기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번제의 형태였습니다.

화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는 고운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뿜아 낸 기름 힌 사분지 일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5절). 고운 가루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곳에 기름을 섞는 것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상한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렸습니다(7절). 독주는 세상의 것이지만 이 독주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보다 정결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드리진 소제와 전제는 화제와 함께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안식일 제사(offering of the sabbath day)

"[민 28:9]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민 28:10]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
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안식일에 대한 제사 규정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다가 안식일의 제사까지 더해서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대략 상번제의 2배 정도의 제물을 드리게 되
었습니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린 수양 두 마리와 기름섞
은 고운가루 십분의 이 에바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는 평일에 드려지는 제사보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사는 더 특별
하고 더 헌신적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삭 제사(offering of the new moons)

"[민 28:11]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민 28:12]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삼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민 28:13]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곱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민 28:14]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힌이요 수양 하나에 삼분지 일 힌이요 어린 양 하나에 사분지 일 힌이니 이는 일 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민 28:15]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월삭'은 음력 초하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달의 첫째날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가지 달력을 사용했는데 종교력과 함께 민간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력과 민간력은 달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는 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교력의 시작은 1월이고 민간력의 시작은 7월로 다를 뿐입니다.

이 월삭에는 매일 행하는 상번제 외에 세 종류의 번제물이 함께 드려졌는데 각 번제물마다 소제와 번제가 첨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 송아지(bullock)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3/10 에바(Ephah)의 소제와 포도주 1/2힌(Hin)의 전제가 드려졌으며 '수양(ram)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2/10 에바의 소제와 포도주 1/3힌 전제가 드렸습니다. 또한 '어린양

(lamb)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1/10에바의 소제와 포도주 1/4헌의 전제가 드려졌습니다. 거기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졌습니다.

월삭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던 것은 지난 달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월절 제사(passover offering)

"[민 28:16] 정월 십사일에는 여호와와의 유월절이며 [민 28:17] 또 그 달 십오일 부터는 절일이니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민 28:18]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매일드러지는 제사, 안식일의 제사, 월삭의 제사 외에도 유월절과 무교절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외에 오순절(맥추절, 칠칠절)과 초막절의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고 싶어하십니다.

'유월절'은 정월 십사 일에 드려졌습니다. 이는 종교력의 첫 달인 아빔월에 이뤄졌습니다. 양력으로 계산했을 때 3-4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출 12장 참조).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절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장자가 구원받았던 그 날 저녁이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서둘러 출애굽하여 광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출 12:30]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출 12:31]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출 12:32]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출 12:33]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출 12:34] 백성이 밧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곧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에 가졌지만 무교절은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 첫째날(1월 15일)과 마지막 날(1월 21일)인 제칠일째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유월절로 모인 날에는 각 가정마다 어린양을 잡아 가족끼리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무교절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조석간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월삭때 드리는 제물과 같이 드려야 했습니다.

"[민 28:19]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민 28:20]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를 드리고 [민 28:21]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8:22]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민 28:23]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 28:24] 너희는 이 순서대로 칠 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민 28:25] 제칠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제사(pentecost offering)

"[민 28:26]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칠절'은 밀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월절 이후의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일곱번째 안식일을 마친 다음날 주일에 지켜졌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명절에 해당됩니다.

칠칠절(오순절, 맥추절) 역시 무교절 첫째날과 마지막 날처럼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칠칠절(오순절, 맥추절)은 성령강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무교절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무교절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강림 사건이 오순절 절기 때에 이뤄졌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오순절과 영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제물은 월삭 때 드리는 제물과 동일합니다.

"[민 28:27]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민 28:28]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8:29]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8:30] 또 너희를 속
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민 28:31]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나팔절 제사(offering of the feast of trumpets)

"[민 29:1] 칠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종교력의 7월(티스리월)은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신년을 의미합니다. 이 신년날에 나팔을 불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절 날에 성회로 모이게 하셨으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삶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년이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삶 또한 우리를 새롭게 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새롭게 살지 못하게 붙잡는 것들을 향해 과감하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팔을 불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팔절 때의 번제제물이 수송아지 한 마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월삭 때의 번제제물과 동일합니다. 번제제물과 함께 드려졌던 소제와 전제의 양은 번제물의 등급에 따라 비례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절기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 29:2]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민 29:3]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4]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5]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민 29:6]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소제도 함께 드려졌는데 수송아지, 수양, 어린양에 따라 각각 소제의 양과 전제의 양이 달랐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표로 설명하였습니다.

번제물	소 제	전 제
수송아지	고운 가루 3/10 에바	포도주 1/2 힌
수 양	고운 가루 2/10 에바	포도주 1/3 힌
어 린 양	고운 가루 1/10 에바	포도주 1/4 힌

나팔절(7월 1일) 때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모두 세가지 것이 중복되었습니다. 매일 드려졌던 상번제의 희생제물과 월삭의 희생제물과 나팔절의 희생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 때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수송아지 3마리(나팔절 1, 월삭 2), 수양 2마리(나팔절 1, 월삭 1), 어린양 16마리(나팔절 7, 월삭 7, 상번제2), 속죄제 수염소 2마리(나팔절1, 월삭1)입니다.

나팔절 때에도 염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이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신년제사에도 속죄제 의식을 집행했던 것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일 제사(offering of the Yom Kippur)

"[민 29:7] 칠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민 29:8]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민 29:9]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10]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1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종교력 칠월 십일(7월 10일)은 민간력으로 1월 10일에 해당됩니다. 이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일년에 한 차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 중 이 날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다른 제사 때보다 훨씬 중요한 성회였습니다.

특히 대속죄일 때는 "마음을 괴롭게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이니템>인데 이는 '거칠게 다르다', '억누르다', '겸손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자신의 모든 세상의 정욕을 억누르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된 자신을 거칠게 다루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애통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 51:17]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나팔절 때와 같습니다. 또한 번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와 전제의 양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속죄일 때는 백성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물이 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 때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물과 함께 드려졌던 소제와 전제물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백성을 위해 드려졌던 수송아지와 수염소가 있었으며,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번제물과 함께 드려진 수염소 속죄제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장막절 제사(offering of the feast of tabernacle)

"[민 29:12] 칠월 십오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 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내용은 초막절에 관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 했던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총 8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이 때는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서 수확되어진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기도 해서 '수장절'(the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막절 총 8일 동안의 제사는 서원제, 낙헌제, 속죄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다른 절기보다 훨씬 다양한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첫날에 드려지는 수송아지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한 마리씩 적어졌습니다. 첫날은 수송아지가 13마리 드려졌는데 2일째는 12마리, 3일째는 11마리가 드려졌고 점점 그 수가 적어져서 7일째는 수송아지 7마리가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수양 2마리와 어린 수양 14마리가 똑같이 드려졌습니다.

제 8일째는 거룩한대회로 모여졌습니다. 7일동안은 각 가정마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8일째는 거룩한대회로 함께 모여서 초막절 마지막을 장식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 8일째 성회를 마치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째는 매우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규모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때 드려진 것과 같았습니다.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 어린양 7마리가 드려졌고,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가 드려졌습니다. 또한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도 어린양 2마리가 드려졌습니다.

초막절 때 드려졌던 제사의 형식은 서원제, 낙헌제, 속죄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고백을 담은 제사입니다. 낙헌제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제사와 감사제사를 포함하여 '화목제'에 해당됩니다.

"[민 29:39]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민 29:40]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제사에 대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제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쁜 시대라고 해서 제사가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제사는 매일 드려져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상번제도 오늘날에 지켜져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마다 지켜졌던 제사도 오늘날 지켜야 할 예

배입니다. 매달 첫날에 드려졌던 월삭도 지켜야 할 예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과 같은 절기처럼 여러 예배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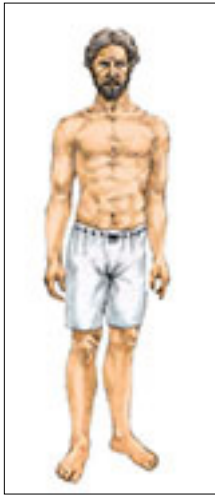
5 부

/

제사장은 누구인가?

제 1 장 : 제사장의 의복

고의(linen breeches)



하나님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위해 베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의 하체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출 28:42] 또 그들을 위하여 베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다른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고의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어떻게 만들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제사장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의의 길이가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체를 정결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더군다나 고의는 음욕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서 고의를 벗어야만 음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대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고의를 제작해서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 28:43]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나가 섬길 때 반드시 고의를 입게 하셨습니다. 만일 고의를 입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고의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오직 음행만큼은 몸 안에서 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음행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창조의 능력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6: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은 세마포로 고의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고의에 사용된 세마포는 베실이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포(linen)로 만든 것입니다. 아마포는 그 재질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결코 음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질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출 39:28]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베실로 짜서 세마포 고의들을 만들고"

속옷(tunic)



속옷 역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어야 했던 옷이었습니다.

"[출 28:39] 너는 가는 베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베실로 관을 만드고 띠를 수 놓아 만들지니라"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입었던 속옷은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오며 길이는 발꿈치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이 속옷 역시 가는 베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속옷이 세마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의 옷은 속옷에서 끝이 납니다. 제사장은 속옷만 입고서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속옷이 통으로 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헐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띠를 만들어 속옷이 헐렁거리지 않게 하셨으며 제사장은 속옷 차림으로 의식을 집행해야만 했습니다.

"[출 28: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출 28:41]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이 속옷차림으로 의식을 집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한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그 어떤 사람도 속옷 차림으로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제사장으로 하여금 속옷 차림으로 제사를 집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속옷 차림으로 일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속옷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맘 놓고 성막을 떠나 세상과 접하고 싶어도 속옷 차림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성막을 찾아온 사람은 속옷 차림의 제사장을 보겠지만 오히려 속옷 차림의 제사장이 흉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흰색 베실로 짜여진 속옷을 입고 일을 해야만 했기에 피묻은 짐승의 각을 운반하거나 번제단에 피를 부을 때에 속옷이 더럽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옷에 비해 훨씬 빨리 더럽혀지고 훨씬 더러움이 눈에 잘 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제사장의 옷을 흰색 베실로 만들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조금만 죄를 범해도 금방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의 죄도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믿는 기독교인들은 오직 깨끗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속옷과 고의를 입기 전에 먼저 몸을 씻으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고의와 속옷이 거룩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먼지를 털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후에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레 16:4]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띠(sash)



이는 속옷 띠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오직 흰색 베실을 가지고 통으로 속옷을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의식을 집행하기에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속옷이 헐렁거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띠를 묶도록 하셨습니다.

"[출 39:29] 가는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 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흰색 베실로 짜여진 속옷과는 달리 띠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베실로 수를 놓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띠의 모습은 흰색 속옷과 잘 어울어졌을 것입니다.

"[출 28:39] 너는 가는 베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베실로 관을 만드고 띠를 수 놓아 만들지니라"

성경에는 제사장의 띠에 대해서 이렇다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례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띠가 길다는 것입니다. 가슴 주위로 띠를 두르고 남은 두 가닥의 띠가 속옷 길이처럼 길게 바

닥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집행해야 하는 제사장에게 이러한 띠가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슴에 띠를 묶었기 때문에 띠를 고정하는 도구가 없이는 금새 흘러 내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은 몸을 많이 움직여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슴에 띠를 묶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허리에 띠를 묶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띠를 묶게 될 경우엔 띠가 흘러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띠를 묶는 용도가 속옷을 헐렁거리지 않게 하며 제사장으로 하여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에 묶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띠가 속옷 맨 밑까지 길게 늘어놓았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늘어진 띠는 작업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짧은 띠가 훨씬 부담도 적고 일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오늘날 허리띠처럼 짧은 띠가 훨씬 좋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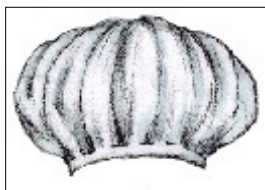


제사장에 비해 훨씬 일을 적게 하는 대제사장의 경우엔 예뻐 보이는 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찻습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허리에 매어진 띠는 짧은 것이었습니다. 일을 적게 하는 대제사장의 띠는 짧고 허리에 매져 있지만 일을 많이 하는 제사장의 띠는 길고 가슴에 매어져 있다는

것이 다소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관(turban)

"[출 28: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는 '관'이 머리에 씌어졌습니다. 관을 쓰고서 의식을 집행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관을 쓰게 하신 이유는 정성을 다

해 제사를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관을 쓰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제물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관을 쓰고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정성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성어린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제사장의 관과는 달리 대제사장의 관에는 정금으로 만들어진 패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씌어졌습니다. 그 패는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습니다. 관 전면에 부착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여호

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 39:30]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출 39:31]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만큼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금패를 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 성결'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내 보일 것은 오직 '여호와께 성결'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겔옷(the robe of the ephod)

겔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겔옷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하는 옷이었습니다. 겔옷은 에봇 받침용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의식을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겔옷만 입었지만 의식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겔옷 위에 에봇을 겹쳤습니다.

"[출 28:31] 너는 에봇 받침 겹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
 되 [출 28:32]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하고
 [출 28:33]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
 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출 28:34]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출 28:35]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
 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겹옷은 속옷처럼 통으로 짠 옷입니다. 특
 별히 하나님은 겹옷의 목 부분이 찢어지거
 나 헤이지 않게 하기 위해 목 테두리로 돌
 아가면서 깃을 짜서 튼튼하게 제작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겹옷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아 만든다음 그
 곳에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었는데 석류와
 석류사이에 금방울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
 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금방울
 을 가장자리에 달리게 하신 이유는 지성소
 에 들어갔을 때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
 면 죽은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금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음을 의미한 것처
 럼 우리도 금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금방울 소리는

하나님의 경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행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은 언제 들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긴장된 삶은 곧 경건한 삶이 됩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게 될 때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에봇(ephod)

"[출 39:1]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출 39:2]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출 39:3] 금실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출 39:4]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출 39:5]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붙여 짚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



성이 에봇을 입고 싶다고해서 만들어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교만하여져서 '금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가게 했습니다.

"[삿 8: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에봇을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드신 것은 에봇은 거룩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금실을 얇게 쳐서 올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짚습니다(출 39:3).

에봇에는 에봇 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날의 허리띠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재질은 에봇의 재질과 같았습니다. 에봇띠는 에봇과 붙어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에봇에는 어깨에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였으며 에봇 띠를 만들어 에봇에 붙어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옷에는 견대가 달려 있었습니다. 견대에는 호마노 보석 두 개를 달았는데 그곳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연치대로 각각 여섯 이름씩 보석에 새겼습니다. 한쪽 보석에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가 새겨졌으며 다른 한쪽 보석에는 갓, 아셀, 잇사갈, 스블론, 요셉, 베냐민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출 28:9] 호마노 두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출 28:10]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출 28:11]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출 28:12]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하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의 에봇 견대에 이스라엘 이름을 모두 새기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판결 흉패(breastpiece of judgement)

"[출 39:8]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

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하였으니 [출 39:9]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 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출 39:10]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출 39:11]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출 39:12]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출 39:13]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테에 물렸으니 [출 39:14]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인을 새김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하나님은 판결 흉패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흉패는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베실에 금실을 섞어 공교히 만들었습니다. 판결 흉패의 크기는 가로가 한 뼘이고 세로가 한 뼘으로써 대략 가로 세로 대략 20cm x 20cm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12개의 보석이 장식되었습니다. 보석은 모두 네 줄 보석으로 물렸는데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녹주옥으로 만들어졌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로 만들어졌으며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으로 만들어졌고 마지막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견대에 이름이 적인 방법대로 이곳에서도 연장자 순서대로 이름이 나열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연장자 순으로 이름이 기록되었

다면 맨 윗 줄에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이고 둘째 줄에는 유다, 단, 납달리가 기록되었을 것이며 셋째 줄에는 갓, 아셀, 잇사갈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이며 마지막 넷째 줄에는 스블론, 요셉, 베냐민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의 진을 이루는 지파별로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첫째 줄에는 유다, 잇사갈, 스블론이 기록되었을 것이고 둘째 줄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이 기록되었을 것이며 셋째 줄에는 에브라임, 마낫세, 베냐민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이고 마지막 넷째 줄에는 단, 아셀, 납달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홍패는 오직 대제사장의 의복에만 부착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셨으며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천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 21: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 21: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천국의 거룩한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스라

엘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사도요한은 보았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12개의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생명수를 마시지 못합니다. 그만큼 12개의 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 39:15]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땡아 흉패에 붙이고 [출 39:16] 또 금테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출 39:17] 그 두 땡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매었으며 [출 39:18] 그 땡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테에 매고 [출 39:19]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출 39:20]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에봇 띠 윗편에 달고 [출 39:21]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은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붙이도록 하셨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판결 흉패를 에봇에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부착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금사슬을 노끈처럼 땡아 만들어 흉패에 붙이고 흉패 두 끝에 만들어진 금고리 둘에 꿰어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 윗쪽

은 에봇의 어깨 견대 금테에 연결시키고 아래쪽은 청색끈으로 에봇 허리띠에 연결시켰습니다.

우림과 둠림(Urim and Thummim)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림을 가슴에 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계시

를 알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찌니라” (출애굽기 28장 30절)

우림과 둠림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걸쳤던 판결흉패 안에 집어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림(Urim)과 둠림(Thummim)에 대해 성경은 그 어떠한 지식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림과 둠림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우림과 둠림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림>과 <툼림>입니다.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 음역을 드래도 음역해서 기록했고 우리나라 성경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우림>은 '불꽃들'이란 '불꽃'의 복수를 의미하고 <툼림>은 '완전함' '성실함'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림과 둠림의 역할이 무용지물이었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때부터는 적어도 포로시대 이전까지에 걸쳐 우림과 둠림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 때 우림과 둠림을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 27: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좇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처럼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으며 그 외에 우림과 둠림을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도 우림과 둠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습니다.

"[삼상 28:6]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

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
시므로"

이처럼 우림과 둠뭇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탈무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요청하면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뭇을 가슴에 품고서 "예" 혹은 "아니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번에 한가지씩만 요청해야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예, 혹은 아니요"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던지 아니면 가슴에 품은 우림과 둠뭇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방법에 의해 긍정적인 답과 부정적인 답을 알 수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림과 둠뭇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려는 그들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던 구약시대에 비해 너무나 축복된 시대입니다. 특별히 성령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약시대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림과 둠뭇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도구가 없을 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 2 장 : 제사장의 부르심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레 8: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레 8:3]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위임식을 가질 때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삼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이는 결혼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나아가 온 백성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40일 광야시해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자신

뜻대로 사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허락 받은 후에 비로소 사람들 앞에서 사역자로 세워졌음을 증거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먼저 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레 8: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가장 먼저 물로 씻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결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숫양의 머리에 직접 안수했습니다

"[레 8:22]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
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제사장은 위임식을 거행할 때 사용된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저들 스스로 짐승이 되어 죽여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의미를 갖

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아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내 남편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피가 발라졌습니다

"[레 8:23]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레 8:24]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수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수양의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수양의 피를 발랐던 장소는 세 군데입니다.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입니다.

모세가 이 세 군데에 피를 발랐던 것은 보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 귓부리에 피를 바른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른손 엄지가락에 뿌리는 것은 세상을 위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오른발 엄지라각에 피가 뿌려진 것은 세상에 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의 백성은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으며 세상에 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관유가 발라졌습니다

"[레 8:30]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는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관유와 피를 뿌림이 저들을 거룩하게 하고 저들의 옷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관유와 피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때문입니다. 관유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상징합니다.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임하고 주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누구든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임하고 보혈이 뿌려질 때 악한 세력이 저들을 침범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유와 피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이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주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

며 우리로 하여금 기록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위임식 기간동안 회막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레 8:33]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레 8:34]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레 8:35]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레 8:36]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제사장은 7일 동안 회막문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회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에는 성막뜰이 있어서 바깥 공기를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어느정도 있지만 회막은 그야말로 꼭 막혀있는 공간입니다. 불과 20규빗과 20규빗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다보니 매우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5미터 x 5미터 크기의 공간이기때문에 아론과 아들들이 함께 하기엔 너무나 협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절대로 회막문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저들이 회막문 밖으로 나갔다면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지 않는 세

상의 불을 번제불로 사용하다가 불태워죽임을 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셨을 것입니다.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7일 동안 회막 안에 거하게 명하신 것은 저들이 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습니 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처럼 제사장들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의 명을 그대로 지켰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름부어 세워진 사역자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명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였 듯이 사역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

향하였기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던 것입니다.

'다른 불'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제작된 불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의 향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른'이라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는 <주르>입니다. 이 <주르>라는 단어는 '모르는 혹은 낯선 사람'을 뜻하며 '창녀'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세상의 방법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레 10: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10:9]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회막에 들어가 의식을 수행할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평소에 제사장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나 독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제사장도 있었겠지만 포도주나 독

주를 마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서 회막에 들어가 의식을 수행할 때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 분향불로 사용했을 때 죽임을 당하였는데 어찌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함부로 의식을 수행하다가 그런 죽임을 당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강하게 명하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의식을 수행할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취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정욕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드러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레 10:10]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 뿐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결함은 세상에 서의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속된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며 부정한 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하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되고 부정한 것들이 우리를 거룩치 못하게 하고 정결치 못하게 합니다.

"[민 8:6]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민 8:7]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레위인을 정결케 하되 속죄의 물로 먼저 그들에게 뿌린 후에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고 아론으로 하여금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영육간의 정결함을 취하였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먼저 영육간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육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정욕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민 8:11]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민 8:12]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

인을 속죄하고 [민 8:13]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민 8:14]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민 8:15]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라 명하신 것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봉사케 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아론은 먼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레위인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런다음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정결의식을 모두 치룬 다음에서야 저들은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초태생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민 8:18]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초태생을 대신하여 레 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모든 장자를 살리셨기때문에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출 13:15] 그 때에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모든 초태생, 즉 사람의 처음 난 장자와 가축의 처음 짐승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이러한 초태생의 법은 구약시대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초태생의 법까지 모두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태생의 몫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태생을 드

려야 합니다.

십일조가 초태생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것의 십분의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열 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를 돌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태생의 법을 십일조로 모두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십일조 조차 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물이라 여기고 성령 안에서 십일조까지 자유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십일조는 십일조이며 초태생의 법은 여전히 초태생의 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 18:26]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민 18:27]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민 18:28]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민 18:29]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거둬드린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시면서 레위인들도 십일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둬 드리셨고 그것을 아론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까지도 모두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십일조를 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일조 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심지어 십일조를 가리켜 구약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로부터 받은 십일조의 십일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하나님께 십일조로 드려진 헌금이 기때문에 그 헌금에 대한 십일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일조의 십일조를 내도록 강요하십니다.

십일조는 구약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시대에만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전해지는 법입니다. 십일조를 구약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일조 내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재물을 계산할 때 10의 5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십일조가 아닌 십오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십일조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헌금만 남 눈치 보면서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었기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 중에서 일부만 받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때문에 우리는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 18:29]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민 18:30]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민 18:31]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민 18:32]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십일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친 후의 나머지 것들을 자유스럽게 사용토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31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지파는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 백성의 바친 십일조로 저들에게 주었던 것입니

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도의 십일조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바쳤고 하나님은 성도의 바친 십일조를 가지고 목회자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이것이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기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회막에서 일한 보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마땅히 성도의 헌금으로 먹고 사는 목회자는 회막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회막은 성도의 죄를 깨끗이 하는 곳입니다. 회막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장소입니다. 회막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목회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십일조와 헌물

십일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십일조는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일조 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지 말아야 합니다. 싫어하면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오히려 내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결한 헌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기 싫으면서 억지로 헌금하는 경우는 상한집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헛된제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올 헌물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원하며 드리는 헌물의 귀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본인이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것입니다.

다.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일조와 헌물은 축복과 연관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에 관하여 정하신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물이 없어도 전혀 사시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물이 필요해서 거둬드리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내기 싫습니까? 그러면 내지 마십시오. 정말로 심각하게 말씀 드립니다. 절대로 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심은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생각하십시오. 그것마저 믿지 못하시겠거들랑 신경쓰지 마십시오. 심은대로 거두는 것도 그 말을 믿는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일조 내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하늘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나의 경우엔 수도 없이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목격했습니다. 십일조는 힘든 율법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분명합니다.

윗 구절에서 "나를 시험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

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지 시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의한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우리의 가진 물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어떠한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야 합니다. 눈에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들이 십일조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불평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린 십일조와 헌물 뒤에 따라오는 축복을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불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기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십일조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십일조를 거두어서 모두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십일조를 받아 그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민 18: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거둬들인 십일조를 모두 레위인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을 배불리 먹이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는 풍성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각 지파마다 땅을 차지하였고 그 땅의 거한 성읍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위지파는 아무런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11지파로부터 분배받은 48개의 성읍이 전부였습니다. 그 성읍조차도 레위인들이 마음대로 팔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그 성읍이 없어진다면 거할 처소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거둬드린 십일조를 모두 기업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인들도 십일조를 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

들이라 할지라도 십일조를 내게 하셨습니다.

"[민 18:26]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십일조를 내게 하신 것은 십일조가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물질은 저들의 소득의 1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들은 십일조가 아니라 십오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들은 십일조를 포함하여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소를 갖다 바치고 양이나 염소를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되었으며 안식년에도 땅을 경작하면 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년 때에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 줘야 했고 모든 빚을 탕감해줘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헌금은 십오조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금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며 저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약해질 때에 어김없이 외세의 침입은 끊이지 않았고 저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3 장 :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제사장의 시작

성경에서 가장 처음 제사장이란 단어가 언급된 것은 창세기 14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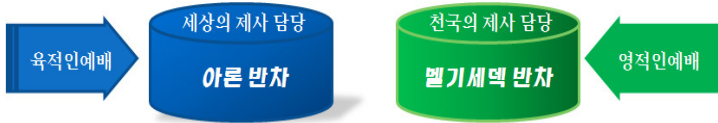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
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아론의 제사장과 구분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이 이 땅에서의 제사를 담당하였다면 멜기세덱은 천국의 제사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 제사를 수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멜기세덱



성경에서 비밀에 감춰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약간 언급되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약간 허락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창세기는 멜기세덱에 대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 14:8)고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은 ‘살렘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창 14:7)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며 '평강의 왕'입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살렘'이라는 뜻이 '평화'입니다. '살렘'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만 이 도시는 현존하는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천국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실존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히 7:3)고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이 땅의 혈육관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히 7:6)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전의 제사는 레위 족속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모세도 레위 족속이었으며 아론도 레위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멜기

세텍은 레위 족보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뿔기세텍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뿔기세텍은 레위 족보와 연관이 없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는 뿔기세텍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히 7:10)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뿔기세텍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히 7:11)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에서 제사 의식을 집행했던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지파를 통해 집행되는 모든 의식들이 충분한 것이고 온전케 하는 것이었다면 왜 뿔기세텍의 반차를 좇는 또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위한 성막 의식이 필요한 것처럼 천국의 성막 의식에 필요한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막 의식은 레위지파에 의해 집행되었지만 저 천국의 성막 의식은 레위지파를 통해 할 수 있지 아니하고 오직 뿔기세텍 반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비밀스럽고 알려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천국의 성막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뿔기세텍 반차에 의한 천국 성막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고전 3:16). 우리 몸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고후 6:16)

우리 몸이 성전이므로 날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막 의식을 뿔기세텍 반차에 따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시대에는 아론의 반차에 따라 의식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전은 육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뿔기세텍 반차에 따른 성전의식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영적으로 성전의식을 집행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그곳은 천국이 될 것이고 그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며 성전의식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지와 반차와 뿔기세텍 반차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뿔기세텍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히 6:20)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뿔기세텍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히 9:11-12)고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피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히 10:19-20)인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레위지파가 성막의 일들을 담당하였지만 오직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가능했습니다.

"[출 28:1]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

하게 하되"

제사장의 결혼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결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율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는 성막의 제사장 직분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레 21:7]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기생은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합니다. 부정한 여인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 함은 하나님이 금하신 성관계를 행한 여인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더러운 성관계를 맺은 여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레 21:14]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죽은 시체 곁에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시체는 부정하기 때 문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일반적인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의 부모, 자녀,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들의 죽음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셨습니다.

"[레 2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 21:2]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레 21:3]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 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나 대제사장의 경우는 제사장과 달라서 친부모의 시신조차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레 21:11]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대제사장은 친자식이 죽어도 슬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불을 사용하다

가 불이 그들을 삼켜 죽임을 당하였을 때 모세는 아론으로 하여금 슬퍼하지 말라 명하였습니다.

"[레 10:6]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와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와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죽음을 슬퍼하여 삭발하거나 수염을 깎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인데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레 19:28]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사장을 성별하는 신체 규정은?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사장을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몸에 어떠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레 21:21]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
은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흠에 대해 12가지 내용을 언급하
셨습니다. 소경이나 절뚝발이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코
가 불완전한 자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코가 불완전한 자는
코가 문들어졌든지 정상적인 코의 모습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지
체가 더한 자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불알이 세 개가
있다든지 손가락이 여섯 개가 있다든지 지체 중 뭔가 더해진 비정
상적인 신체를 말합니다.

또한 발이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진 자도 제사장의 자격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곱사등이나 난장이도 제외 되었으며 눈에 백막이 있
는 자도 제외 되었습니다. 눈에 백막이 있는 사람은 눈에 이상이 있
는 사람이나 각막이 부형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사람도 제외 되었습니다. 괴혈병은
옴같은 피부병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버짐 역시 피부병을 의미합
니다. 또한 불알 상한 자도 제외 되었습니다. 불알이 하나밖에 없
는 자이거나 사고로 인해 불알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자는 제
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레 21:18]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
한 자나 [레 21:19]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레
21:20]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
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레 21:21]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
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아와 하
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아론의 자손 중에 신체적 결함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
한 자라 할지라도 지성물이나 성물을 나누어 가질 수는 있었습니
다.

"[레 21:22]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
이든지 먹을 것이나 [레 21:23]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
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의식을 집행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신 33:10]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
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
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

과 율법을 일상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뿌리깊게 내려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과 해서 는 안 될 일을 구분케 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했으며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들을 격려 하기도 했습니다.

613개 율법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계명과 규례 와 법도'의 합친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 법'은 '믿음'과 더불어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을 통해 영적인 의 로움이 주어지지만 '율법'을 통해 육적인 의로움이 주어집니다. '율법'을 통해 먼저 육 적인 의로움을 얻고서 비로소 '믿음'을 통해 영적인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유대인 랍비였던 마이모니데스(Maimonides)가 최초로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분류하였습니다. 하지만 꼭 613개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613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 명은 248개이며,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은 365개이다. 248 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 부분의 총합이라고 한다. 365 숫자는 1년 365일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1-3)

1.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
2.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창 17:10).
3.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된다(창 32:32).

출애굽기(4-114)

4.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출 12:2).

5.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니산 월 14일 오후에 흠이 없는 1년된 수양이나 숫염소를 잡아야 한다(출 12:5-6).
6. 유월절 양으로 바친 제물은 니산 월 15일 밤에 먹어야 한다(출 12:8).
7. 유월절에 먹는 양고기는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된다(출 12:9).
8. 유월절 양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된다(출 12:10).
9. 유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출 12:15).
10. 누룩없는 떡(무교병)을 니산 월 15일에 먹어야 한다(출 12:18).
11. 유월절 기간동안에는 누룩으로 만든 떡을 먹어서는 안된다(출 12:19).
12. 유월절에는 조금이라도 누룩이 섞인 떡을 먹지 말라(출 12:20).
13. 변질한 유대인이나 이교도들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출 12:43).
14.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도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출 12:43).
15. 유월절 희생 양의 고기는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출 12:46).
16. 양고기의 뼈를 꺾어서는 안된다(출 12:46).
17.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출 12:48-49).
18. 처음 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출 13:2).
19. 유교병(누룩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된다(출 13:3).
20. 유월절 이레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이나 누룩을 다 없애야 한다(출 13:7).
21.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출 13:8).
22. 나귀의 첫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출 13:13).
23. 나귀를 양을 통해서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한다(출 13:13).
24.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의 한계에 관한 규정(출 16:29).
25.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출 20:2).
26.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출 20:3).
27. 우상을 만들지 말라(출 20:4).
28.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출 20:5).
29. 우상을 섬기지 말라(출 20:5).
30.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된다(출 20:7).
31. 안식일을 기억하라(출 20:8).
32. 안식일에는 가족이나 종이나 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된다(출 20:10).
33.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34. 살인하지 말라(출 20:13).
35. 간음하지 말라(출 20:14).
36. 도적질하지 말라(출 20:15).
37.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 20:13).
38. 탐내지 말라(출 20:17).
39.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못한

다" (출 20:23)

40. 제단을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는 안된다(출 20:24-25).

41. 제단에 올라가는 층계를 놓아서는 안된다(출 20:26).

42. "히브리 종은 일곱째 되는 해에 자유케 하라"(출 21:2).

43. 종의 보호에 관한 규정

44. 주인이 아내로 취하려고 산 여종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녀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출 21:8).

45. 그녀를 다시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출 21:8).

46. 여종을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녀를 딸처럼 대하여 한다(출 21:9)

47.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출 21:12).

48.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출 21:15, 17).

49.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규정(출 21:18-19).

50. 종을 상해하거나 죽였을 경우에 관한 규정(출 21:20-21)

51. 소가 받아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관한 규정(참조. 출 21:28-32, 35-36)

52.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 관한 규정(출 21:28-32, 35-36)

53. 구덩이에 짐승이 빠진 경우에 관한 규정(출 21:33-34)

54. 도둑에 관한 규정(출 22:1-4)

55. 남의 농작물을 가축이 뜯어먹은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5)

56. 불을 내서 이웃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6).

57. 보관물에 대한 규정(출 22:7 이하)

58.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9)

59. 말긴 짐승이 다치거나 없어지거나 죽거나 뺑수에게 물려 죽은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10-11)

60. 빌려 온 짐승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14-15)

61. 처녀를 꺾어서 건드린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16-17)

62.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 두어서는 안된다(출 22:18).

63.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출 22:21).

64.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출 22:21).

65. 과부와 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출 22:22-25)

66.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출 22:25).

67. 돈을 빌려주었으면 빚쟁이처럼 독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출 22:25).

68.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출 22:25).

69. 재판장에게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출 22:28).

70.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출 22:28).

71. 지도자들에게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출 22:28).

72. 첫 것을 바치는 것에 관한 규정(출 22:29-30)

73. "뜰에서 뺑수에게 쫓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출 22:31).

74.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출 23:1).

75.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된다"(출 23:1)

76.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된다" (출 23:2).

77.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된다(출 23:2).
78. 다수를 따라야 한다(출 23:2).
79.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된다"(출 23:6).
80.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집에 울려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내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출 23:5).
81.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출 23:6).
82.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출 23:7).
83.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된다"(출 23:8).
84. 안식년에는 농경지에 아무 것도 심어서는 안된다.
85.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된다.
86.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불러서도(기억해서도) 안된다(출 23:13).
87. 다른 신들의 이름은 입밖에도 내서도 안된다(출 23:13).
88.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출 23:14).
89.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을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된다"(출 23:18a; 34:25a).
90.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된다"(출 23:18b; 34:25b).
91.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 한다(출 23:19a; 34:26a).
92.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살아서는 안된다"(출 23:19b; 34:26b).
93. 팔레스타인의 7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된다(출 23:23).
94. 팔레스타인의 일곱 민족에 속한 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출 23:34).
95.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 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출 20:24).
96. "채들을 췌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출 25:15).
97. "그 상은 언약케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출 25:30).
98. 증거케 앞에 쳐 놓은 휘장 밖에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밤에는 늘 켜 두어야 한다(출 27:21).
99.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규정(출 28:2)
100. 가슴받이가 예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출 28:28).
101. 대제사장이 입을 옷은 목을 위하여 파 놓은 구멍의 둘레를 찢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출 28:32).
102. 제사장만이 속죄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출 29:33).
103.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워야 한다(출 30:7-8).
104. 분향단 위에다가는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일 이외에는 어느 것도 해서는 안된다(출 30:9).

105. 회막 세금에 관한 규정(출 30:13)
106.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한다(출 30:19-20).
107. 성별하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정(출 30:25)
108. 성별하는 기름은 아무에게나 부어서는 안된다(출 30:32a).
109. 성별하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으로 똑같은 기름을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출 30:32b).
110. 사사로이 쓰려고 유향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향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출 30:37).
111. 우상숭배자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을 먹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출 34:15).
112. 안식일에는 밭갈이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에도 일해서는 안된다(출 34:21).
113.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된다"(출 34:26).
114.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된다(출 35:3).

레위기(115-361)

115. 번제(burnt offering 또는 holocaust)에 대한 규례(레 1장)
116. 곡식제물에 대한 규정(레 2장)
117. 곡식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 있어서는 안된다(레 2:11).
118. 모든 곡식제물에는 소금이 빠져서는 안된다(레 2:13a).
119. 어떤 제물에도 소금을 빼뜨려서는 안된다(레 2:13b).
120. 이스라엘 온 회중이 산헤드린의 잘못된 결정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4:13).
121. 개인이 실수를 한 경우에도 속죄제물을 바쳐야 한다(레 4:27-28).
122. 증인이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고 은닉하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레 5:1).
123. 속죄제물을 바쳐야 하는 경우
124. 새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면 그것은 다른 짐승을 제물로 가져온 경우와는 달리, 제물을 바친 사람이 잡지 않고 제사장이 직접 그것의 목을 비틀어서 잡아야 하는데, 이때 목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레 5:8).
125. 가난하여 속죄제물로 짐승이나 새를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밀가루를 바칠 수 있으나, 이때, 제사장은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는 안된다(레 5:11).
126. 또한 거기에 향을 섞어서도 안된다(레 5:11).
127. 제물을 바치다가 실수하여 죄를 범하면 바친 것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레 5:15-16).
128. 부정적인 계명(금지 계명)을 실수로 어긴 경우에도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레 5:17-18).
129.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의하게 취한 경우에 관한 규정(레 6:1-5).
130. 남의 물건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자는 모두 물어내야 한다(레 6:5).

131. 제단의 재에 대한 규례(레 6:10-11)
132.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져 있어야 한다(레 6:12).
133. 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된다(레 6:12).
134. 곡식제물을 드리고 난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레 6:16).
135. 제사장은 곡식제물에 누룩을 넣고 구워서 안된다(레 6:17).
136. 대제사장도 다른 사람들처럼 곡식제물로 밀가루를 드려야 하는데, 그는 매일마다 그래야 하며, 그것으로 아침 저녁 빵을 구워 바쳐야 한다(레 6:20 이하).
137.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한다. 그것은 다 태워 버려야 한다(레 6:23).
138. 속죄제물은 번제물을 드리는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레 6:25 이하).
139. 성소에서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제물도 먹어서 안된다(레 6:30).
140. 속건제물을 드릴 때의 규례(레 7:1 이하)
141.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물을 바치는 경우에는 빵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레 7:11-12).
142. 화목제물로 드린 것 가운데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 날로 먹어야 하며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된다(레 7:15).
143. 화목제물로 드린 것 가운데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바친 고기는 이틀째 되는 날까지 다 먹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까지 그 희생제물이 남아 있으면, 불살라야 한다(레 7:17).
144. 어떤 종류의 것이든(감사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 중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어서 안된다(레 7:18).
145. 어떤 종류의 화목제물이든 불결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레 7:19a),
146. 그리고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레 7:19b).
147. 동물의 기름기는 먹지 못한다(레 7:23).
148. 어떤 피든지 먹어서 안된다(레 7:26).
149. 제사장은 머리를 풀어서는 안된다(레 10:6).
150. 그는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도 안된다(레 10:6).
151. 제사장은 성전(성소에서 일하는 동안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레 10:7).
152. 제사장은 성전(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레 10:9, 11).
153. 빵에서 사는 짐승들 가운데 새김질을 하면서 동시에 굶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다(레 11:2-4, 7).
154.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등과 같이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굶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못한다(레 11:4).
155. 물 속에서 사는 동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레 11:9, 12).
156.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레 11:12).
157. 새 가운데서 먹지 말아야 할 것(레 11:13).
158. 곤충 가운데서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것들은 먹지 못한다(레 11:21).
159. 길짐승에 대한 규정(레 11:29 이하)

160. 요리가 된 젖은 음식에 죽은 길짐승이 닿으면 그것은 먹어서는 안된다(레 11:34).
161.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도, 그 주검을 만진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레 11:39).
162.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먹지 말아야 한다(레 11:41-42).
163. 과일이나 채소에 붙어사는 벌레는 먹지 말아야 한다(레 11:41-42).
164. 물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도 먹어서는 안된다(레 11:46).
165. 흙에서 생긴 벌레는 먹지 말아야 한다(레 11:44).
166. 산모의 정결 예식에 관한 규정(레 12:1 이하)
167.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레 2:6).
168.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 예식을 위해 바쳐야 할 제물(레 12:6-8)
169. 제사장이 나병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레 13:2).
170. 백선이 머리카락에 생긴 경우,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한자리를 아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레 13:33).
171.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하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레 13:45).
172. 천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생긴 경우에 관한 규정(레 13:47-59)
173. 악성 피부병이 나은 경우에도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한다(레 14:2, 3)
174. 악성 피부병이 나은 사람은 이레 후에 모든 털을 다 밀어야 한다(레 14:9).
175. 또한 그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레 175 계명: 레 14:9).
176. 악성 피부병을 고침 받은 사람이 바쳐야 할 제물(레 14:10 이하)
177. 건물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정(레 14:34 이하)
178. 성기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는 남자는 부정한 사람이며, 그와 접촉하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레 15:1-12).
179. 고름이 맺은 경우에는 정결례를 행해야 한다(레 15:13-15).
180. 남자가 실수로 정액을 흘린 경우에 관한 규정(레 15:16-18)
181. 월경에 관한 규정(레 15:19 이하)
182. 여자가 계속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여겨야 하며,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레 15:2 이하).
183. 그녀의 병이 다 난 다음에는 정결례를 행해야 한다(레 15:25 이하).
184. 보통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레 16:2).
185.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정(레 16 장).
186. 희생제물은 성전(성소에서)만 드려야 한다(레 17:3-4).
187. 짐승의 피는 땅에 묻어야 한다(레 17:13).
188. 가까운 살별이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레 18:6).
189. 아버지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레 18:7).
190.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레 18:7).
191.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레 18:8).
192.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 누이가 아버지의 딸이든지 어머니의 딸이든지 그녀를 범하면 안 된다(레 18:9).
193. 손녀나 외손녀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레 18:10).
194. 아버지가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레 18:10).

195. 딸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참조. 레 18:10).
196.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낳은 딸을 범해서는 안된다. 즉 배다른 누이를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1).
197. 고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2).
198. 이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3).
199. 숙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4).
200. 숙모의 몸을 범하는 것은 삼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레 18:14).
201. 며느리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5).
202.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6).
203. 데리고 사는 여자의 딸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7).
204. 데리고 사는 여자의 손녀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7).
205. 데리고 사는 여자의 외손녀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7).
206.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내의 형제들을 첩으로 데려다가 살아서는 안된다(레 18:18).
207. 여자가 월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녀와 동침해서는 안된다(레 18:19).
208. 자녀를 몰렉에게 바쳐서는 안된다(레 18:21).
209. 동성 연애 금지에 관한 규정(레 18:22)
210. 남자들은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된다(레 18:23).
211. 여자들도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된다(레 18:23).
212. 부모를 두려워하라(레 19:3).
213.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라(레 19:4).
214. 죄를 녹여 신상을 만들어서도 안된다(레 19:4).
215. 제물로 바친 것들은 그 날로 다 먹어야 한다(레 19:6).
216. 농작물이나 과수를 거두어들일 때 조금은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9-10),
217. 그것들을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된다(레 19:9-10).
218. 농작물을 거두어들일 때 조금은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9),
219. 그것을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된다(레 19:9).
220. 포도원의 포도를 조금은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10),
221. 그것을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된다(레 19:10).
222.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는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10),
223. 그것을 다 주워서 안된다(레 19:10).
224. 흠치지 말라(레 19:11).
225. 사기하지 말라(레 19:11).
226. 속이지 말라(레 19:11).
227.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레 19:12).
228. 이웃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레 19:13).
229.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레 19:13).
230. 품삯은 그날로 지불해야 한다(레 19:13).
231.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된다"(레 19:14).
232.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된다"(레 19:14).

233. 재판관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레 19:15).
234. 누구도 편들어서는 안된다(레 19:15).
235. 그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만을 해야 한다(레 19:15)).
236. "남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녀서는 안된다"(레 19:16a).
237.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레 19:16b).
238.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된다"(레 19:17a).
239. 이웃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를 타일리아 한다(레 19:17b).
240.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그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된다(참조. 레 19:17a).
241. 이스라엘 백성끼리 원수를 갚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레 19:18a),
242. 앙심을 품어서는 안된다(레 19:18a).
243.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레 19:18b).
244. 가축 가운데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된다(레 19:19).
245.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된다(레 19:19).
246. "할례 받지 못한" 과일에 관한 규정(레 19:23)
247. "거룩한 과일"에 관한 규정(레 19:24)
248. 피째로 먹어서는 안된다(레 19:26).
249. 점을 쳐서도 안 되며(레 19:26),
250. 마법을 써서도 안된다(레 19:26).
251.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아서는 안된다(레 19:27).
252. 구레나룻을 밀어서는 안된다(레 19:27).
253.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된다(레 19:28).
254.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레 19:30).
255.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에게 가지 말아야 한다(레 19:31).
256. 점을 치는 사람에게 가셔도 안된다(레 19:31; 20:6).
257. 어른을 공경하라(레 19:32).
258.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바른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레 19:35).
259. 그리고 정확하게 재야 한다(레 19:36).
260.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레 20:9).
261. 남자가 그의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면 그들은 모두 화형에 처해야 한다(레 20:14).
262. 이교도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레 20:23).
263. 제사장이 주검을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된다(제 263 계명).
264. 그러나 가족의 주검은 만질 수 있다(제 264 계명; 레 21:1-4).
265. 주검을 만져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제의적인 목욕을 한 뒤 그날 저녁에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레 21:6; 22:7).
266. 제사장은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된다(레 21:14-15).
267. 제사장은 부정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된다(레 21:7).
268. 제사장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된다(레 21:7).
269.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레 21:8).
270. 대제사장은 어떤 주검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된다(레 21:11).

271. 대제사장은 가족의 주검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된다(레 21:11).
 제 272 계명. 대제사장은 처녀와만 결혼해야 한다(레 21:13).
 273.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해서는 안된다(레 21:14).
 274. 대제사장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된다(레 21:14).
 275. 아론의 후손 가운데 몸예 (영구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없다(레 21:17).
 276. 일시적인 흠이 있는 제사장도 그것이 날 때까지는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참조. 레 21:17).
 277.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레 21:23).
 278.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참조. 레 22:2).
 279. 그는 성물(聖物)을 먹을 수 없다(레 22:4).
 280.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레 22:10).
 281.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품꾼도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레 22:10).
 282. 할례 받지 않은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참조. 레 22:10 이하).
 283. 제사장의 딸이더라도 여느 남자에게로 시집간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레 22:12).
 284. "테벨"(tevel)은 먹지 말아야 한다(참조. 레 22:16).
 285. 흠있는 짐승을 거룩하게 해서는 안된다(레 22:19).
 286. 모든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레 22:20-21).
 287. 제물에 흠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레 22:21).
 288. 흠이 있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는 안된다(레 22:22).
 289. 흠이 있는 짐승을 잡아서는 안된다(레 22:22).
 290. 흠이 있는 짐승의 내장을 불살라서는 안된다(레 22:22).
 291. 거세(去勢)해서는 안된다(레 22:24).
 292. 이방인이라도 흠이 없는 짐승을 바쳐야 한다(레 22:25).
 293.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난지 여드레가 지난 것이라야 된다(레 22:27).
 294. 제물로 짐승을 바칠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아서는 안된다(레 22:28).
 295.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레 22:32).
 296.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레 22:32).
 297. 유월절 첫날은 쉬어야 한다(레 23:7).
 298. 유월절 첫 날은 생업을 위하여 일해서는 안된다(레 23:7).
 299.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계속 번제를 드려야 한다(레 23:8).
 300. 유월절 기간중 이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쉬어야 한다(레 23:8).
 301. 그날은 생업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된다(레 23:8).
 302. 유월절 둘째 날에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여 바쳐야 한다(레 23:10).
 303. 첫 곡식 단을 바치기 전에는 거두어들인 곡식을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된다(레 23:14).
 304. 첫 곡식 단을 바치기 전에는 볶은 곡식도 먹어서는 안된다(레 23:14).

305. 또한 헛곡식도 먹어서는 안된다(레 23:14).
306.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 날부터 49일이 되는 때까지 매일매일 낱을 세어야 한다(레 23:15).
307. 오순절에는 헛곡식으로 만든 빵 두개를 바쳐야 한다(레 23:17).
308. 오순절에는 쉬어야 한다(레 23:21).
309. 오순절에는 생업을 위해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된다(레 23:21).
310. 새해 첫날(일곱째달 초하루)은 쉬어야 한다(레 23:24).
311. 새해 첫 날에는 일해서는 안된다(레 23:25).
312. 새해 첫날은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23:25).
313. 속죄일에는 금식해야 한다(레 23:27).
314. 속죄일에는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23:27).
315. 속죄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된다(레 23:28).
316. 속죄일에는 어떤 것도 먹거나 마셔서는 안된다(레 23:29).
317. 속죄일에는 쉬어야 한다(레 23:32).
318. 초막절 첫날에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레 23:35).
319. 초막절에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해서도 안된다(레 23:35).
320.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23:36).
321. 초막절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쉬어야 한다(레 23:36).
322. 초막절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23:36).
323. 초막절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생업을 위해 일해서는 안된다(레 23:37).
324. 초막절 첫날에는 좋은 나무에서 난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뭇가지, 껍 버들을 가져와야 한다(레 23:40).
325. 초막절 기간에는 이레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레 23:42).
326. 안식일에는 땅을 놀려야 한다(레 25:4).
327. 안식년에는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된다(레 25:4).
328. 안식년에는 저절로 열린 곡식들도 거두어 드려서는 안된다(레 25:5).
329. 안식년에는 저절로 열린 과실들도 거두어 드려서는 안된다(레 25:5).
330. 안식년을 일곱번 세어야 한다(레 25:8).
331. 속죄일에는 뽕나무를 붙여야 한다(레 25:9).
332. 50년째 되는 해(희년)를 거룩히 여기라(레 25:10).
333. 희년에는 심거나 거두어서는 안된다(레 25:11).
334. 희년에는 저절로 열린 포도를 거두어들여서도 안된다(레 25:11).
335. 희년에는 저절로 맺힌 열매를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들여서는 안된다.
336. 무엇을 사거나 팔 때에 부당한 이익을 남겨서는 안된다(레 25:14).
337. 속이지 말라(레 25:14).
338. 말을 함부로 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레 25:17).
339.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레 25:23).
340. 희년에는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레 25:24).
341.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에는 일년 안에는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지만, 일년이 지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희년이 되어도 집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레 25:29, 30).

342. 레위 사람의 땅과 집에 관한 규정(레 25:32-34).

343. 가난한 사람에게서 이자를 취해서는 안된다(레 25:36, 37).

344. 가난하여 종이 된 동족(同族)에 대해서는 노예 부리듯 해서는 안된다(레 25:39).

345. 동족인 종은 팔 수 없다(레 25:42).

346. 동족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된다(레 25:43).

347. 종이 가난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영원히 부릴 수 있다(레 25:46).

348. 이교도들에게 동족이 종으로 팔려 갔으면, 값을 치르고 그를 다시 되돌려와야 한다(레 25:53).

349. 조각한 석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된다(레 26:1).

350.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기로 서원해 놓고 돈으로 바치는 경우에 관한 규정(레 27:2-9).

351. 제물은 바뀌치기 할 수 없다(레 27:10).

352. 바뀌치기한 제물은 본래의 제물과 바뀌치기한 제물 둘 다를 드려야 한다(레 27:10).

353. 제물로 바치기로 했던 짐승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대한 규정(레 27:9-14).

354. 주께 바치기로 한 (또는 바친) 집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관한 규정(레 27:14).

355. 주께 바치기로 한 (또는 바친) 땅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대한 규정(레 27:16).

356. 짐승의 맘배 대신 더 좋은 것이라 하여 다른 것을 바쳐서는 안된다(레 27:26).

357. 주께 바친 것은 무를 수 없다(레 27:28).

358. 주께 바친 땅은 팔 수 없다(레 27:28).

359. 주께 바친 땅은 무를 수도 없다(레 27:28).

360. 가축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 관한 규정(레 27:32).

361. 십일조로 드려야 할 가축을 팔아서는 안된다(레 27:33).

만수기(362- 413)

362.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민 5:2).

363.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진을 더럽혀서는 안된다(민 5:3).

364. 남에게 잘못을 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민 5:6,7).

365.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관한 규정(민 5:12-28)

366. 아내의 간통을 밝히기 위해 바치는 제물에는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다(제 366 계명).

367. 그 제물에는 향을 엮을 필요도 없다(민 5:15).

368. 나실 사람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민 6:3).

369. 나실 사람은 포도를 먹어서는 안된다(민 6:3).

370. 그는 마른 포도를 먹어서도 안된다(민 6:3).

371. 나실 사람은 포도 씨를 먹어서도 안된다(민 6:4).

372. 그는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된다(민 6:4).
373. 나실 사람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된다(민 6:5).
374. 그는 머리를 길게 자라게 내버려두어야 한다(민 6:5).
375. 나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민 6:6).
376. 그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 (민 6:7).
377. 나실 사람은 서약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르고 제물을 바쳐야 한다(민 6:13-14).
378. 제사장은 매일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한다(민 6:23).
379. 법제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민 7:9).
380.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한 달 후에 다시 지켜야 한다(민 9:10).
381. "두 번째 유월절"(또는 "작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룩을 먹지 않고 만든 빵과 쓴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한다(민 9:11).
382. 그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된다(민 9:12).
383. 희생 양의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된다(민 9:12).
384. 성소에서는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한다(민 10:8).
385. 처음 거두어들이는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제사장에게 헌납물로 드려야 한다(민 15:18-20).
386.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민 15:38).
387.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민 15:39).
388.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를 지켜야(보호해야) 한다(민 18:4).
389.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각 각자가 할 일을 해야 한다(민 4:19)
390. 아무나 성소에서 일해서는 안된다(민 18:4, 22).
391. 일반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민 18:40).
392. 짐승의 만배는 제사장의 몫으로 바쳐야 하되, 사람과 부정한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은 그것을 바치는 대신에 속전을 바쳐야 한다(민 18:15, 16)
393. 정결한 짐승의 만배는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서는 안된다(민 18:15).
394. 회막 일은 레위인이 하여야 한다(민 18:23).
395. 십일조는 레위인에게 돌아간다(민 18:24).
396. 레위인도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민 18:26).
397.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규례(민 19:2)
398.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정을 타게 된다(민 19:14).
399. 부정을 탄 사람은 물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민 19:20).
400.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유산을 상속하여야 한다(민 27:8).
401. 번제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1년된 숫양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민 28:3).
402. 안식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민 28:9).
403. 매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 숫양 한 마리, 일년된 숫양 일곱 마리를 번제로 바쳐야 한다(민 28:11).
404. 오순절(칠칠절)에 드려야 할 제물(민 28:26-31)
405. 신년(새해)에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민 29:1).
406. 서약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민 30:3-9)

407. 서약한 것은 지켜야 한다(민 30:2).
 408. 레위 사람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을 주어야 한다(민 35:2, 7).
 409.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민 35:12).
 410. 살인 혐의자를 도피성에 보내는 것에 관한 규정(민 35:25)
 411.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자에게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민 35:30).
 412. 살인자를 돈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된다(민 35:31).
 413.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고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게 해서는 안된다(민 35:32, 33).

신명기(414-613)

414. 토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신 1:17).
 415. 재판관은 아무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신 1:17).
 416.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된다(신 5:21).
 417.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선언하는 것에 관한 규정(신 6:4)
 418. 하나님을 사랑하라(신 6:5).
 419.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신 6:7).
 420. 매일 쉼마를 암송하라(신 6:7).
 421. 경문(테필린)을 손에 매라(신 6:8).
 422. 경문을 이마에도 붙여라(신 6:8).
 423. 집 문설주와 대문에 메주라(mezuza)를 붙여라(신 6:9).
 424. 하나님과 예언자를 시험해서는 안된다(신 6:16).
 425. 가나안의 7 민족을 진멸해야 한다(신 7:2).
 426.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신 7:2).
 427. 가나안의 7민족과 결혼해서는 안된다(신 7:3).
 428. 이교도들의 신상을 불태우고, 그 위에 입힌 보석들을 탐내서는 안된다(신 7:25).
 429.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들을 집 안에 끌어들이서는 안된다(신 7:26).
 430.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들 드려야 한다(신 8:10).
 431.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신 10:19).
 432.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신 10:20).
 433. 하나님을 섬기라(신 10:20).
 434. 하나님에게만 가까이하라(신 10:20).
 435. 맹세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신 10:20).
 436. 이교도들이 신을 섬기는 장소는 어느 곳이나 다 허물어야 한다(신 12:2).
 437. 거룩한 것들을 옹에서는 안된다(신 12:4).
 438.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신 12:6).
 439. 번제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신 12:13).
 440. 다른 모든 제물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신 12:14).
 441.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짐승의 고기를 성 안에서 먹을 수 있다(신 12:15).

442. "두 번째 십일조"로 바친 곡식은 예루살렘 밖에서 먹어서는 안된다(신 12:17).
443. "두 번째 십일조"로 바친 포도주를 마셔도 안된다(신 12:17).
444. 기름도 마찬가지이다(신 12:17).
445.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예루살렘 밖에서 먹어서는 안된다(신 12:17).
446.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린 것도 성전 밖에서 먹어서는 안된다(신 12:17).
447. 번제물로 드린 것은 먹어서는 안된다(신 12:17).
448. 제물의 피를 뿌리기 전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신 12:17).
449. 첫열매로 바친 것은 일반 사람이 먹어서는 안된다(신 12:17).
450. 레위 사람을 저버려서는 안된다(신 12:19).
451. 짐승을 잡는 것에 관한 규정(신 12:20, 21)
452. 산 짐승의 신체 중 일부를 먹어서는 안된다(신 12:23).
453. 제물은 성전으로 가져가야 한다(신 12:26).
454. 토라에 하나라도 더해서는 안된다(신 12:32).
455. 토라에서 하나라도 빼서는 안된다(신 12:32).
456.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신 13:1).
457. 유혹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신 13:7-10).
458. 이방 신에게로 유혹하는 자를 증오하라(신 13:9).
459. 그들을 죽여야 한다(신 13:9).
460. 그들을 감싸주어서도 안된다(신 13:9).
461.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숨겨서도 안된다(신 13:9).
462.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는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신 13:10).
463.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야 한다(신 13:14).
464.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에게로 빠진 성읍은 불살라야 한다(신 13:15).
465. 그런 성읍은 다시 세워져도 안된다(신 13:16).
466. 그 성읍에서 어떤 물건도 취해서는 안된다(신 13:17).
467.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된다(신 14:1).
468.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머리를 밀어서는 안된다(신 14:1).
469.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된다(신 14:3).
470. 새는 그것이 정한 것인지 알아보고 먹어야 한다(신 14:11).
471. 날개 달린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어서는 안된다(신 14:19).
472.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된다(신 14:21).
473. "두 번째 십일조"에 관한 규정(신 14:23-27)
474. 가난한 자를 위한 십일조에 관한 규정(신 14:28-29)
475. 안식년에는 동족(同族) 유대인의 빛을 식처 주어야 한다(신 15:2).
476. 안식년이라도 이방인에게 준 빛은 받아야 한다(신 15:3a).
477. 안식년에는 유대 동족의 빛을 식처 주어야 한다(신 15:3b).
478. 가난한 동족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신 15:7).
479.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신 15:8).
480. 안식년이 가까온다고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신 15:9).

481. 종을 놓아줄 때에는 빈 손으로 보내서는 안된다(신 15:13).
482. 그들에게 넉넉히 주어 내보내야 한다(신 15:14).
483. 하나님께 바칠 집승의 만배를 부려서는 안된다(신 15:19a).
484. 제단에 바칠 첫새끼 양의 털을 깎아서도 안된다(신 15:19b).
485. 니산 월 정오가 지나서는 누룩이 들어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된다(신 16:3).
486.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된다(신 16:4).
487. 유월절 양을 성전 이외의 곳에서 바쳐서는 안된다(신 16:5).
488. 3대 절기는 기쁨으로 지켜야 한다(신 16:14).
489. 모든 성인 남자는 일년에 세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신 16:16).
490. 제물이 없이 성전에 올라가서는 안된다(신 16:16).
491. 모든 성읍에는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신 16:18).
492. 성전에는 나무를 심어서는 안된다(신 16:21).
493. 어느 곳에도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된다(신 16:22).
494. 흙있는 집승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된다(신 17:1).
495. 산헤드린의 결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신 17:10).
496.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된다(신 17:11).
497. 이스라엘의 왕은 산헤드린에서 임명받아야 한다(신 17:15a).
498. 외국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된다(신 17:15b).
499. 왕은 군마를 필요 이상으로 가져서는 안된다(신 17:16a).
500. 왕은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된다(신 17:16b).
501.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된다(신 17:17a).
502. 왕은 재물을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된다(신 17:17b).
503. 왕은 율법 책을 복사해야 한다(신 17:18, 19).
504. 레위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이어받지 못한다(신 18:1).
505. 레위 지파는 전리품을 취할 수 없다(신 18:1).
506. 제사장은 제물의 특별한 부위들을 가질 수 있다(신 18:3).
507.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신 18:4).
508.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신 18:4).
509. 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일해야 한다(신 18:6-8).
510. 점쟁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신 18:10).
511. 복술객을 용납해서는 안된다(신 18:10).
512. 주문을 외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신 18:10).
513. 마법사를 용납해서는 안된다(신 18:10).
514. 마술하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신 18:10).
515. 죽은 사람에게 물어 보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신 18:10-11).
516.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신 18:15).
517. 거짓 예언자를 삼가라(신 18:20).
518.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해서는 안된다(신 18:20).
519. 거짓 예언자는 죽여야 한다(신 18:22).
520.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마련해야 한다(신 19:3).

521. 살인자를 동정해서는 안된다(신 19:13, 21).
522. 이웃의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된다(신 19:14)
523.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된다(신 19:15).
524. 거짓 증언을 하는 자에게는 그가 이웃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벌을 내려야 한다(신 19:19).
525.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라(신 20:1).
526. 전쟁터에서 되돌려 보내야 할 사람들에 관한 규정(신 20:5-7)
527.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제의하라(신 20:10, 11).
528. 가나안의 7 민족을 진멸하라(신 20:16).
529. 성읍을 점령할 때 나무들을 베버리지 말라(신 20:19).
530.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관한 규정(신 21:1-9)
531.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을 위해서 송아지를 죽인 험한 계곡에서는 일도 하지 말고 그곳에 씨도 뿌리지 말라(신 21:4).
532. 포로로 잡혀 온 여인을 아내로 취해도 된다(신 21:10, 11).
533. 그러나 그 여인을 팔아서는 안된다(신 21:14a).
534. 그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도 안된다(신 21:14b).
535.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신 21:22).
536. 그러나 그 주검을 밤까지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신 21:23).
537. 그 주검은 그 날로 파묻어야 한다(신 21:23).
538.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신 22:1).
539. 그리고 그것을 못본체 해서는 안된다(신 22:3).
540. 이웃의 짐승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을 도와 그 짐승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신 22:4).
541. 짐승에게 짐을 싣거나 내릴 때 도와주어야 한다(신 22:4).
542.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신 22:5a).
543.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신 22:5b).
544.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새를 잡아서는 안된다(신 22:6).
545. 새끼를 잡기 전에 먼저 어미 새를 날려보내야 한다(신 22:7).
546.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신 22:8a).
547. 그리고 집에서 사고가 나 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신 22:8b).
548.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려서는 안된다(신 22:9a).
549. 그리고 거기에서 거둔 곡식도 먹어서도 안된다(신 22:9b).
550. 소와 나귀에게 한 명을 메워 같이 밭을 갈게 해서는 안된다(신 22:10).
551.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잔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신 22:11).
552. 결혼의 성립에 대한 규정(신 22:13)
553. 아내에게 그녀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 관한 규정(신 22:14-18)
554. 아내에게 그녀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거짓 누명을 씌운 사람은 평생 그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신 22:19).

555. 성 안에서 한 남자와 다른 사람에게 약혼한 여자가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는 둘 다 돌로 쳐죽여야 한다(신 22:24).
556. 그러나 성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남자만 돌로 쳐죽여야 한다(신 22:26).
557.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인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신 22:29).
558. 그리고 그는 그녀와 결혼해야 하되, 그 여자와 이혼해서는 안된다(신 22:29).
559. 신랑이 티졌거나 신(腎)을 베인 사람은 주의 종회 회원이 될 수 없다(신 23:1).
560. 사생아는 주의 종회 회원이 될 수 없다(신 23:2).
561. 유대인은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과는 영원히 결혼할 수 없다(신 23:3).
562.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는 평화 관계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된다(신 23:6).
563.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신 23:7a).
564. 이집트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된다(신 23:7b).
565.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진(陳)에 들어갈 수 없다(신 23:10, 11).
566. 화장실은 진 밖에 만들어야 한다(신 23:12).
567. 군인은 무기와 더불어 삼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한다(신 23:13).
568. 도망은 종을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신 23:15).
569. 그리고 그들을 압제해서도 안된다(신 23:16).
570. 이스라엘 자손은 창녀나 남창이 되어서는 안된다(신 23:17).
572. 동족에게서 이자를 취해서는 안된다(신 23:20).
573.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신 23:21).
574.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것은 지체함이 없이 지켜야 한다(신 23:21).
575.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신 23:23).
576.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싹틔 따먹는 것은 괜찮다(신 23:24a).
577. 그러나 그릇에 담아 가면 안된다(신 23:24b).
578.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는 것은 괜찮지만,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신 23:25).
579. 이혼 증서에 대한 규정(신 24:1 이하)
580. 이혼한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된다(신 24:4).
581. 새신랑은 1년동안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신 24:5a).
582.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는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하다(신 24:5b).
583. 뱃돌을 저당 잡아서서는 안된다(신 24:6).
584. 악성 피부병의 조짐이 보이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신 24:8).
585. 담보물을 잡으려고 집에 들어가서는 안된다(신 24:10).
586. 담보물은 그날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신 24:12).
587. 담보물을 그것을 잡힌 사람이 필요한 때에 즉시로 돌려주어야 한다(신 24:13).
588. 품꾼에게는 그날로 품삯을 지불해야 한다(신 24:15).
589.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언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신 24:16).
590. 외국 사람과 고아에게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된다(신 24:17).
591.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서는 안된다(신 24:17).

592.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잊어버리고 거두어들이지 않은 단을 다시 가서 취하여 와서는 안된다(신 24:19).
593. 그것은 올리브 나무의 열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신 24:20).
594. 형벌로 매를 맞을 경우에는 재판관은 매 맞을 사람을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한다(신 25:2).
595. 그러나 40대 이상 때려서는 안된다(신 25:3).
596.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된다(신 25:4).
597.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된다(신 25:5a).
598.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한다(신 25:5b).
599.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신 25:7-10)
600. 음낭을 잡는 자를 보고도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신 25:11).
601. 그에게는 동정심을 보여서는 안된다(신 25:12)
602. 집에 크고 작은 두개의 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신 25:14).
603. "아말렉 사람이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신 25:17).
604.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신 25:18).
605. 그리고 절대로 그들이 한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신 25:18).
606. 햇곡식을 예물로 바칠 때 드리는 고백(신 26:5-10)
607.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를 드린 것에 대한 고백(신 26:12-15)
608. 십일조를 애곡하는 날에 먹어서는 안된다(신 26:14a).
609. 그리고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먹어서도 안된다(신 26:14b).
610. 또한 그것을 죽은 자를 위해 사용해서도 안된다(신 26:14c).
611.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라(신 26:17).
612. 안식년 장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아야 한다(신 31:12-13).
613. 토라(율법)를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신 31:19).

제사장의 반열이란?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24반열로 구분하여서 성막의식을 집행케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24반열로 구분시킨 것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수는 대략적으로 2만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24반열로 구분하였는데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

24반열에 뽑힌 자들(역대상 24: 7-18)

1반열	여호아립	13반열	훅바
2반열	여다야	14반열	예세브압
3반열	하림	15반열	빌가
4반열	스오림	16반열	임멜
5반열	말기야	17반열	헤실
6반열	미야민	18반열	합비세스
7반열	학고스	19반열	브다히야
8반열	아비아	20반열	여헤스겔
9반열	예수아	21반열	야긴
10반열	스가나	22반열	가물
11반열	엘리아십	23반열	들라야
12반열	야김	24반열	마아시아

르아살과 이다말로부터 각각 24족장 중에서 제비뽑기로 제사장 직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최대한 공평하게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이 제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통해 제사장을 선출했는데 이렇게 제비뽑기 방식으로 섬길 제사장을 뽑은 것은 엘르아살 가문의 족장이 16명이고 이다말 가문의 족장이 8명으로 자칫 잘못하면 불공평하게 제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한 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독은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에 의해 파면 당하고 말았으며 사독은 기원전 171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Antiochus)에 의해 짓밟혀 메넬라우스(Menelaus)의 가문으로 넘겨질 때까지 존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섬기는 순서는 달랐지만 하는 일은 동일했습니다

다.

"[대상 24:19]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먼저 제사장 스스로 정결과 거룩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한채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집행했으며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식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발자취

1) 광야시대 및 가나안 정착시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성막을 짓게 하고서 성막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제일 먼저 성막의 이동을 맡는 레위지파가 선두에 서게 하셨으며 진을 칠 때는 제일 먼저 성막 먼저 세운 다음에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진을 형성하도록 하셨습니다.

40년의 긴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요단강 물을 밟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가장 먼저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먼저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성막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서 7년 1차 가나안 정복기간 동안에 성막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겨우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이룬 후에서야 비로소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수 18: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나안 정복기간 동안에 성막은 길갈에 아무렇게나 안치되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기간에 성막의 의식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전쟁에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으나 모세처럼 성막의 중요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막과 함께 40년 동안이나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모세에 비하면 인생에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성막의 중요성이 모세와 같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2) 통일왕국시대

다윗 시대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은 네 명이 있었는데 그 중 첫째와 둘째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의 후손이 대제사장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독은 엘르아살의 후손이었고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이 두 대제사장이 함께 했지만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사독이 홀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꾀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직에서 파면했습니다. 하지만 사독은 기원전 171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Antiochus)에 의해 폐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대제사장직은 메넬라우스(Menelaus)의 가문으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3) 분열왕국시대

솔로몬의 타락에 의해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베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으며 제사장이 아닌 왕 자신이 직접 분향하는 죄까지도 서슴치 않았습

니다.

"[왕상 13:1]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벧엘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지만 북왕국과는 달리 남왕국에서는 비교적 제사장 규례가 잘
지켜졌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종교개혁이 단행되었고 성전제
사제도와 제사장 및 레위인의 조직이 재정비되었습니다. 또한 히
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지성물을 생계로 주어 저들
로 하여금 제사장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게 하였습니다(대하 31:4-
19).

요시아 왕 때에도 종교개혁이 단행되었는데 성전 수리 중에 율법
책을 발견하여 그때부터 율법에 의해 백성에게 언약대로 살게 하
였습니다(왕하 22:3-5, 23:1-9).

4)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앗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기간 중에는 그야
말로 완전히 제사장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로 포로 귀환이 이뤄졌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으며 다윗시대와 같이 제사장의 반열을 회복시켰
습니다.

"[라 6:18]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또한 제사장의 후손 중 자신의 족보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 2:62] 이 사람들이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라 2:63]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특히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 후에 이방여인과 결혼한 제사장 명단을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성별과정을 거쳤습니다(라 10장 참조).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제사장들은 타락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 2:7]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가 됨이어늘 [말 2:8]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

하였느니라"

5) 신약시대

이러한 제사장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윗시대에 제정되었던 제사장의 24반열 제도는 신약시대까지 존속되어져 왔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아비아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눅 1:5]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모세의 성막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천국의 장막을 보여주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 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장막을 이 땅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구약의 '성막(미쉬칸)'이라는 단어와 신약에 쓰인 '장막(스케네)'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장막'은 모세가 지은 '성막'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는 성막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따로 떨어져 살면서 모든 행정도 지파별로 운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성막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테강까지 거대한 영토를 약속하셨습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차지했을 때에는 더 이상의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노예생활 해 왔던 저들의 문화가 가나안 땅도 거대한 영토로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영토를 빼앗지 못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은 '성막'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에 단 한번도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성막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성막을 잘 유지하지 못했으며 성막의 성물들은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성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갈의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성막은 길갈에 안치되었습니다(수 4:16, 5:10, 9:6). 길갈은 여리고 근처지역입니다. 전쟁때문에 우선 여리고와 가까운 길갈에 성막을 안치해 놓은 것입니다. 길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막을 안치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다른 땅에 비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실로의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을 때 성막을 실로로 옮겼습니다(수 18:1).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성막은 '여호와와의 전'이라고 불려졌는데 이것은 장막이 아닌 건물을 뜻하였습니다(삼상 1:9).

"[삼상 1: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때부터 성막은 더 이상 장막이 아니라 건물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 저곳 옮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건물로 지어서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성막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각 지파별로 행정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예배처소도 만들어졌습니다(삿 18장 참조, 시 78:58). 비록 실로에 있는 성전이 이스라엘의 대

표하는 성전이었지만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원함에 따라 예배처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로의 함락이후의성막

엘리 사사에 의해 운영되어져 왔던 실로 성전이 블레셋인들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시 78:60-62). 실로가 함락되기 직전에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는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적군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삼상 4:11).

"[삼상 4: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는 다윗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약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길갈에다시세워진성막

실로가 함락된 이후에 성막은 다시금 길갈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사무엘과 사울이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삼상 11:15).

"[삼상 11:15] 모든 백성은 길갈로 가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를 왕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함께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놉의성막

다윗이 놉 땅에 있는 성막에서 진설병을 취하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다(삼상 21:1-6).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성막은 길갑에서 좁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시대 때에 성막이 좁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기브온의성막

또 다시 성막은 좁에서 기브온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쩌면 성막의 성물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 때에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대상 21:29).

"[대상 21:29]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그 당시에 기브온 언덕에 있었으나"

다윗성의성막

다윗은 블레셋인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궁궐 옆에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삼하 6장 참조). 하지만 비록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안치되었지만 여전히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대상 21:29]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 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러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왕상 3:4).

"[왕상 3:4]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은 기브온 산당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다윗의 장막보다 더 좋아한 이유는 사람들이 기브온 산당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솔로몬은 사람들이 좋

아하는 산당을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성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립함으로써 모든 성막의 성물들은 전부 솔로몬 성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959년에 만들어져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기까지(기원전 586년) 대략 400년간 존속되었습니다.

스룹바벨성전

BC 516년에 완공 되었으며 바사 고레스 왕으로부터 유다총독으로 임명된 다윗의 후예 스룹바벨에 의해 건축됩니다. 외형이 왜소했으며 알렉산더 대왕 사후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루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 심하게 짓밟혀졌습니다.

헤롯성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 심하게 더럽혀지고 훼손된 성전을 이두매 족속이었던 헤롯이 유대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원래 매우 왜소한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헤롯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으로 호화스럽게 건축을 합니다. 80년간에 걸쳐 건축할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AD63년에 완공된 헤롯성전은 AD70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성전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떠한 건물에 계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행 7: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향해 하나님

의 성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세시대에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
께서는 오늘날 모든 믿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각 영혼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
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의 비밀

초판발행 2015. 07. 30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2013-018595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터목사)
홈페이지 www.WalkingWithBible.com / www.LivingWaterChurch.co
이 메 일 mail@walkingwithbible.com

